

주체91(2002)년

6.15주간

6.15Weekly

제31호 (1월 18일~1월24일)

노작 - 민족통일전선문제에 대하여

우리 민족끼리 단합과 통일을 촉진하는 해

해내외동포들에게 보내는 호소문

≪못 보면 일생 후회할 아리랑 공연≫

≪北 금강산-원산-평양 육로개방≫

조선일보의 대북험담을 따져본다 (1, 2, 3)

리회창이 집권하게 되면 공동선언 리행될 수 없다

6.15주간 편집부

6.15주간

6.15WEEKLY

제31호 (1.18~1.24)





민족통일전선문제에 대하여

민주청년단체가 주최한 정치강좌에서 한 강의

1945년 12월 22일

나는 오늘 동무들에게 우리 나라 혁명에서 민족통일전선이 왜 필요하며 그것을 어떻게 결성할 것인가에 대하여 말하려고 합니다.

혁명투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서는 조성된 정세와 계급적 역량관계를 옳게 타산하여 혁명역량을 잘 편성하여야 합니다. 통일전선문제는 대중을 전취하며 혁명역량의 결정적 우세를 보장하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마르크스-레닌주의적 전략전술문제의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 민족통일전선을 굳게 형성하는 것은 매우 절박한 과업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가 민족통일전선을 튼튼히 형성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것은 혁명역량을 굳게 묶어 세우는가 못 세우는가, 반혁명세력을 철저히 고립시키는가 못시키는가 하는 심각한 문제이며 따라서 그것은 우리 혁명의 승패를 좌우하는 근본문제의 하나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부터 민족통일전선문제에 대하여 많이 강조하여 왔습니다.

오늘의 복잡한 국내외정세에서 우리가 전체 인민의 힘을 적극 조직 동원하여 새 민주조선을 성과적으로 건설하려면 민족통일전선문제에 대한 옳은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특히 젊은 건국일꾼들인 우리 청년들이 이에 대하여 똑똑히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1. 우리 나라 혁명의 성격

우리는 모든 정치적 문제를 논의하는 데서 그러한 바와 같이 민족통일전선문제를 논의하는 데서도 먼저 우리 사회의 성격을 분석하는 데로부터 출발하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나라에서 민족통일전선의 필요성과 그 의의를 똑똑히 알 수 있으며 우리 혁명의 요구에 맞게 민족통일전선을 옳게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조선사회는 어떠한 사회입니까?

우리 사회는 일본제국주의 식민지통치에서 갓 벗어난 반봉건사회, 다시 말하여 아직 일제잔재와 봉건잔재가 많은 사회입니다.

다 아는 바와 같이 지난날 일본제국주의자들은 거의 반세기동안이나 조선을 강점하고 우리 나라에서 악독한 식민지정책을 실시하였습니다.

일제침략자들은 조선에서 세계역사상 유례없는 잔인 무도한 총독정치를 실시하면서 우리 인민을 야만적 방법으로 통치하였습니다. 그들은 조선의 가는 곳마다에 군대, 헌병, 경찰을 비롯한 온갖 폭압기구들을 수많이 늘어놓고 조선인민의 초보적인 권리와 자유마저 모조리 빼앗았으며 우리 인민을 가혹하게 탄압 학살하였습니다. 실로 일제는 전 조선을 무시무시한 파쇼적 폭압과 공포정치로 뒤덮었던 것입니다.

이와 함께 일본제국주의자들은 조선의 모든 경제명맥을 틀어쥐고 우리의 귀중한 자원을 마음대로 약탈하였으며 조선을 일본의 원료공급지로, 상품판매시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조선의 민족경제발전을 극도로 억제하였으며 우리 인민을 가혹하게 착취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의 경제를 매우 뒤떨어진 상태에 놓이게 하였으며 우리 인민을 기아와 빈궁 속에서 헤매이게 하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일본제국주의자들은 조선인민을 자기들의 영원한 식민지노예로 만들려는 야망 밑에 우리 인민의 민족의식을 말살하기 위한 악독한 정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오랜 역사와 찬란한 민족문화를 없애려 하였으며 조선인민에게 노예교육을 강요하고 노예적 굴종사상을 주입시키려고 미쳐 날뛰었습니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은 이와 같이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악독한 식민지정책을 실시하면서 우리 나라에서의 자본주의적 발전을 심히 억제하였습니다. 일제가 조선에서 발전시킨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만 자기들의 식민지적 통치와 약탈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것 뿐 이였습니다.

오늘 우리 나라에 봉건적 생산관계가 있고 조선이 반봉건사회로 남아있는 것은 바로 일본제국주의 자체의 성격 그리고 그 약탈적 본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일본제국주의는 그 자체가 고도로 발전된 자본주의가 아니고 봉건잔재를 많이 가진 자본주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제가 조선에서 자본주의를 전면적으로 발전시킬 수도 없었습니다. 특히 일본제국주의자들은 조선에 대한 자기들의 식민지통치를 유지강화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에서 의식적으로 봉건세력과 결탁하고 봉건적 관계를 보존하였습니다. 지난날 우리 나라에서 지주는 예속자본가와 함께 일제식민지통치의 중요한 사회적 지반이었습니다. 일제는 중세기적인 봉건제도의 잔재를 보존하고 그것을 식민지적 통치와 착취를 강화하는데 이용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았던 것입니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의 이와 같은 식민지통치의 후과로 하여 지금 우리 나라에는 일제잔재와 봉건잔재가 많이 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와 우리 인민의 사상도덕생활에 이르기까지 일본제국주의식민지통치의 잔재가 뿌리깊이 박혀있으며 모든 분야에서 봉건제도의 잔재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날 일제에 의하여 부식된 친일세력이 아직 그대로 남아있으며 봉건세력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 나라에서 일제잔재와 봉건잔재는 사회발전을 가로막는 큰 장애물로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선사회의 성격을 분석하는데서 반드시 주의를 돌려야 할 문제는 우리 나라의 절반 땅인 남조선에 미제국주의 군대가 들어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미제국주의 군대는 남조선에서 군정을 실시하면서 인민대중의 민주주의적 진출을 방해하고 있으며 우리 민족의 원수인 친일파, 민족반역자를 비롯한 반동분자들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이러한 구체적 실정으로부터 출발하여 조선혁명의 성격을 규정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오늘 조선혁명은 일제잔재와 봉건잔재를 쓸어버리고 새로운 민주주의사회를 건설하는 단계, 다시 말하여 반제반봉건민주주의 혁명단계에 놓여있습니다.

조선혁명의 당면한 투쟁대상은 제국주의 세력을 다시 부식하려는 일본제국주의 잔재세력을 비롯한 제국주의 앞잡이들과 그와 결탁한 봉건세력입니다. 이 두 세력은 목적과 이해관계의 공통성으로 하여 서로 지지 옹호하고 있으며 밀접히 결합되어 있습니다. 일본제국주의 잔재세력을 비롯한 제국주의 앞잡이들과 봉건세력은 다같이 우리 나라가 민주주의적으로 발전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으며 조선을 반민주주의의 길로 끌어가려고 온갖 책동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민주역량을 반대하고 낡고 썩은 반동세력을 긁어모아 우리 나라에서 내란을 일으키려 하며 외래침략세력과 결탁하여 또다시 우리 인민을 제국주의의 식민지노예로 만들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반동세력을 쓸어버리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건국사업을 잘해 나갈 수 없으며 민주주의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일본제국주의 잔재세력을 비롯한 제국주의 앞잡이들과 봉건세력을 철저히 고립시키고 그와의 투쟁을 강화하며 건국위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려면 모든 애국적 민주역량을 전취하여 혁명역량을 튼튼히 꾸려야 합니다. 바로 여기로부터 민족통일전선문제가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2. 통일전선운동의 력사적 경험

통일전선문제는 결코 오늘에 와서 처음으로 제기된 것이 아니라 벌써 오래 전에 제기되였으며 이미 국내 국제적으로 통일전선운동에서는 적지 않은 경험이 쌓아졌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1930년대 초부터 참다운 공산주의자들의 지도 밑에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이 힘차게 벌어졌습니다.

조선을 강점한 일본제국주의자들은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 대륙침략책동을 강화하는 한편 조선의 공산주의 운동과 민족해방투쟁을 더욱 가혹하게 탄압하였으며 조선인민에 대한 파쑈적 폭압과 식민지적 약탈을 강화하기에 미쳐날뛰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민의 반일감정을 격화시켰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의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인민대중 속에서 반일투쟁이 더욱 강화되였습니다. 조성된 정세는 광범한 인민대중을 굳게 묶어 세우며 반일민족해방투쟁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킬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러한 객관적 요구로부터 조선의 참다운 공산주의자들은 1930년대 초에 무장대오를 조직하고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하면서 반일민족통일전선을 형성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였습니다. 그리하여 일제를 반대하는 각계각층의 광범한 애국적 인민들을 항일의 기치 밑에 묶어 세웠으며 그들을 반일투쟁에로 적극 조직 동원하였습니다. 특히 우리는 1936년 5월에 반일민족통일전선조직으로서 조국광복회를 창건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나라에서의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는데서 획기적 계기로 되였습니다. 조국광복회에는 노동자, 농민을 비롯하여 지식인, 중소상공업자, 종교인, 민족주의자 할 것 없이 조국광복을 염원하는 각계각층의 수많은 반일군중이 망라되였습니다. 우리는 조국광복회에 각계각층의 광범한 애국적 인민들을 묶어 세움으로써 항일무장투쟁의 대중적 지반을 튼튼히 꾸리고 무장투쟁을 강화할 수 있었으며 우리 나라의 전반적 반일민족해방투쟁을 더욱 확대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중국인민들과의 통일전선도 실현하였습니다. 중국공산주의자들과의 단결을 강화하면서 공산주의자들을 적대시하던 중국인반일부대들과도 반일연합전선을 형성하여 조중인민의 공동의 원수인 일제를 반대하는 투쟁을 힘있게 벌였습니다.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진행한 이러한 통일전선운동을 통하여 우리는 고귀한 경험들을 얻었습니다. 이 경험들은 새 조국을 건설하는 오늘 민족통일전선을 강화하는데서 귀중한 밑천으로 됩니다.

통일전선운동은 유럽과 아시아의 다른 여러 나라들에서도 벌어졌습니다.

평화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유럽인민들은 파시즘의 검은 세력이 세계를 위협하기 시작하던 때로부터 통일전선운동을 벌였습니다. 1933~1935년에 걸쳐 독일에서 히틀러파쑈도당이 머리를 쳐들었으며 또한 이 시기에 이탈리아에서 무솔리니의 파쑈독재가 더욱 강화되였습니다. 유럽의 여러 나라 인민들은 전 세계를 제패하며 인류를 노예화하려는 파시스트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성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통일전선을 결성하였습니다. 프랑스와 스페인에서는 물론, 독일에서도 자유와 평화를 사랑하는 인민들과 단체들이 통일전선에 의거하여 나치스의 파시즘을 반대하는 투쟁을 벌였습니다.

통일전선운동은 자본주의 나라들에서 뿐 아니라 식민지 및 반식민지 나라들에서도 벌어졌습니다. 식민지 및 반식민지 나라 인민들은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과 식민지화정책이 더욱 강화되는데 대처하여 민족통일전선을 결성하였습니다.

제국주의 침략을 반대하기 위한 민족통일전선에는 전 민족이 망라되게 됩니다. 제국주의자들은 다른 나라를 침략하여 그 나라의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대중만 억압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극소수의 제국주의앞잡이들을 내놓고는 민족자본가들에 이르기까지의 전 민족의 이익을 침범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국주의 침략을 반대하는 투쟁에는 각계각층의 광범한 대중이 참가합니다. 물론 노동자, 농민들이 반제투쟁에서 기본역량이며 침략자들을 반대하여 다른 어느 계급보다도 견결히 투쟁합니다. 그러나 이 투쟁에는 노동자, 농민들 뿐 아니라 전 민족이 참가하게 되며 그 과정에서 민족통일전선이 결성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나라의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경험이 잘 말하여주고 있으며 또한 중국의 실례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이 중국을 침략하였을 때 중국인민들은 전 민족이 연합하여 나라의 식민지화를 반대하여 투쟁하였습니다. 일본제국주의가 중국 동북지방을 강점하고 중국대륙에 침략의 마수를 뻗치게 되자 중국공산당은 국민당에 당장 내전을 중지하고 통일전선을 결성하여 항일구국투쟁을 벌일 것을 제의하면서 인민들에게 언론, 결사의 자유와 무기를 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완고한 국민당반동파들은 오랫동안 이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무저항주의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공산당의 호소에 따라 광범한 중국인민들이 전 민족이 단합하여 항일구국투쟁을 벌일 것을 요구하게 되자 국민당반동파들은 공산당의 제의에 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중국에서 공산당과 국민당의 합작이 이루어지고 항일민족통일전선이 형성되게 되였습니다.

세계적으로 볼 때 통일전선운동은 1935년에 진행된 국제공산당 제7차대회의 호소에 의하여 더욱 확대 발전되였습니다. 국제공산당 제7차 대회에서 지미트로브 동지는 파시즘의 위험이 커감에 따라 평화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전 세계인민들에게 파시스트들을 반대하는 공동투쟁을 강화할 것을 호소하면서 반 파쑈인민전선을 결성할 데 대한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이 방침에 따라 반 파쑈인민전선운동이 국제적 규모에서 널리 벌어지게 되였습니다.

이와 같이 통일전선운동은 이미 오래 전부터 국내 국제적으로 적지 않게 벌어졌던 것입니다.

3. 조선혁명의 당면임무와 민족통일전선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현 단계에서의 조선혁명은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입니다. 우리의 당면한 임무는 전쟁과 침략세력을 반대하고 평화와 자유를 사랑하는 세계 모든 나라들과 어깨 겯고 나갈 수 있는 완전자주독립국가를 세우며 모든 분야에서 일본제국주의 식민지통치의 후과와 봉건잔재를 철저히 없애고 나라의 민주주의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나선 이 건국위업은 어떠한 당파나 몇몇 사람

의 힘만으로는 성취할 수 없으며 광범한 대중의 힘을 옳게 조직 동원하여야만 성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대중의 힘을 적극 조직 동원하려면 모든 애국적 민주역량을 굳게 묶어 세우지 않으면 안됩니다.

광범한 대중을 묶어 세우는 것은 혁명승리의 결정적 담보입니다. 대중을 전취하여 혁명역량의 우세를 보장하지 않고서는 반혁명세력의 공세를 물리칠 수 없으며 혁명에서 승리를 이룩할 수 없습니다. 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려면 반드시 광범한 대중을 전취하기 위한 사업부터 잘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일본제국주의 잔재세력을 비롯한 제국주의 앞잡이들과 봉건세력을 반대하는 각계각층의 모든 인민들을 민주주의 깃발아래 묶어 세우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참다운 민주주의 국가를 세울 수 있고 일제잔재와 봉건잔재를 쓸어버리고 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나라의 경제도 빨리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은 우리의 공장, 기업소들을 모조리 파괴하였으며 농촌경리를 황폐화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나라에는 파괴된 공장, 기업소들과 메마른 땅만 남아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경제를 복구 발전시키려면 어느 한두 사람의 힘만으로는 안되며 전체 인민이 동원되어야 합니다. 힘있는 사람은 힘을 내고 지식 있는 사람은 지식을 내고 돈 있는 사람은 돈을 내야 하며 전체 인민이 다 동원되어 나라의 경제를 부흥 발전시키고 새 민주조선을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매우 복잡한 정세에서 건국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북조선과는 달리 지금 남조선에는 미제의 비호 밑에 친일파, 민족반역자를 비롯한 반동세력이 집결되어 있으며 그들은 새 민주조선 건설에 떨쳐나선 우리 인민의 앞길을 가로막아보려고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북조선에 남아있는 친일파, 민족반역자들도 남조선반동파들과의 연계 밑에 우리 인민의 건국위업을 파탄시키려고 꾀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애국자의 탈을 쓴 가짜혁명가들과 종파분자들도 대중을 분열시키려 하며 인민들이 어느 길로 나가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게 책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세는 우리에게 새 민주조선건설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모든 애국적 민주역량을 민족통일전선에 튼튼히 묶어 세우기 위한 투쟁을 강화할 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나라의 각계각층 인민들은 다 반제반봉건민주주의 혁명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제반봉건민주주의 혁명이 수행되고 민주주의 자주독립국가가 건설되어야만 각계각층 인민들이 참다운 정치적 권리와 민주주의적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으며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지난날 일본제국주의 식민지통치 밑에서 극소수의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을 내놓고는 모든 조선사람들이 일제의 가혹한 식민지적 억압과 착취를 받아왔습니다. 노동자, 농민들과 지식인, 소상인, 수공업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민족자본가들도 일제놈들로부터 민족적 압박과 멸시를 받았으며 일본독점자본에 의하여 경제적으로 끊임없이 파산 몰락되어왔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여 전 민족이 자기의 주권을 가지지 못하고 제국주의의 식민지노예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가 하는 것을 똑똑히 체험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하여 오늘 무산계급뿐 아니라 양심적인 민족자본가들까지 포함한 전 민족이 우리 나라를 또다시 제국주의 식민지로 되게 하려는 친일파, 민족반역자를 비롯한 반동파들을 반대하고 있으며 우리 나라에 민주주의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민주주의 새 조선 건설에는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대중은 물론, 양심적인 민족자본가들도 참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나라에서 민족통일전선을 튼튼히 형성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며 또 각계각층의 광범한 대중을 망라하는 민족통일전선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여 줍니다.

우리는 조국과 민족을 사랑하며 나라의 민주주의적 발전을 원하는 모든 정치적 역량을 민족통일전선에 묶어 세워야 합니다.

우리 나라에는 노동자, 농민을 비롯하여 지식인, 종교인, 지주, 자본가와 같은 각계각층이 있는데 그들은 저마다 자기 계급과 계층의 이익을 대표하는 정치조직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해방 후 이미 여러 정당, 사회단체들이 조직되었으며 또 앞으로도 정당, 사회단체들이 더 조직될 것입니다. 그전에 해외에 있던 조선사람들도 여러 가지 정치조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해외에 있던 조선사람들 속에는 노동자, 농민, 지식인들의 이익을 대표하는 정치단체들과 지주, 자본가들의 이익을 대표하는 정치단체들이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해방된 오늘도 역시 우리 나라에 근로대중을 위한 정치단체들과 지주, 자본가들을 위한 정치단체들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각계각층 군중을 민주주의적 대중단체들에 망라시키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여 민족통일전선의 기초를 튼튼히 닦아야 합니다. 특히 청년일군들은 우리 당의 민청조직노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하루빨리 유일한 청년조직인 민주청년동맹을 결성하고 모든 애국적 청년들을 묶어 세우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각계각층 애국적 인민들을 민주주의적 대중단체들에 망라시키고 민주주의 완전자주독립국가건설을 염원하는 정당, 사회단체들을 민족통일전선에 굳게 묶어 세움으로써 모두다 새 조국 건설에서 힘을 합쳐나가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민족통일전선을 굳게 결성하고 각계각층의 광범한 애국적 인민들을 묶어 세우려면 무엇보다 먼저 공산당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공산당은 우리 인민이 나아갈 길을 밝혀주는 가장 올바른 정치노선을 내세우고 있으며 나라의 민주주의적 발전과 노동계급을 비롯한 근로대중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그 어느 정당보다도 견결히 투쟁하는 혁명적 당입니다. 공산당을 강화하여 그 영도적 역할을 높여야만 우리의 민주역량을 튼튼히 묶어 세우고 인민대중을 옳은 길로 이끌 수 있으며 조선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여 나갈 수 있습니다.

지난날 우리 나라에는 인민대중을 옳게 영도하여 나갈 수 있는 노동계급의 혁명적 당이 없었습니다. 1925년에 조선공산당이 창건되었으나 일제의 탄압과 종파분자들의 저주로운 파벌싸움으로 하여 1928년에 해산되었습니다. 물론 그후에도 우리 나라에서 공산주의 운동이 계속되었고 공산당을 창건하기 위한 투쟁이 끊임없이 벌어졌으나 해방될 때까지 공산당을 내오지 못하였습니다. 노동계급의 혁명적 당이 없다보니 대중을 조직하는 사업이 당의 통일적 지도 밑에 진행될 수 없었으며 지난날 국내에서 벌어진 반일투쟁들이 적지 않은 경우에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났고 따라서 실패를 면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지난날의 이러한 쓰라린 교훈을 결코 잊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모두다 공산당의 영도가 없이는 우리의 건국사업을 잘해 나갈 수 없으며 조선혁명의 승리를 이룩할 수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공산당을 강화하는 사업을 적극 도와 나서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공산당의 영도 밑에 모든 애국적 민주역량을 민족통일전선에 튼튼히 묶어 세우고 그들을 새 민주조선 건설에 적극 조직 동원하여야 할 것입니다.

1. 북만의 전우들을 찾아

≪세기와 더불어≫ 제4권 제11장 혁명의 분수령



…

우리는 5군의 숙영지에 독학하기 바쁘게 공동행동문제를 가지고 주보중과 의견을 나누었는데 여기서 약간의 마찰이 생겼다. 주보중이 훈춘연대의 연대장인 후국충에게 동만원정대의 행동방향을 지령식으로 내리먹이려 한 것이 동기가 되어 쌍방간의 대화가 얼마동안 교착상태에 빠졌던 것이다. 그 당신 5군 정치위원이였던 호인은 부대를 데리고 목릉일대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주보중의 요구는 동만원정대가 목릉에 가서 호인을 도와 싸우다가 오하림지구에 진출하여 그곳을 장악해 달라는 것이였다.

그닥 어려운 부탁도 아니였는데 자존심이 강한 후국충은 단마디로 그것을 거절해 버렸다. 아마 그 부탁이 부탁으로 들리지 않고 지시로 느껴졌던 모양이다. 안길과 김려중도 그와 견해를 같이하였다. 우리에겐 우리대로의 원정목적이 있고 밟아야 할 노정도 따로 있는데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가. 5군은 5군이고 2군은 2군이다라고 하면서 막 골을 냈다. 그들이 그렇게 골을 내는 것은 무리가 아니였다. 우리는 2군을 대표하여 북만에 온 것만큼 공동투쟁을 한다고 하여 남의 지휘봉에 따라 무턱대고 움직일 수 없었다.

주보중은 빨찌산이 포나 중기관총과 같은 중무기를 가지고 다니는 것은 유격전의 특성에 맞지않다고 하면서 그것을 모험이라고 하였다.

나는 그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긍정하면서도 중무기가 유격전에 적합한가 적합하지 않은가 하는 것은 좀 두고 보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였다. 원래 우리는 항일전쟁을 시작할 때 유격대가 사용하게 될 기본무기는 경무기가 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밝힌바 있다. 그런데 태평구전투에서 박격포를 쏘아보고 그 위력을 가늠하게 된 다음부터는 유격전이라고 하여 중무기를 덮어놓고 쓰지 않을 필요가 없다는 것과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는 중무기를 적적히 쓰는 것이 큰 은을 낼 수 있다는 견해를 가지게 되었다. 실지로 쏘련의 빨찌산들은 공민전쟁때 포나 막심중기를 사용한 전례를 가지고 있었다. 부분적인 현상이긴 하지만 중국의 일부 유격대원들도 그 무렵에는 포를 이용하였다.

동만원정대가 포와 중기를 가지고 다니는데 대하여 주보중이 모험이라고 한 것은 지나치다고 볼 수도 있었다.

나는 팽팽해진 분위기를 늦굴 목적으로 모두들 공동행동에 대한 구상을 더 무르익힌 다음에 다시 모여앉아 양자가 다 접수할 수 있는 대책안을 짜보자고 제기하였다. 주보중은 나의 제의를 흔연히 받아들였다. 이렇게 되어 우리는 북만부대들과의 연합작전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안을 연구하면서도 행군에 지친 원정대 성원들

의 휴식을 보장해줄 수 있는 얼마간의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되였다.

산동툰은 100여호의 농가들로 이루어진 중국인 부락이였다. 산동툰이란 지명은 산동지방 사람들이 모여 사는 부락이라는데서 유래된 것이다. 적들은 이 부락을 봉쇄하느라고 마을로부터 15리 떨어진 곳에 200-300명 가량의 토벌대를 상주시키고 있었다. 나는 산동툰에 가 있을 때 녕안현당 서기와도 연계를 가지고 산동툰당조직과도 연계를 가졌다.

내가 산동툰부락에서 이연록군장을 만난 것이 바로 이 무렵이였다. 그때 우리는 어떤 지주집에 거처를 정하고 있었다. 집주인은 지주였지만 마음씨가 무던한 사람이였다. 그래서 손님들은 모두 그 집 일을 한가지라도 더 해주지 못해 애를 썼다.

어느날 우리는 집주인을 도와 밀가을을 하다가 밭에서 비를 만났다. 베여놓은 밀이 비에 젖지 않도록 낟가리를 잘 가려놓은 다음 숙소에 돌아오자 류한홍이 오늘은 날씨도 구질구질한데 점심이나 먹고 휴식하자고 하면서 여러 가지 요리를 손수 만들어 푸짐한 음식상을 마련해주는 것이였다. 나는 이연록이네 부대가 왕청에 와 있을 때부터 류한홍이 뛰어난 음식솜씨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류한홍과 같은 중학출신의 지식분자가 전문요리사들도 깜짝 놀라게 할 음식솜씨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정말로 희한한 일이였다. 그는 요리솜씨도 대단하였지만 술도 잘 마셨다. 우리가 한잔을 하면 석잔쯤 마시는 대주가였다. 안주맛이 좋아서 그랬던지 그날은 나도 술을 몇잔 마셨다.

우리가 밀제비국을 한창 먹고 있을 때 밖에서 갑자기 수류탄 터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밖에 나가보니 밀북데기 앞에 뱀들이 수십마리나 너부러져 있는 것이 보였다. 집주인이 복뱀이라고 하면서 기르던 뱀들이였는데 수류탄 벼락을 맞고 일시에 무리죽음을 당한 것이였다. 집주인은 뱀들이 집안까지 들어와 밥상 밑에서 기어다녀도 가만 내버려두었다. 그 지방에서는 뱀을 일종의 수호신처럼 여기는 미신적인 풍습이 있었다.

그날 마당에서 문전보초를 선 것은 우리부대에 배속되어 북만까지 따라온 청년의용군대원들이였다. 그들이 교대로 보초를 서고 있을 때 비가 멎고 해가 비쳤다. 그러자 낟가리속에 움츠리고 있던 뱀들이 복데기속에서 대가리를 내밀었다. 이곳 사람들이 뱀을 신성한 동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알리 없었던 보초는 공포에 질린 나머지 앞뒤를 가릴 사이도 없이 무작정 수류탄을 뽑아들고 뱀의 무리를 향해 던졌던 것이다.

집주인내외는 죽을 뱀들을 보고 몹시 상심해하였다. 그들은 불길한 재액의 조짐이라도 생긴 것처럼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다.

주보중과 류한홍이 좋은 말로 위로하였으나 그들은 불안을 가시지 못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식사도 채 하지 못하고 부득불 그 집을 떠나지 않으면 안되었다.

1935년 7월 하순 동만에서 고려홍군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수백명의 위만군과 경찰대로 편성된 혼성기마대가 장마구름처럼 산동툰으로 모여들었다. 어림짐작으로 가늠해보아도 몇백명 실히 될 것 같았다.

그 당시 5군의 주력은 목릉과 녕안현 서북방에 나가 있었다.

4군 군부의 여력도 얼마 안되었다. 수적으로는 적이 우리보다 2배 정도 우세한 셈이였다.

싸울 것인가, 피할 것인가?

주보중과 류한홍은 나의 의향을 물었다.

나는 싸우기로 결심하였다. 4군, 5군과 우리와의 연합작전은 이처럼 탁상 앞에서가 아니라 먼지가 뽀얗게 일으키며 달려드는 적기마부대의 산개대형앞에서 가볍게 타결되고 실천에 옮겨졌다. 강한 적은 피하고 약한 적만 치라는 ≪피실격허≫가 옛 성현들의 가르침이고 또 유격활동의 규범이기는 하였으나 그 적용에서 반드시 일률적일 수 없었다. 북만에서 우리의 위력을 한번 과시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설정한 북만원정의 목적을 달성하는데서도 필수불가결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었다. 그리고 당시의 모든 정황과 지형조건으로 보아도 승산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간단한 협의 끝에 곧 접전을 벌이기로 결정하고 전투행동을 개시하였다.

우리는 인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게 위하여 적들이 산동툰 마을에 달려들기 전에 맞받아나가 싸울 수 있도록 진지를 정하고 매개 부대들에 해당한 전투임무를 주었다. 태평구전투에서 위훈을 떨친 박격포중대의 포수들과 중기관총중대의 명사수들은 적들의 공격로로 지목되는 방향들을 타격하기 위한 사격제원까지 미리 구해놓고 나의 명령을 기다렸다.

량수천자촌하를 낀 산골길을 따라 무서운 속도로 달려들던 적들은 산동툰 서북쪽지대를 차지하기 위하여 산으로 기여올랐다. 우리는 전방 150-200메터 계선까지 적들을 바싹 접근시킨 다음 일제히 불벼락을 퍼부었다. 살아남은 놈들이 퇴각하였다가 량수천자촌하를 거터 남쪽산릉선을 타고 다시금 기여들려고 하였으나 거기서도 길목을 지키고 있던 우리의 용사들은 적들을 통쾌하게 쓸어눕혔다. 이런 공방전이 여러 차례 거듭되었다.

적지휘관들은 불리한 정황을 수습해보려고 대오를 다시 정비하고 있었다. 적들이 지휘소에 밀집되었을 때 박격포중대장은 사격구령을 내렸다. 포탄이 쇠소리를 내면서 연거퍼 적의 무리 속으로 날아가 떨어졌다. 살아남은 적들은 말을 타고 녕안쪽으로 퇴각할 차비를 하였다. 우리의 박격포는 철수하는 적들을 향해 포문을 돌리었다. 독안에 든 쥐 신세가 되어 오도가도 못하게 된 적들은 ≪공산군이 포까지 가지고 있을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고 하면서 초연 속을 헤매다가 어둠을 이용하여 뿔뿔이 달아나버렸다.

그 전투에서 우리가 박격포를 쏜 데 대한 반향이 대단하였다. 적들은 우리가 쏘련에서 원조를 받아가지고 박격포까지 메고 다닌다고 하면서 고려홍군이란 말만 들어도 벌벌 떨었다.

우리는 로흑산 전투에서 노획한 박격포탄을 산동툰전투에서 다 소비한 다음 박격포를 땅에 묻었다.

산동툰전투에서 어떻게나 혼쌀이 났던지 그후부터 적들은 감히 우리에게 접어들지 못하였다. 그들은 성문을 꼭닫고 성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지어 적들은 우리가 써보낸 편지를 받고 식량, 기름, 신발을 비롯한 군용필수품들을 꼬박꼬박 보내주기까지 하였다.

북만땅에 다시한번 승전고를 울렸던 산동툰 전투는 수류탄으로 뱀을 잡았던 기상천외한 고사와 더불어 나의 일생에서 그 중 인상이 깊었던 전투의 하나로 추억에 남아있다.

적들은 우리의 포성 앞에서 전율하였지만 인민들은 그 포성 앞에서 용암처럼 끓어번졌다. 북만 중국인 공산주의자들과의 공동투쟁은 이처럼 첫 시작에서부터 좋은 실적을 올렸다. 이 실적은 두나라 공산주의자들 사이의 전투적 동맹을 공고히 하여 주는 믿음직한 토대로 되었다. 주보중은 그때부터 중무기의 불합리성을 두 번 다시 운운하지 않았다.

우리는 산동툰을 떠난 수 두구자라는 곳에 가서도 방가성을 가진 사람의 집에서 북만공산주의자들가의 반일공동투쟁 문제를 다시금 논의하였다. 우리의 주동적 발기에 따라 북만원정대는 주보중과의 합의 하에 몇개의 편대로 나뉘어 5군의 활동지역에 나가 공동투쟁을 하기로 하였다. 원정대는 5군의 정치위원 호인이 활동하는 목릉지방에도 가고 평남양이 활동하는 고장에도 소부대를 보냈다.

주보중은 마창, 단산자, 옥량하, 석두하자 등지로 떠나가는 우리의 편대들에 5군의 일부성원들을 배속시켜 주었다. 이 고장들은 우리가 1차 북만원정 때 손때를 묻혀가며 개량한 옥토지대였다. 우리는 이 일대의 혁명조직들에 튼튼히 발을 붙이고 맹렬한 군사정치활동을 벌였다.

옥량하의 지하조직은 마을 주변 뿐 아니라 멀리 동경성에까지 줄을 뻗치고 있었는데 우리가 그 조직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옥량하를 생각할 때면 한 중국할머니의 모습이 떠오르군 한다. 우리가 1차로 북만에 갔을 때 그 할머니는 부녀회사업에 열성을 다하고 있었다. 환갑이 다된 몸으로 군복도 짓고 원정대의 뒷시중을 하느라고 밤잠도 자지 않는 로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모두 그때 고향

회고록

집의 어머니나 할머니로 생각하였다. 할머니는 내가 하루동안만 보이지 않아도 우리 전령병들에게 ≪진스링(김사령)이 왜 안보이는가?≫고 따져 묻군 하였는데 우리가 무고하다는 말을 듣고야 밤에 잠도 잔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간도에서 고려홍군이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는 장꿩 한 마리와 함께 그릇에 국수사리를 얹어가지고 두구자에서 출발을 서두르고 있는 우리 부대를 찾아왔다.

≪지난 해 가을에 김사령 대접을 변변히 못한 것이 마음에 걸려 국수감을 해가지고 왔으니 이 로친의 성의를 받아주신다면 더없이 기쁘겠으다.≫

노인이 국수감을 전해주면서 우리 동무들에게 한 말이였다. 그 할머니가 어떻게 우리 전령병들을 구슬렀던지 국수를 좋아하는 내 식성까지 알아냈다.

나는 그날 주보중과 함께 할머니의 지성이 담긴 음식을 맛있게 먹었다. 꿩국물에 꿩고기꾸미와 남새꾸미를 얹은 국수는 별맛이였다. 주보중은 국수를 곱빼기로 들고나서 ≪김사령이 어느새 북만땅에 와서 저런 중국로친까지 다 후려냈소? 나는 군중을 쟁취하는 김사령의 수완에 늘 탄복하곤 하는데 이번 기회에 당신네 부대에 배속된 우리 중대들에 정치사업방법을 배워주었으면 하오.≫하고 농담절반 진담절반의 청탁을 하였다.

그 해 9월 우리부대가 액목지방에서 활동하고 있을 때 5군 정치위원 호인이 정식으로 우리에게 연합작전을 제기해왔다. 그러나 그 때 우리는 위하지방으로 남하하는 김책과 사업을 위하여 그 요청을 잠깐 보류해 두었다. 그후 불가피한 사정으로 하여 호인의 요청에 끝내 응해주지 못하였으나 나는 항일전쟁 전기간 우리에 대한 그의 그 믿음을 늘 고맙게 추억하였다.

우리가 북만을 개척하는데서 녕안 다음으로 중시한 고장은 액목땅이었다. 액목은 우리의 발길이 별로 미치지 않는 고장이였고 중국인부대들조차 혁명바람을 불어넣으려다가 이가 들지 않아서 포기한 곳이었다.

하지만 김책이 소속된 3군과의 공동투쟁을 위해서는 어차피 액목땅에 보습을 대지 않으면 안되었다. 서북쪽으로 3군의 활동지역인 위하, 주하와 인접해 있고 서쪽으로는 1, 2군의 활동구역과도 이웃하고 있는 이 수수께끼같은 미지의 땅은 적아가 다같이 탐내는 대지였다.

북만의 여러 무장부대들이 액목을 개척하려고 시도하다가 실패한 것은 이 지방 인민들 속에 뿌리깊이 박혀있는 반공풍조 때문이었다. 녕안도 반공바람이 드센 고장이었으나 이 지방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액목이 이처럼 반공의 오염구역으로 된데는 이 지방을 본거지로 삼고 8.1폭동과 같은 무모한 좌경적 망동으로 공산주의망신을 다 시킨 엠엘계 종파들의 책임도 있었다. 8.1폭동의 여파로 하여 액목인민들은 일제와 반동군벌들로부터 엄청난 피해를 당하였다. 그 때부터 이 지방 사람들은 공산주의자라면 도리를 떨었다.

일제는 선무반이라는 것을 파견하여 인민들과 공산주의자들 사이에 쐐기를 박았다.

액목현 청구자밀림에서 숯구이 노동을 하다가 입대한 한 총각의 체험담은 이 지방 사람들의 반공중독이 어느 정도였는가를 웅변으로 증명해 준다. 일찍 전염병 때문에 양친과 형제들을 여의고 혈혈단신이 된 그는 문전걸식으로 모진 세월을 죽지 못해 살아오다가 액목땅에까지 굴러들어와 도로공사장에서 강제로동을 하였다. 그 때 총각은 공사장의 어떤 인부에게서 혁명가요를 한 곡 배웠는데 그것이 그가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배운 노래였다.

그 후 총각은 임가구 근처의 어느 농가에서 계절노동을 하였다. 하루는 마을의 어떤 집에서 결혼잔치가 있었다. 총각도 주인들을 따라 그 잔치집에 가서 신랑신부를 축하해주고 주례의 요구에 따라 노래를 한 곡 불렀다. 도로공사장에서 배워둔 바로 그 혁명가요였다. 그런데 그 한 곡의 노래 때문에 잔치집에서 소동이 벌어졌다. 식자가 있는 동네의 한 유지가 그 혁명가요를 듣고 그 총각을 공산당이라고 몰아주었던 것이다. 유지는 총각을 고용한 중농에게 삿대질을 해대며 ≪임자, 품팔이군을 두겠으면 똑똑한 사람을 둘 것이지 하필이면 왜 공산공처를 한다는 그 잘난 공산당을 두는가?≫고 하였다. 면박을 당한 중농은 그날로 집에서 총각을 쫓아냈다. 비극은 총각이 공산주의자들이 만들어낸 혁명가요를 부르면서도 그것이 공산주의를 선동하는 노래라는 것을 전혀 감촉하지 못했다는데 있었다. 무식이 빚어낸 결과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것은 무식의 탓이 아니라 반공풍조의 탓이었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은 토비들이나 마적들이 한 짓도 공산주의자들의 소행이라고 역선전하였다.

이런 배경에서 우리 원정대가 액목을 개척하기로 결심한 것은 솔직히 말하여 모험에 가까운 일이라고 할 수 있었다. 사실 우리는 경박호를 건너 액목땅에 첫발을 들여놓기 바쁘게 주민들로부터 심한 냉대를 받았다. 액목지방의 동쪽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부락은 중국사람들만 사는 아담한 마을이었다. 우리가 도착하자 대다수의 부락사람들은 ≪홍호자≫가 왔다고 하면서 아이들끼리 데리고 인가에서 달아나버렸다. 마을에는 노약자들만 남았는데 그들도 집에 숨어서 밖에 나오지 않았다.

나는 부락에서 얼마쯤 떨어진 수림속에서 천막을 치고 대원들을 휴식시킨 다음 마을을 한 바퀴 돌아보았다. 소학교에 가보니 교직원, 학생들도 다 숨어버리고 없었다. 이것은 액목땅에 불길을 지펴보겠다고 불원천리 찾아온 동만손님들을 위해서는 너무나도 랭혹한 대접이었다.

나는 학교마당에 풍금을 내다놓고 그 풍금을 타면서 청년의용군중대원들과 함께 ≪소무가≫와 양귀비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우리 동무들은 한족민요에서도 명창이었다. 이 두노래는 중국의 근로민중이 특별히 애창하는 명곡들이었다. ≪소무가≫는 내가 길림시절에 배운 애국가요였는데 원명은 ≪소무목양≫이다.

소무는 기원전 2세기 한나라의 충신으로 명망이 높았던 실제인물이었다. 한나라 왕의 사신으로 북쪽의 흉노족들에게로 갔었는데 흉노족들은 그를 인질로 잡아놓고 저들에게 굴복하지 않으면 놓아주지 않겠다고 하면서 수양이 새끼를 낳을 때까지는 돌아가지 못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렇게 되어 소무는 19년간 흉노족들 속에 갇혀 있었지만 절개를 굽히지 않았다.

한마디로 말하여 ≪소무가≫는 중국인민의 애국주의적 사상감정을 잘 반영하고 있는 노래였다.

우리가 풍금을 타면서 ≪소무가≫와 양귀비의 노래를 부르자 숨어있던 소학교 상급반 학생들이 먼저 호기심과 놀라움을 안고 우리곁에 모여왔다. 그리고는 내가 치는 풍금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불렀다. 그 다음에는 교원들과 동네어른들이 하나둘 슬금슬금 모여들었다. ≪고려홍군≫이 중국노래를 유창하게 부른다는 사실이 놀랍기도 하였겠지만 우리가 그 노래를 부르는 데서 그들은 홍군과 자기네 사이에 존재하는 어떤 막연한 공통성을 느꼈는지도 모른다.

어쨌든 그렇게도 원정대를 냉대하던 사람들이 우리를 친절과 선망의 눈길로 대하게 되었다.

도망갔던 마을사람들이 운동장에 다 모이자 나는 중국말로 반일연설을 하였다. 그 연설까지 듣고서야 마을사람들은 우리에게 곁을 주었다. 그들은 ≪고려홍군≫은 비적도 아니고 마적도 아니다. ≪고려홍군≫은 진짜 애국적인 혁명군이며 신사 멋쟁이군대라고 하면서 우리 부대에 대한 찬탄을 아끼지 않았다.

그때 우리는 ≪소무가≫를 가지고 북만땅의 중국사람들을 감화시켰다고 말할 수 있다.

이때의 일을 통해 나는 문학과 음악이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각성시키는데서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가를 실제로 체험하였다. 우리가 문학과 예술을 혁명의 무기로 중시하는 이유가 그때의 체험에 근거를 두었다고도 볼 수 있다.

…

혼연일체의 참모습

최현영 / 구국전선 제466호, 주체91(2002)년 1월 21일



오늘 세상사람들은 이북을 가리켜 인덕이 꽃핀 아름다운 화원, 그 열매가 주렁진 풍요한 대지라고 찬탄하고 있다.

영도자의 인덕정치가 구현되어 온 나라가 혼연일체의 화목한 대가정을 이룬 이북.

혼연일체, 이것은 사상과 이념, 목적과 지향, 활동방식과 생활기풍 등 모든 면에서 영도자와 민중이 완전히 일심동체가 된다는 것을 뜻한다.

민중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믿음의 최고화신이신 경애하는 **김정일** 영수님을 이북민중 모두는 유일한 마음의 기둥, 신념의 기둥으로 끝없이 숭배하고 따른다.

이북에 펼쳐진 혼연일체의 참모습은 무엇보다 영도자와 민중의 관계가 어버이와 자식간의 관계로 높이 승화되어 있는데 있다.

사람들사이의 관계에서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보다 더 혈연적인 관계는 없다.

바로 이북은 영도자와 민중사이에 한치의 간격도 없이 친혈육의 뜨거운 정이 오가는 하나의 대가정으로 되었다.

받아안은 사랑과 믿음이 크면 클수록 신뢰하고 따르는 마음도 그만큼 열렬한 법이다.

김정일영수님께서 민중들에게 베푸시는 사랑과 은정은 하늘의 높이에도 바다의 깊이에도 비길 수 없이 자애롭고 극진하다.

자신을 민중의 심부름꾼으로 여기시고 자신의 인생관을 민중을 위해 봉사하며 민중을 위해 헌신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계시는 영수님이시다.

그분께서는 명절날과 공휴일은 물론 자신의 생신날조차 쉬지 않으시고 나라의 부강과 민중의 복락을 위해 공장과 농어촌, 과학연구기관을 찾아 끊임없이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며 그 길위에서 밤을 지새우시고 새날을 맞으신다.

온 나라가 민족의 대국상에 몸부림치던 그 나날에도 외진 산골에서 태어난 세쌍동이를 위해 특별기를 보내주시고 평범한 해외교포의 여든돌생일잔치상까지 마련해 주신 분이 바로 **김정일**영수님이시다.

김정일영수님의 위대한 인덕에 매혹되어 이 땅의 남녀노소는 감격의 뜨거운 눈물을 흘린다.

가정에서 자식들이 부모를 따르는 것은 당연할진대 이처럼 친부모의 심정으로 자기들의 운명과 민생을 지켜주고 보살펴주는 영도자를 어찌 민중들이 하늘처럼 믿고 따르지 않겠는가.

어버이와 자식간의 관계로 승화된 이북의 혼연일체의 참모습은 그 무엇으로써도 깨뜨릴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다.

이북에 펼쳐진 혼연일체의 참모습은 다음으로 영도자와 민중이 위대한 스승과 제자의 관계로 맺어진데 있다.

태양의 인력이 없이 행성들이 자기 궤도를 돌 수 없는 것처럼 위대한 스승을 모시지 못한 민중은 험난한 역사의 행로에서 지팽점을 찾을 수 없고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뭉칠 수 없다.

오늘 이북민중은 위대한 스승의 영도를 받는 세상에서 가장 자긍심높은 민중으로 되었다.

정치에서 노숙하고 군사에 비범하며 경제와 문화에 박식하고 인간도덕과 의리를 최고의 경지에서 체현하고 계시는 분, 인간이 지닐 수 있는 모든 지성과 재능을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겸비하신 경애하는 영수님을 이북민중은 위대한 스승으로 모시고 있다.

스승이 위대하면 그 스승이 키운 제자도 참되게 되기 마련이다.

원래 인간이라면 누구를 막론하고 자기를 키워주고 옳은 길로 이끌어 주는 자기 스승을 끝없이 존경하고 따르게 되며 어떤 역경 속에서도 스승에 대한 의리를 저버리지 않는다.

김정일영수님을 위대한 스승으로 모시어 오늘 이북민은 가장 귀중한 사상정신적 재부의 소유자, 영웅적이고 문명하며 박식한 민중으로 존엄과 재능을 만방에 빛내이고 있다.

뜻을 따라도 영도자의 뜻을 따르고 탐구와 사색도 영도자가 가르쳐준대로 하며 정신도덕적 수양도 영도자의 풍모를 따라배우는 숭고한 모습은 영수님을 위대한 스승으로 모신 이북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혼연일체의 참모습이다.

이북에 펼쳐진 혼연일체의 참모습은 또한 민중들 모두가 서로 돕고 이끌며 화목하게 살아가는 화목한 대가정이라는데 있다.

한가마밥을 먹는다고 형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한지붕아래 산다고 정이 다 통하는 것도 아니다.

영도자의 인품이 숭고하고 사랑이 뜨거울 때 그품에 사는 민중들은 친형제와 같이 화목해지고 행복해지는 법이다.

김정일장군님의 사랑은 천만자식을 안아키우는 어버이사랑이며 영수님의 품은 얼었던 가슴도 녹여주는 뜨거운 인정의 품이다.

그 사랑, 그 인덕아래 이북땅에서는 사랑의 화원이 꽃펴지고 사람들은 저마다 인간사랑의 미풍을 꽃피우고 있다.

피와 살, 생명도 바치고 선배들을 존대하고 상이군인들과 일생을 같이하는 아름다운 소행들이 날에 날마다 꽃펴나는 것이 이북의 현실이다.

자랑스런 이북현실을 목격한 재미교포는 ≪지구촌에 인간을 위한 바른 시책을 실시하고 사람들 상호간에 화목한 혈육처럼 살아가는 나라는 이북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격정을 터친바 있다.

혼연일체, 이것이야말로 이북의 가장 큰 자랑이고 강성대국을 건설하는 힘이다.

올해를 ≪우리 민족끼리 단합과 통일을 촉진하는 해≫로

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 합동회의

(평양 1월 22일발 조선중앙통신) 22일 인민문화궁전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 합동회의가 진행되였다.

회의에서는 조선민족끼리 단합을 도모하고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 나가기 위한 당면대책에 대하여 토의하였다.

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책임일군들과 관계부문 일군들이 회의에 참가하였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양형섭부위원장이 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오늘 조선민족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풀어 나가는 력사의 새 시대를 맞이 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겨레의 조국통일운동은 6.15북남공동선언이 열어 준 길을 따라 북과 남, 해외의 각당, 각파, 각계각층을 망라한 거족적인 자주통일운동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조선민족은 력사적인 북남공동선언발표 2돐이 되는 올해에 ≪우리 민족끼리 조국을 통일하자≫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조국통일에 대한 필승의 신심과 락관에 넘쳐 기어이 자주통일의 결정적국면을 열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올해에 조선민족끼리 조국통일의 결정적국면을 열어 나가기 위하여서는 북남관계를 전진시키고 조국통일운동을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북남관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당국사이의 대화와 모든 형태의 민간급 회담 및 접촉을 모색하여야 하며 그것을 적극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하였다.

보고자는 올해 조국통일의 결정적국면을 열어 나가기 위하여서는 나라의 평화를 위협하고 통일을 장애하는 요인들을 제거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안팎의 호전세력들의 새 전쟁도발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시고 나라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전민족적인 반전투쟁에 과감히 떨쳐나서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6.15북남공동선언 고수리행, 북남관계 진전과 통일운동 활성화, 평화를 위협하고 통일을 장애하는 요인 제거, 이것은 올해에 조선민족끼리 단합을 도모하고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 나가는데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대한 과제이라고 그는 지적하였다.

보고자는 이 중대한 과제를 온 겨레가 힘을 합쳐 해결해 나가려는 일념에서 올해를 ≪우리 민족끼리 단합과 통일을 촉진하는 해≫로 하고 북남공동선언이 발표된 6월 15일을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날≫로 정하며 그 실천대책의 하나로서 5월부터 7. 4공동성명이 발표된 7월을 거쳐 조국이 광복된 8월까지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나가는 운동기간≫으로 할 것을 제의하였다.

회의에서는 해내외동포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이 채택되였다.

해내외동포들에게 보내는 호소문

해내외동포들!

새해 2002년의 장엄한 통일대진군이 시작되는 이 시각, 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들은 평양에서 합동회의를 가지고 온 겨레와 함께 올해에 조국통일의 결정적국면을 열어 나가려는 일념에서 당신들에게 이 호소문을 보낸다.

지난해 우리 겨레는 서로 힘을 합쳐 통일애국의 길에서 뚜렷한 자욱을 남기였다.

분단의 장벽을 넘어 북과 남의 각당, 각파, 각계각층은 서로 손잡고 단합과 통일을 위한 하나의 목표에로 지향하였다.

조국통일운동은 북남해외의 광범한 동포들을 망라한 대중적이며 거족적인 애국운동으로 전환되였다.

이전에는 상상조차 할수 없었던 이 력사적전환은 6.15북남공동선언이 낳은 고귀한 결실이며 민족공동의 자랑찬 승리이다.

이제 우리 민족은 조국통일에 대한 더 큰 희망과 신심을 안고 새해에 들어 섰다.

올해는 새 세기의 두 번째 해이며 력사적인 6.15북남공동선언리행에서 전환적의의를 가지는 2돐이 되는 해이다.

이 해에 우리는 6.15북남공동선언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높은 령마루에 올라 서야 한다.

≪우리 민족끼리 조국을 통일하자≫ 이것이 올해에 우리 민족이 들고 나가야 할 자주통일구호이다.

우리에게는 조국통일의 휘황한 앞길을 밝혀 주는 북남공동선언이 있고 애국애족에 불타는 통일력량이 있으며 만난을 이겨 나갈 민족적슬기와 의지도 있다.

우리는 민족의 단합과 통일에 대한 새로운 신심과 락관을 가지고 해내외의 전체 조선동포들에게 열렬히 호소한다.

첫째, 자주통일의 기치인 6.15북남공동선언은 철저히 고수되고 리행되여야 한다.

북남공동선언은 오늘도, 래일도 조국통일의 확고한 리정표이다.

조국통일로 향한 민족대행진의 추동력도 여기에 있고 통일조국의 밝은 앞날도 여기에 있다.

온 민족이 6.15북남공동선언으로 뜻을 모으고 힘을 합치며 그 리행에 발걸음을 맞추자.

6.15북남공동선언을 부정하는 사람은 반통일분자이며 그런 사람은 민족과 함께 살수 없고 민족안에 있을 자리가 없다.

모두다 북남공동선언을 말살하려는 온갖 시도들을 단호히 배격하자.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남조선에서 누가 집권하고 어떤 ≪정권≫이 나오든 6.15북남공동선언은 변함없이 고수되고 철저히 리행되여야 한다.

온 민족이 북남공동선언을 적극 지지하고 따르며 실천하자.

둘째, 북남관계는 진전되고 조국통일운동은 활성화되여야 한다.

북남관계는 하나의 피줄을 이은 우리 민족끼리의 관계이며 함께 통일로 가야 할 동족사이의 관계이다.

≪우리 민족끼리≫라는 이 대명제에는 민족의 자주와 존엄에 대한 겨레의 의지가 집약되여 있다.

≪우리 민족끼리≫야말로 수난의 세기를 넘어 온 우리 민족이 통일조국에로 가닿아야 할 기본표대이다.

이 표대를 지켜 우리 민족끼리 손을 잡자.



대화는 북과 남이 손을 잡고 민족공조를 실현하는 력사의 장이다.

이 대화는 철두철미 6.15북남공동선언정신에 충실하고 그것을 리행하는 대화로 되어야 한다.

우리는 당국사이의 대화와 모든 형태의 민간급 대화 및 접촉을 적극 발전시켜 나갈것이다.

조국통일운동의 활성화는 시대의 요구이며 민족의 부름이다.

조국통일운동에서는 누구도 배제되지 말아야 하며 그 어떤 구속도 받지 말아야 한다.

온 민족은 계급과 계층, 당파와 정파, 지역과 소속을 가림없이 자주통일의 결정적국면을 열기 위한 애국운동에 한사람같이 떨쳐 나서자.

셋째, 나라의 평화를 위협하고 통일을 장애하는 요인들은 제거되여야 한다.

삼천리강토는 우리 민족의 삶의 터전이다.

우리 민족끼리 통일을 하자고 하면서 우리 삶의 터전을 동족끼리의 싸움마당으로 되게 할수 없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외세가 강요하는 전쟁의 희생물로 되지 말아야 한다.

모두다 안팎의 호전세력들의 새 전쟁도발책동을 짓부시고 나라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전 민족적인 반전투쟁에 분연히 떨쳐 나서자.

전쟁의 화근인 외국군대를 철수시키고 그들이 주도하는 합동군사연습을 철저히 배격하자.

≪우리 민족끼리≫는 민족내부의 그 어떤 계선과 차별도 반대한다.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치자고 하면서 외세와 ≪공조≫하며 함께 통일을 하자고 하면서 동족을 ≪주적≫으로 보고 대하는 것은 반민족적이며 반통일적이다.

동족을 적대시하고 통일운동을 범죄시하는 일체 법률적, 제도적장치들을 철폐하자.

해내외동포들!

우리 민족앞에 나선 올해 조국통일의 중대과제는 반드시 실현되여야 한다.

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 합동회의는 이 중대과제를 해결하려는 일념으로부터 올해를 ≪우리 민족끼리 단합과 통일을 촉진하는 해≫로 하고 북남공동선언이 발표된 6월 15일을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날≫로 정하며 5월부터 7.4공동성명이 발표된 7월을 거쳐 조국이 광복된 8월까지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나가는 운동기간≫으로 할 것을 제의한다.

우리의 이 제의는 민족에 대한 사랑, 민족주체적힘에 대한 믿음, 통일에 대한 의지를 반영한 애국애족의 발기이다.

우리는 온 겨레가 우리의 3대호소와 3대제의에 적극 호응해 나서리라는 기대를 표명한다.

모두다 민족자주의 기치, 력사적인 6.15북남공동선언의 기치 따라 올해를 기어이 우리 민족끼리 단합과 통일을 촉진하는 새로운 비약의 해로 빛내이자.

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 합동회의
주체91(2002)년 1월 22일
평양

이북에서 정부, 정당, 단체 합동회의가 진행된 것과 관련해

구국의 소리, 주체91(2002)년 1월 23일

이미 보도된 것처럼 이북은 22일 평양에서 정부, 정당, 단체 합동회의를 열고 올해를 우리 민족끼리 단합과 통일을 촉진하는 해로 하고 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된 6월 15일을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날≫로 정하여 5월부터 7.4공동성명이 발표된 7월을 거쳐 조국이 광복된 8월까지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나가는 운동기간≫으로 할 것을 제의했습니다.

이북의 정부, 정당, 단체 합동회의가 내놓은 이 제안들은 우리 민족의 힘으로 하루빨리 조국통일을 이룩할 것을 바라는 온 겨레의 지향을 반영한 지극히 정당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동시에 이것은 이북의 확고한 자주정신, 열렬한 민족애, 민족주체적 힘에 대한 믿음, 통일에 대한 철석같은 의지를 반영하고 있는 애국애족적 반증입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지난해 우리 겨레는 서로 힘을 합쳐 통일애국의 길에서 뚜렷한 자국을 남겼습니다.

분단의 장벽을 넘어 남과 북의 각당, 각파와 각계층은 서로 손잡고 단합과 통일을 위한 하나의 목표에로 지향했습니다.

조국통일운동은 남북해외 광범위한 동포들을 망라한 거족적인 애국운동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상상조차 할수 없었던 이 역사적 전환은 6.15공동선언이 낳은 고귀한 결실이며 민족공동의 자랑찬 승리라 하겠습니다.

올해는 새 세기의 두번째해이며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이행에서 전환적 의의를 가지는 **적인 해입니다. 이에 우리는 6.15공동선언의 기치를 더욱 높이 치켜들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높은 영마루에 우뚝 올라서야합니다.

그런데 지금 6.15공동선언실천투쟁의 앞길에는 엄중한 장애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올해를 전쟁의 해로 선포한 미국 부시행정부는 새해 정초부터 이북에 공격의 화살을 집중하고 이 땅에 수많은 무장장비들을 끌어들이면서 한반도정세를 전쟁접경에로 몰아가는 등 6.15공동선언이행에 엄중한 장애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뿐 아니라 이 땅의 반통일세력들은 미국의 이같은 북침전쟁책동에 적극 호응해 외세와의 공조를 운운하면서 이북을 주적으로 규정하고 전략적 상호주의니 투명성이니 검증이니 뭐니하면서 남북관계개선과 6.15공동선언이행에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상태에서 이북이 정부, 정당, 단체합동회의를 갖고 올해에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민족의 단합과 통일의 활로를 열어나갈 것을 제의한 것은 참으로 천백번 정당한 애국적 발기라 하겠습니다.

이북의 이 제의가 실현될 경우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진전이 이룩되리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도 없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국통일을 일일천추로 갈망하고 있는 이 땅의 각계층 민중은 이북의 이 제의를 쌍수를 들어 적극 지지, 찬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6.15공동선언실천을 위한 민족자주통일운동의 활성화는 시대의 요구이며 민족의 부름입니다.

이 땅의 모든 국민은 이북의 이번 제의에 적극 호응해 계급과 계층, 당파와 정파, 지역과 소속을 가림없이 자주통일의 결정적 국면을 열기 위한 애국운동에 한사람같이 떨쳐일어나야 할겁니다.

감사합니다.

북측 정부, 정당, 단체 합동회의 호소를 환영한다

지난 22일 북측은 정부, 정당, 단체 합동회의를 열어 해내외 동포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채택하고 3대 호소, 3대 제안을 보내왔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이번 합동회의의 3대 제안, 3대 호소가 민족의 통일을 하루라도 빨리 이루기 위한 애국적인 발기라고 인정하면서 전적인 공감과 지지를 표명한다.

6.15 남북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하는 것은 민족통일의 지름길이며, 유일한 길이다. 남과 북이 함께 합의한 공동선언에 근거해야 공동의 원칙을 가지고 공동의 목표를 향해 갈 수 있으며, 남과 북 온 겨레가 단결할 수 있다.

우리는 이번 합동회의의 3대 호소인 ≪6.15 공동선언 고수 이행, 남북관계 진전과 조국통일운동 활성화, 통일 장애요소 제거≫가 6.15 선언의 정신과 민족통일의 절박한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며, 그 안에는 북녘 동포들의 통일의지가 굳게 담겨 있음을 확신한다.

또한 올해를 ≪우리 민족끼리 단합과 통일을 촉진하는 해≫로 하고 남북공동선언 발표 2돌인 올해 6월 15일을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날≫로 정하며 5월부터 7.4 공동성명이 발표된 7월을 거쳐 조국이 광복된 8월까지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나가는 운동기간≫으로 하자는 제안은 온 겨레의 통일행진을 더욱 힘차게 추동할 수 있는 구체적 방도라는 점에서 기쁘게 환영한다.

6.15 공동선언이 열어 놓은 통일의 길을 따라 그 동안 남북관계에도 많은 진전이 있었으며, 남과 북 온 겨레의 가슴속에 통일의 신념과 지향은 날로 높아가고 있다.

올해는 6.15 공동선언 채택 2돌을 맞는 해이면서 동시에 남과 북에 커다란 국제적 행사들이 연이어 개최되는 해이다. 이러한 때 온 겨레가 힘을 합쳐 전 세계 인류 앞에 우리 민족의 통일의지를 과시하고 온 강토에 통일과 평화의 기운을 차 넘치게 해 통일의 기세를 되돌릴 수 없는 확고한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올해 남과 북 해외 모든 구성원들이 6.15 공동선언의 기치아래 굳게 단결하여 활발한 공동행동을 벌일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또한 북녘 동포들의 이번 제안에 대해 남녘의 정부, 정당, 사회단체들의 적극적인 공감과 지지아래 활발한 공동의 실천을 전개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2002년 1월 24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이북의 3대 호소와 3대 제의를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올해를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된지 2돌을 맞이하게 된다. 통일진군의 역사는 올해에도 계속되어야 하며, 온 겨레와 민족은 6.15공동선언을 관철할 의지에 다시금 충천해 있다.

이러한 역사의 요구와 민족의 의지는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 새해 연초부터 각계 각층 민중들은 6.15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방향 모색에 여념이 없다. 그러한 시기 이북의 정부, 정당, 단체의 연석회의를 통한 7천만 겨레에게 보내는 호소는 6.15공동선언 이행의 확고한 의지로 되며, 방향성 제시로되고 있다. 충청총련 이러한 이북의 적극적인 제안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며, 함께 할 것을 힘차게 결의한다.

이북에서는 먼저 자주통일의 기치인 6.15공동선언을 철저히 고수하고 이행할 것, 남북관계를 진전시키고, 통일운동을 활성화 할 것, 나라의 평화를 위협하고 통일을 장애하는 요인들을 제거할 것에 대하여 호소하고 있다.

세가지 호소는 모두 6.15공동선언 정신 그대로이며, 6.15공동선언 이행의 지름길임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전체 통일 애국세력이 작년 한해에도 공동선언 이행을 위하여 한결같이 지켜 나아갔던 길이며, 올해의 전망에 비추어 보아서도 전적으로 합리적인 호소이다.

남북관계의 개선은 조국의 통일을 앞당기는 길이라는 것은, 지난 2년간의 교훈이며, 내외의 반통일 세력 척결과 반통일적 법적 제도적 장치의 철폐 없이 통일을 이룩할 수 없다는 것은 55년간의 교훈이다. 특히 6.15공동선언의 철저한 고수와 이행은 조국이 통일되기 전까지 한결같이 지켜 나아갈 전체 민족의 의사이며, 강령적 기치이다.

다음으로 이북은 2002년을 공동선언 이행의 새로운 국면을 창출하기 위한 제의를 하고 있다. 그것은 첫째, 2002년을 ≪우리 민족끼리 단합과 통일을 촉진하는 해≫로 제시할 것, 둘째 역사적인 공동선언 발표 날인 6월 15일을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날≫로 재정할 것, 마지막으로 5월부터 7월4일 7.4남북공동성명 발표일을 거쳐 조국이 광복된 8월까지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나가는 운동기간≫으로 설정할 것에 대해 제안하고 있다.

우리는 이북의 3가지 제의를 통해 조국통일을 하루라도 앞당기기 위한 이북 정부 정당 단체의 의지를 확인 할 수 있다. 두말 할 필요도 없이 3가지 제의의 실행은 2002년을 또다시 통일운동의 촉진의 해로 빛내이게 할 것이라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6.15공동선언의 첫째 조항이며 기본 정신으로 되는 ≪우리 민족끼리≪의 민족 주체의 힘을 믿고, 전체 민족의 힘으로 통일하겠다는 의지에 전적으로 부합하며, 통일로 내 달리기 위한 방향 제시로 된다.

충청총련은 이북의 정부 정당 단체의 호소에 다시 한번 전폭적 지지와 절대적 환영의사를 표명한다. 또한 이북의 이와 같은 호소와 제의가 당면의 통일정세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는 내외의 반통일 세력을 척결하고, 하루라도 빨리 조국의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길임을 확신하며, 적극적 이행과 관철의 뜻을 천명한다.

6.15공동선언은 변함없는 통일의 이정표이며, 단결의 표대이다. 충청총련은 6.15공동선언 이행의 길에 통일이 있음을 확신하고, 6.15공동선언을 기준으로 단결하고, 통일 운동에 적극 발맞추어 나아갈 것을 결의한다.

충청총련은 내외의 반통일 세력의 책동은 단호히 반대 배격하고, 민족의 단합과 단결에는 적극적 이행으로 2002년 한해를 살아갈 것을 결의하고 있다. 다시금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6.15공동선언을 변함 없이 고수 이행 할 것을 심장으로 결의하고, 반드시 지켜 나아갈 것이다.

우리 민족끼리 단합과 통일을 촉진하는 해
2002년 2월 23일

애국의 열정 승리의 확신
9기 충청지역대학총학생회연합 (건)

김대중 대통령 연두기자회견에 대한 논평

김대중 대통령은 1월 14일 연두기자회견을 통해 경의선 복원 등의 5대 핵심과제와 6·15남북공동선언에 따른 한반도 평화, **김정일**국방위원장 서울방문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통일연대는 김대중 대통령이 연두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올해 추진방향을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우선 김대중 대통령이 9.11테러 이후의 급변하는 사태에도 불구하고 국내정세가 안정된 것은 6·15남북공동선언에 따른 성과라고 밝힌 지점에 대해서 통일연대는 공감하는 바이다. 6·15남북공동선언 채택으로 민족 대결과 분단의 역사가 화해와 협력의 역사로 전환됨으로써, 남북 간의 군사적 대결을 완화시키는 주요한 원인이었으며, 외세공조가 아닌 민족공조를 통해서만 한반도 평화가 실현될수 있다는 것은 통일연대의 일관된 입장이다.

그러나 우리는 9.11테러이후 한미연합사령부가 포고한 한반도 비상경계령에 의해 남북관계가 경색된 점에 대하여 김대중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김대중 대통령이 6·15남북공동선언의 발표가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는데 적극적으로 기여한다는 것을 인식한다면 외세의 대북 적대시 정책에 동요하여 6·15남북공동선언 채택의 의의를 삭감시키는 비상경계조치와 같은 군사조치나 긴장조치보다는, 민족공조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취하여야 마땅하다.



두번째로 김대중 대통령이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서울방문에 대해서도 문서상으로는 되어 있지만 어느 정도 확실한지는 불투명하다≪며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봐야 할 것이다≪라고 한 것에 대하여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김정일국방위원장 서울방문은 6·15 남북공동선언 이행의 핵심적인 문제이다. 6·15남북공동선언이 분단 반세기 만에 남북정상이 한자리에 만나 이루어낸 소중한 선언이고, 이 선언이 이루어낸 역사적 성과를 돌이켜 볼 때,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서울방문을 통한 남북정상간의 두 번째 만남을 통해 이루어질 선언은 통일단계로 진입하기 위한 역사적 합의가 될것이라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즉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서울방문은 문서상으로 합의된 단순 합의사항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은 2001년 연두기자회견에서의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서울방문에 대한 적극적 의사와는 달리 1년이 지난 2002년 연두기자회견에서 오히려 문서상의 표기된 합의정도로 일축한 것은 김대중 정부가 과연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서울방문 실현에 대한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게 한다.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국방위원장 서울방문 성사에 대한 소극적 입장을 표명하기보다는 외세공조가 아닌 민족공조로, **김정일**국방위원장 서울방문 조건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취하여야 할 것이다.

세번째로 김대중 대통령이 강조한 5대 핵심과제에 대해서 우리는 깊은 문제의식을 지니고 있다. 물론 5대 과제가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민족의 단결과 화합, 통일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은 채 경의선 복원 금강산 관광사업의 활성화만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6·15남북공동선언 2주년째를 맞는 지금의 처지에서 애써 핵심적인 쟁점을 비켜나가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김대중 대통령이 말한 바 차기정권이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이끌고 나갈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우리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힘을 합하여 통일하자는 6·15남북공동선언의 기본 기조 속에서 현단계의 과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6·15남북공동선언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은 한마디로 어떤 외세의 방해 속에서도 우리 민족끼리 공조하고 민족대단결하자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그것을 실현하는 현시기 가장 중요한 문제는 동족인 북을 적으로 규정하는 남쪽의 국가보안법과 각종 분단잔재청산의 문제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상식이다. 이러한 핵심적인 과제를 외면하고 5대 핵심과제를 추진하겠다는 것과 관련하여 과연 이 5대 과제마저 순조롭게 추진되겠는지에 대하여 우리는 깊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통일연대는 11일 김대중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올해는 한미일 공조체제를 강화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서도 깊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의 일관된 입장이 관철되는 한미일 공조체제의 강화는 곧바로 동족인 북한 즉 민족과의 적대정책을 의미한다. 6·15남북공동선언의 성실한 이행인가 아니면 6·15남북공동선언 이전의 냉전과 대립정책으로의 회귀인가라는 양립할 수 없는 기로에서 이제 김대중 대통령은 분명한 태도를 보여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현 남북간의 근본쟁점에 대해서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실질적으로는 민족적대정책을 가속화하면서 한반도의 평화를 운운하고 남북관계를 안정화하겠다는 모순된 입장을 철회하지 않는 한 김대중 대통령이 민족의 통일과 화해에 기여했던 업적마저 심각히 손상될 수 있음을 우리는 준엄하게 경고하는 바이다.

2002년 1월 16일
6·15남북공동선언실현과 한반도평화를 위한 통일연대

북측 민화협,
≪실무회담 29일 평양 개최≫ 팩스 보내와

북측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이 설맞이 남북공동행사 실무회담을 ≪오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평양에서 갖자≫는 내용의 팩스를 보내온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2002 설맞이 민족공동행사 준비위원회(준비위원회)≫에 의하면 23일 밤 10시경 북측 민화협은 팩스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제의했으며 숙소는 고려호텔로 하자는 내용도 함께 보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북측 민화협은 2차 실무회담에 참여할 조성우, 이승환, 변진흥, 한상열, 최열씨의 초청장도 함께 보내왔다고 준비위원회측은 전했다.

실무회담에서는 북측이 제안한 ≪설맞이 민족공동행사≫에 대한 개최시기, 내용, 규모 등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논의될 예정이다.

이로써 남측 실무회담 대표 5명은 오는 28일 북경으로 출발해 29일 고려항공편으로 방북할 예정이다.

한편 북이 22일 제의한 ≪3대호소≫와 ≪3대제의≫와 관련해 남측 실무대표들이 준비한 내용은 아직 없다고 준비위원회측은 밝혔다.

송정미 기자 (tongil@tongilnews.com)
통일뉴스 2002-01-24



≪금강산 관광은 평화와 통일의 뱃길≫



≪금강산 관광은 특정기업의 수익사업이 아니라 평화와 통일의 뱃길입니다.≫

김성훈 경실련 통일협회 이사장은 18일 오전 10시 내외빌딩 주차장 옆에서 열린 ≪금강산 평화관광 살리기 100만명 서명운동 금강산 평화방문단 전국 버스투어 출정식 및 기자회견≫에서 금강산 관광의 중요성을 이렇게 역설했다.

금강산을 사랑하는 범국민연대(준) 주최로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성훈 이사장은 ≪금강산 관광이 중단될 경우 남북간의 신뢰와 통일에 대한 희망도 사라진다≫며 남북 양쪽 정부가 금강산 관광에 대한 약속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이장희 평화통일 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금강산 관광이 남북한 당국의 방관과 보수여론으로 좌초위기에 있다≫며 ≪정부와 현대아산, 북한당국은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장희 공동대표는 ≪금강산 관광에 대한 국민여론을 객관적이고 긍정적으로 바로잡기 위해 시민단체들이 적극 나서야 한다≫며 이번 ≪100만명 서명운동 전국 버스투어≫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후 김종수 천주교 중앙협의회 사무총장이 낭독한 호소문에서 금강산을 사랑하는 범국민연대(준)는 ≪금강산 관광사업은 국민적 사업으로 되어야 하며 민족화해의 측면에서 결코 중단되어서는 안될 것≫이라 강조했다.

또한 ≪금강산 평화관광은 북한 퍼주기 사업이 아니라 평화를 퍼오는 사업≫이며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금강산 관광을 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회창 총재의 상호주의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김성훈 이사장은 ≪상호주의는 인도주의적 분야에는 적용이 안된다≫며 ≪북한문제에 상호주의를 적용하는 것은 통일하지 말라는 이야기와 같다≫는 의견을 강하게 피력했다.

출정식과 기자회견이 끝난 10시 50분경 대표단은 ≪100만명 서명운동 버스투어≫의 첫 번째 장소인 광주를 향해 출발했다.

이번 1차 ≪100만명 서명운동 버스투어≫는 18일과 19일 1박 2일 동안 광주와 부산을 돌며 기자회견과 가두서명, 차량캠페인, 금강산 사진전시회 등 다양한 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금강산을 사랑하는 범국민연대(준)는 앞으로 계속해서 인천 수원, 대전, 대구, 춘천 등지를 돌며 이와같은 ≪금강산 평화관광 살리기 100만명 서명운동 전국버스투어≫를 진행할 계획이라 밝혔다.

다음은 금강산을 사랑하는 범국민연대(준) 1차 버스투어단 명단이다.

김영일 공동대표, 김규철, 윤영전, 박인환 공동집행위원장, 김승국 기획위원장, 정상률 홍보위원장, 조항원 사이버대책위원장, 최병철, 조동섭, 박용현 위원장(8개 단체 10명)



장동렬 기자 (dljang@tongilnews.com)
통일뉴스 2002-01-18

정부, 금강산 관광사업 지원방안 발표

(서울=연합뉴스) 주용성. 장용훈기자 = 정부는 23일 오후 ▲이산가족, 학생, 교사 등에 대한 금강산 관광 경비 보조 ▲한국관광공사에 남북협력기금 대출 상환조건 완화 ▲금강산 현지 외국상품판매소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금강산 관광사업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통일부는 이날 ≪정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현대아산측의 협의를 존중하면서 관광공사가 수익성 보장을 전제로 보다 능동적인 입장에서 관광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산가족, 학생, 교사 등에 대한 관광 경비를 남북협력기금으로 보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금강산관광 지원 결정과 관련해 북측이 전날 정부 정당 단체 합동회의에서 ≪(남북) 당국 사이의 대화와 모든 형태의 민간급 대화 및 접촉을 적극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향후 당국 차원의 남북회담 재개 여부가 주목된다.

조명균(趙明均) 통일부 교류협력국장은 ≪정부는 관광특구 지정, 육로관광 등 금강산 관광 활성화를 위한 북한의 상응한 조치 확보를 위해 노력을 경주하면서 이를 위해 우리가 (먼저) 제의해서라도 남북당국간회담 개최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금강산 관광 사업에 대한 정부지원과 관련, 여당인 민주당은 금강산 관광 사업이 ≪경제사업만이 아니라 평화사업 내지 민족 사업≫임을 내세워 적극 지지하고 있는 반면 야당인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민간사업에 국민의 세금을 지원하는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면서 반대하고 있어 여야간 첨예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관광경비 보조의 경우 정부는 대상자와 지급 방법 등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조만간 국회 사전보고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어 관광경비를 보조할 계획이나 보조금 규모는 1인당 10만원에서 20만원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명균 국장은 ≪학생들의 금강산 수학여행 경비 보조와 관련, 경주, 제주 등 국내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관광공사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대출 상환 조건을 이르면 내주께 완화키로 했다면서 향후 추가투자 여부와 규모는 금강산 현지 시설물 인수 방식에 따라 관광공사와 현대아산간의 추후 협의를 통해 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관광공사가 지원받은 남북협력기금 900억원 가운데 아직 지급되지 않은 450억원의 일부가 재정난을 겪고 있는 현대아산에 매달 20억원에서 30억원 규모로 내달초부터 지원될 예정이다.

관광공사는 현대아산에 대한 자금지원시 무이자, 원금상환 유예 등 남북협력기금 대출조건 완화를 정부측에 요청한 바 있다.

이밖에 정부는 현대아산이 금강산 현지에 외국상품판매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현대아산은 이에따라 정부의 남북협력사업 변경 승인을 얻은 다음 조만간 금강산의 온정각에 면세점을 설치할 계획이다.

정부 당국자는 ≪관광공사에 대한 대출조건 완화와 외국상품판매소 설치 허용을 우선 실시하나 관광경비 보조는 준비기간을 거쳐 적절한 시기에 별도로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정부가 금강산 관광사업의 주체가 되는 방안은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관광공사와 현대아사의 기존 업무제휴방식을 공동사업방식으로 발전시키면서 민간기업의 컨소시엄 형태로 금강산 관광사업이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두 야당, 정부의 금강산지원 반대입장 밝혀

금강산 관광사업이 정치권의 새로운 논란거리가 될 전망이다.

21일 정부의 금강산 관광사업 지원 방침이 알려지자 두 야당인 자민련과 한나라당은 각각 논평을 통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정부는 지난 18일 금강산관광의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금강산을 방문했던 김윤규 현대아산사장을 통해 금강산 관광사업 지원 방침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방침에 따라 홍순영 통일부 장관도 21일, 22일에 각각 이회창 총재와 김종필 총재를 만나 이같은 정부 방침에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두 야당은 각각 21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금강산 관광사업 지원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한나라당은 ≪정부가 중단위기에 놓인 금강산 관광사업을 회생시키기 위해 남북협력기금 250억원을 현대아산측에 지원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국민을 우롱하는 ≪조삼모사식 대북정책≫의 전형≫이라며 ≪대통령은 대북사업에 관한 조급증과 집착증에서 제발 벗어나야 한다고 논평했다.

자민련도 대변인 논평을 통해 ≪≪금강산사업의 시장원리 적용에는 한계가 있다≫는 정부여당의 논리는 이율배반≫이라며 ≪현대와 정권 그리고 국가 모두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헛수고를 계속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는 오늘 홍순영 장관의 협조 요청에 대해 정부지원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혀 한나라당의 입장에 변화가 없을 것임을 확인시켰다.

한편, 금강산을 사랑하는 범국민연대(준) 김규철 공동집행위원장은 두 야당의 이와 같은 입장에 대해 ≪이해하기 어려운 대북정책≫이라며 ≪무조건적으로 시장논리를 얘기하는데 지금은 평화개념으로 시장논리를 뛰어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에 적극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규철 공동집행위원장은 ≪여러 정황을 볼 때 정부가 결단을 내리지 않을까≫라며 긍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송정미(tongil@tongilnews.com)
통일뉴스 2002-01-21

≪한나라당에 민족문제를 맡길 수 있을까≫

≪한나라당에 민족문제를 맡길 수 있을까≫

≪금강산을 사랑하는 범국민연대(준)≫≪금강산사랑연대≫는 23일 오전 10시 세실 레스토랑에서 금강산 관광 사업의 중단을 촉구한 한나라당의 논평과 이회창 총재의 발언에 대해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의문을 던졌다.

금강산사랑연대는 한나라당을 ≪일부 야당≫이라고 칭한 성명서를 통해 ≪금강산 관광사업에 초당적인 협력이 아쉬운 이때, 이를 기피하는 한나라당에 민족문제를 맡길 수 있을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민족문제만큼은 당리당략을 떠나 초당적으로 임할 것을 촉구했다.

또 금강산 관광사업은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무조건 퍼주기식 사업≫이 아니라, 관광을 통해 ≪민족끼리 평화를 퍼오는 사업≫이라며 ≪굴욕적인 대북정책으로 비하하는 것은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정략적인 주장≫이라고 성명서는 지적했다.

성명서는 또 한나라당이 시장논리에 따라 금강산 관광을 중단하라는 것은 ≪시장의 이익≫을 넘어선 ≪민족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동이라고 지적하고 한나라당 지도부의 자기반성과 함께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다음달 7일 정식 발족할 예정인 금강산사랑연대는 발족 전까지 ▲2~3차례 버스투어 진행(광역시 대상) ▲지역 단체 참여 확대 ▲금강산 사진 전시회 ▲≪금강산 관광기억 되살리기≫ 모임 구성 ▲서명운동과 지역간담회 등의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김규철 공동집행위원장은 밝혔다.

한편 홍순영 통일부 장관의 자민련 방문시 자민련이 질문한 금강산 관광사업 주체 변경에 대한 금강산사랑연대의 입장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장희. 김규철 공동집행위원장은 ≪민간이 주가 되고 정부는 돕는 정도로 견제해야 한다≫며 금강산 관광은 단기적으로는 평화관광개념, 중장기적으로 시장논리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나라당은 지난 18일 논평을 통해 ≪무조건 퍼주기식≫ ≪굴욕적≫ 대북정책은 근본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해 금강산 관광사업의 중단을 촉구한 바 있다. 또 이회창 총재도 21일 홍순영 통일부 장관을 만나 이같은 한나라당의 입장을 거듭 확인한 바 있다.

한편 언론보도에 의하면 22일 북한은 ≪정부 정당 단체 합동회의≫를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열고 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된 6월 15일을 ≪통일의 문을 여는 날≫로 정할 것을 제의하고 당국간 대화 및 모든 민간차원의 대화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북의 이러한 제의가 정부의 금강산 관광사업 지원방침을 기점으로 이뤄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 가운데 한나라당의 이후 입장변화에 대한 추이가 주목된다. 과연 한나라당에게 민족문제를 맡길 수 있을지.



송정미 기자 (tongil@tongilnews.com)
통일뉴스 2002-01-23

이회창 총재 규탄 논평
(금강산 관광 사업 관련)



보도에 따르면 11.21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는 금강산 관광 사업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데 대해 반대해 나섰다.

이회창 총재는 ≪북한이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돈을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장광근 수석부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혈세인 남북협력기금을 개인 기업의 손실 충당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라면서 ≪투명하고 국적있는 대북정책을 재수립할 때≫라고 말한 데 이어 ≪정부가 남북협력기금 250억원의 금강산관광 지원방침을 공론화하기전에 미리 북측에 전달하고 북한은 화답이나 하듯 금강산-원산-평양 육로의 한시개방을 제의했다≫면서 기업논리와 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한 금강산 관광사업 운영을 촉구했다.

금강산 관광 사업은 단순히 한 기업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 민족의 통일 염원을 반영하고 남북이 공히 이익이 되는 민족 번영의 상징적 사업이다. 그렇기에 노동자 통일대회, 농민 대회 등이 잇달아 금강산에서 개최되었는가 하면 최근에는 금강산 관광 사업을 살리기 위한 시민운동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회창 총재와 한나라당이 [기업 논리, 시장 경제 원칙] 운운하며 금강산 관광 사업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은 정략적 이익에 눈이 어두운 반민족적 행위로밖에는 볼 수 없다.

더욱 우려할만한 것은 이회창 총재와 한나라당이 연초부터 ≪전략적 상호주의≫, ≪국민적 합의와 투명성≫, ≪검증≫ 운운하며 남북관계 발전에 정면으로 막아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미일 외세의 대북 강경정책과 한반도에 대한 개입이 노골화되고 있는 조건에서 민족끼리 공조하는 것은 민족의 운명을 좌우하는 절대절명의 과제이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이회창과 한나라당이 남북관계 발전과 통일문제의 자주적인 해결에 제동을 거는 반통일적 행각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1월 22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못 보면 일생 후회할 아리랑 공연≫



≪일찍이 있어본 적이 없는 세계적인 대걸작≫

≪못 보면 일생 후회할 아리랑 공연≫

지난 11일 통일부 정보분석국에서 작성한 ≪북한의 아리랑 공연 관련 동향≫이라는 보도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각종 보도매체를 통해 공연관람을 적극 홍보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자료에 의하면 북한은 지난 해 11월 7일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이 첫 창작중임을 보도한 이후 남한과 국제사회를 직접 거론하며 공연참가를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보도자료는 북한이 ≪아리랑≫공연을 주상품으로 하여 평양시내, 묘향산 등과 연계하는 패키지(package)관광상품을 일본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에 신청 접수중이라고 밝혔다.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은 4월말에서 6월말까지 1주일에 6회를 공연하며 입장료는 특등석 300달러, 1등석 150달러, 2등석 100달러, 3등석은 50달러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자료에 의하면 당초 북한은 **김일성** 주석의 생일을 고려하여 기본주제를 ≪태양의 노래≫로 하였으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예술인과의 담화 후 ≪아리랑≫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한다.

북한은 범태평양조선민족경제개발촉진협회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인 ≪조선인포뱅크≫(www.dprkorea.com)를 통해 ≪아리랑≫ 공연 관람의 외국 대행사를 모집중에 있어 해외 관광객들의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한편, 북한은 ≪아리랑≫ 축전기간 동안 서해상의 남북 직항공로를 여는 방안 또한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적극적인 공연홍보와 맞물려 남한 관광객들의 대규모 ≪아리랑≫ 공연관람이 이루어질지 주목된다.



장동렬 기자 (dljang@tongilnews.com)
통일뉴스 2002-01-14

≪北 금강산-원산-평양 육로개방≫



(서울=연합뉴스) 고형규기자 = 최근 금강산을 현대아산 김윤규 사장과 함께 방문하고 돌아온 민주당 김성호(金成鎬) 의원은 21일 ≪4월29일부터 6월29일까지 평양에서 열리는 ≪아리랑축전≫ 기간에 북한이 남한측 관광객에게 금강산-원산-평양의 육로를 개방하겠다는 제의를 남측에 했다는 사실을 김 사장에게서 확인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금강산 관광지역 일대의 관광특구 지정문제에 대해서도 ≪김 사장으로부터 북측이 관광특구 지정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확인했으나 특구 지정은 금강산 관광사업 재개와 컨소시엄 구성 등 사업추진주체 구성, 사업대금 지불방식 등과 맞물려 유동적≫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관광특구 지정문제는 북측이 그동안에도 몇차례 추진의사를 밝혀왔으나 이뤄지지 않았던 것≫이라며 ≪이번에도 구체적인 상황을 지켜봐야 그 실현 가능성을 자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김 의원은 ≪북측이 남북 당국자간 대화에 다시 나설 뜻을 김 사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말해 남북간 고위당국자 회담의 재개 가능성을 시사했다.

아리랑 축전 참관 가능할까

(서울=연합뉴스) 장용훈기자= 북한이 오는 4월 29일~6월29일 평양에서 열리는 아리랑 축전에 남측 관광객의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방문 경로와 참관 가능성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측은 지난 주말 현대아산 김윤규(金潤圭)사장과의 협상에 대규모 집단체조가 펼쳐질 아리랑축전 관계자를 금강산 현지에 파견해 축전기간 금강산 관광객이 평양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금강산에서 북측과 협상을 마치고 돌아온 김윤규(金潤圭) 현대아산 사장은 ≪북측은 아리랑축전에 금강산 관광객을 데려오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오래 전부터 해왔다≫며 ≪이동경로, 비용 등을 포함해 정식 제안해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같은 방안이 실현될 경우, 금강산 현지에서 육로로 이동한다면 금강산-원산-평양을 잇는 고속도로를 이용해 8~10시간 정도 이동할 가능성이 높고 원산 갈마비행장을 이용해 공로를 이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측은 이외에도 아리랑 축전에 남측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측 대남종사자들은 최근 평양을 방문한 남측의 경협사업자들에게 축전에 남측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방안을 묻는 등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후문이다.

일부에서는 남측 방문객들이 인천국제공항과 평양 순안공항을 잇는 직항로를 전세기로 이동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북측은 작년 11월 그동안 감귤을 지원해준 제주도민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올해 5월초 도민 150-300명을 초청해 평양과 묘향산, 백두산 등을 시찰토록하고 이를 위해 제주-평양 직항로를 열어 남한의 국적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로 합의했다.

이같은 북측의 적극적인 자세에도 불구하고 아리랑 축전에 남측 관광객들이 참관을 하기 위해서는 걸림돌이 여전히 남아있다.

정부 당국자는 ≪아리랑 축전의 성격과 내용에 대한 파악이 덜 되어 있는 상황에서 남한 참관 희망자에 대한 방북 허용여부는 좀더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행사비용, 이동경로, 숙소 등에 대해 남북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북측의 아리랑 축전이 89년 세계청년학생축전처럼 남측의 월드컵에 대응하는 체제대결적 자세에서 나온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신중한 반응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북측에서 남측 관광객 유치의사를 전달해올 경우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교류의 확대를 통한 남북간 화해. 협력의 확대라는 점에서 대북포용정책의 기조와 맥을 같이 하고 있고 북측도 민족적 색채를 중심으로 아리랑 축전을 꾸미는 등 나름대로 성의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아리랑 축전을 통해 작년 12월 6차 장관급회담 결렬 이후 냉각국면에 들어간 남북관계의 개선도 기대할 수 있다. 작년 8월 평양 통일대축전과 재작년 10월 당창건 행사에 남측 인사들이 참석한 이후 장관급회담이 재개됐기 때문이다.

아리랑 축전을 파시즘 정치예술이라고 한 조선일보의 반통일적 논평에 대하여

≪조선일보는 1월 11일자 만물상≫ 난에 아리랑 축전 집단체조에 대한 글에서 ≪그것은 북이 집단체조를 관광상품화 하는 첫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할만하며 한마디로 ≪파시즘적 정치예술≫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통일연대는 조선일보가 북의 아리랑 축전과 10만명 집단체조에 대해 심대하게 왜곡된 견해를 전파하고 있다고 보는바 다음과 같은 견해를 제출한다.

조선일보는 지금 북이 미국의 봉쇄정책과 자연재해로 인한 경제난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대단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타개해나갔는지에 대해 왜곡 없이 바라보아야 한다.

다 아는 바와 같이 미국은 정확하지도 않은 근거로 이북핵무기 개발 운운하며 경제봉쇄 정책을 통한 이북 붕괴를 꾀하다가, 현재는 아프간 전쟁이후 확전을 노리고 있는 미국이 이북의 대량살상무기개발을 운운하며 지속적으로 적대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미 부시정권은 적대정책 포기의사를 비롯한 테러반대를 천명한 2000년 10월 12일 북미공동선언을 헌신짝 버리듯이 내팽개치면서 핵. 미사일 재래식 무기감축 등에 대하여 처음부터 다시 논의하자고 하고 있다.

반면 이북은 미국과 적대정책 포기, 테러반대 북미공동선언발표, 반테러 국제협약 가입 등 전 세계 평화와 국제친선을 위한 실질적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북은 올 봄에 진행할 아리랑 축전을 세계평화를 위한 메시지라고 밝히고 있다. 즉 전쟁을 선호하지 않으며 간절히 평화와 화해를 추구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또 하나의 계기로 바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한민족인 이남이 6·15공동선언 이후 발전되어온 민족대화합과 단결의 분위기를 발전시켜 이북이 준비하고 있는 아리랑 축전에 거족적으로 참가하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조선일보는 이북 민중들이 스스로 결심하여 매진하고 있는 ≪아리랑 축전≫과 ≪10만명이 참가하는 집단체조≫를 ≪관광상품개발≫이니 ≪파시즘적 정치예술≫이니 하는 것으로 매도하는 행위를 서슴치 않고 있다.

조선일보가 평하듯이 이북의 집단체조는 전세계적으로 최고를 자랑하고 있다. 따라서 훌륭한 예술작품을 통해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예술적 가치를 응당하게 평가받고 관광으로 활용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조선일보는 이북의 예술적 행위를 관광상품개발이니 파시즘적 정치예술이라고 폄하하여, 오히려 미국과 동조하여 한민족인 이북에 대한 적대적 의사를 서슴없이 밝히고 있는것이다.

조선일보는 파시즘체제하에서 세인을 놀라게 하는 10만명의 집단적 예술품을 창조해내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10만명이 일치단결하여 주체적으로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하는 그 정성에 대하여 놀라움과 감탄을 보여주지는 못할지언정 파시즘 정치예술이라고 떠들어내는 자체가 조선일보의 시각이 얼마나 왜곡되고 편협한지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설령 이북이 표현하는 방식이 우리 남쪽 정서로서는 자연스럽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고 이북을 같은 민족의 관점에서 깊이 이해하려는 노력 속에서만 그들의 정서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 모든 것을 돈벌이의 관점, 불순한 의도를 가진 선전활동 등으로만 본다면 한반도에 화해와 단결은 결코 않을 것이다. 조선일보는 일관되게 반통일 반민족적인 자신의 견해를 숨김없이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 할 줄 알아야 한다.

이제 6·15공동선언으로 조선일보의 일련의 반통일행위에 대한 죄상은 남한 국민들 앞에 낱낱이 들어 나고 있다. 조선일보는 민족을 적으로 몰아가는 더 이상의 적대행위를 즉각 중지할 것을 바란다.

2002. 1월 17일

6·15공동선언실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통일연대

미국이 있지도 않은 ≪이북의 도전위협≫ 구실로 특수미사일부대 창설

구국의 소리, 주체91(2002)년 1월 14일



최근 일본의 ≪교토통신≫은 미국이 이북의 탄도미사일위협에 대처해 주한미군과 한국군을 보호하기 위한 특수미사일부대를 창설한 사실을 한국 국방부의 한 소식통이 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통신은 미국이 특수미사일부대 일부직책을 한국공군에 맡겼다는 것을 소식통이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특수미사일부대창설은 미국 부시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범죄적인 미사일방어체제구축책동의 일환으로써 그들이 이 부대신설의 첫째 목적이 바로 북침에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호전집단은 있지도 않는 이북의 미사일공격으로부터 미국과 동맹국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구실로 이른바 미사일방어체제구축에 광분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북을 걸고 추진하는 미사일방어체제구축의 저의는 저들의 세계제패전략실현의 장애가 되는 이북을 핵선제타격하고 우리 민족을 공멸시키며 핵미사일독점권을 차지해 대국들을 견제제압하고 패권을 장악할뿐 아니라 자국 군수독점체들의 배를 불려주자는데 있는 것입니다.

미국은 이러한 범죄적 목적에 미사일방어체제구축책동을 합리화하기 위해 이북의 있지도 않은 핵문제와 미사일문제뿐 아니라 화생방무기문제까지 들고나와 이북에 불량배국가라는 딱지를 붙이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요즘에는 이북이 사정거리가 1만킬로미터 이상인 대포동2호미사일발사준비를 다해놓고 있으며 많은 화생방무기를 비축하고 있다는 날조된 소문을 대대적으로 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히 주목하지 않을수 없는 것은 미국의 이러한 범죄적인 미사일방어체제를 우선 이북 근처에 배비하려 하는 것입니다.

미국가안보담당 대통령 주보좌관 콘돌리자가 이북 근처에 미사일방어체제를 배비해야한다고 공공연히 떠들어댔는가하면 미호전광들이 미사일방어체제 그 실험장을 우리 나라 동해로 선정하면서 최신형 요격미사일 30기를 장착한 이지스함 2척을 동해에 배치하려는 사실이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북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라면서 특수미사일부대를 창설한 사실이 밝혀짐으로써 미국이 발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미사일방어체제구축의 1차적 목적이 바로 북침에 있다는 것을 더욱 뚜렷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스쳐지나지 않을수 없는 것은 미국의 이 특수미사일부대 일부직책을 한국공군이 맡아 수행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한국 호전당국자들이 겉으로는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구축에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에 동참하고 있다는 증거로 되는 것입니다. 물론 상전의 요구와 이익을 위해서라면 나라와 민족을 팔고 조국장병들을 미국의 더러운 침략전쟁의 대포밥으로 섬겨바치는 것도 마다하지 사대매국집단으로써는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구축에 동참하는 것이 별로 이상스러울게 없겠지만 6.15공동선언이행의 길에 드놀지않는 북침을 겨냥한 미국의 대결책동에 동참하는 것은 절대로 허용될수 없는 것입니다.

미국은 엄중한 악결과를 가져올 미사일방어체제구축책동을 중지해야하며 북침을 위한 **과 모든 전쟁장비들을 이 땅에서 하루빨리 철수시켜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주한미군의 부대재편, 침략움직임

구국의 소리, 주체91(2002)년 1월 15일



이미 보도된 것처럼 주한미군이 지난 11일 한 토론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미군은 수도권 2개 지역에 지휘통제시설과 육군훈련시설을 두는 등 7개 지역부대를 개편할 계획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미군동반가족을 현재 2000여 가족수준에서 2003년에는 5000여 가족수준까지 늘리고 이를 위해 주택보급률을 대폭 높일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주한미군의 영구주둔기도를 또다시 드러낸 것으로써 미군철수를 강력히 요구해온 우리 국민에 대한 참을수 없는 도전행위라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시기 주한미군철수는 한시도 미룰수 없는 시대와 민족의 절박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미국이 우리 민족을 갈라놓은 장본인이며 아직까지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근본원인이 바로 미제침략군의 한국강점에 있다는 사정과 관련된다 하겠습니다.

미국이 저들의 한반도 지배야망으로부터 ***** 과 우리 민족을 둘로 갈라놓았을뿐 아니라 이 땅을 강점한 첫날부터 남북대결을 부추기면서 끊임없는 북침전쟁책동으로 남북의 화해와 평화통일을 악랄하게 방해해 왔다는 것은 지나온 역사적 사실이 잘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분단 반세기가 넘도록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분열과 대결속에서 온갖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로부터 남북은 2000년에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갖고 6.15공동선언을 통해 나라의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이로써 주한미군의 존재명분도 사실상 없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미국은 주한미군의 통일후에 영구주둔까지 운운하며 무력증강과 전쟁연습을 비롯한 북침전쟁책동을 그 어느때보다도 더욱 강화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부시행정부출범이후 더욱 악랄하게 자행되는 대북강경책동으로 순조롭게 진행되어오던 6.15공동선언이행사업이 난관에 봉착한 것은 실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수 없습니다.

미국의 이같은 책동이 계속 감행될 경우 우리 민족앞에 초래될 파국적 결과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조차 없습니다.

지금 각계에서 미국을 6.15공동선언이행의 방해자, 통일의 원수로 규탄하면서 주한미군철수를 비롯한 반미투쟁의 파고를 더욱 높이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이번에 또다시 미군의 영구주둔을 노려 주한미군의 재편성책동을 벌이고 있는 것은 우리 국민의 요구를 무시한 파렴치한 강도적 행위입니다.

이것은 미국이야말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북침을 통한 한반도지배야망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통일의 원수라는 것을 그대로 실증해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같은 책동은 우리 겨레의 염원을 짓밟고 우리 민족을 파멸에로 몰아가려는 강도적인 행위로써 절대로 용납될수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은 미제침략군을 이 땅에서 몰아내는 길이 바로 민족의 재난을 막고 평화통일과 민족번영을 이룩하는 길이라는 걸 명심하고 주한미군의 재침책동을 비롯한 영구주둔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리기 위한 투쟁에 과감히 분기해 나서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투쟁으로 우리 땅 용산을 찾자

구국의 소리, 주체91(2002)년 1월16일～18일

남이 사는 우리 땅, 주인이 바뀐 우리 땅, 해가 바뀔수록 치욕의 울분이 끓어오릅니다.

새해엔 기어이 주한미군 몰아내고 우리의 모든 것을 되찾자는 우리 민중의 결의 또한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럼 오늘 이 시간에는 먼저 ≪투쟁으로 우리 땅 용산을 찾자≫ 윤정원씨 모시고 나눈 대담 보내드립니다.

사회자 : 안녕하세요.

윤정원 : 네, 안녕하세요.

사회자 : 아시다시피 지금 각계 민중들 속에서는 주한미군의 용산기지내 아파트건축계획의 철회와 주한미군철수를 요구하는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에 관해 얘기좀 나눠보자고 자리갈이 했는데요.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윤정원 : 아시다시피 지난해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주한미군의 연합토지관리계획이 채택된 것을 계기로 급속히 타번지기 시작한 주한미군철수투쟁의 불길은 미군의 강도적인 용산기지내 아파트건축계획발표와 더불어 더 거세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얼마전 청년통일광장, 서울연합, 반미여성회준비위원회, 전국연합반미실천단 그리고 문학예술청년공동체 등으로 구성된 ≪우리땅용산미군기지되찾기실천단 연석회의≫가 제6차 결의대회를 갖고 결의문을 발표한 것은 그 대표적 사례라 하겠죠. 결의문은 실천단 연석회의가 지난해 9일부터 ≪용산미군기지를 서울시민의 품으로≫라는 구호를 제기하고 기지앞에서 매일 투쟁을 벌여온데 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결의문은 ≪용산미군기지를 서울시민의 품으로≫라는 구호는 단순히 서울에 있는 미군기지반환의 의미만이 아니라 미군의 심장부를 향한 투쟁으로써 민족의 자주권회복을 위한 전지역적 투쟁의 발화점이라고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이러한 것은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용산미군의 아파트건축계획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모을수 있는 우리의 목표였다고 지적을 했죠.

사회자 : 이건 용산기지반환투쟁을 발화점으로해서 범국민적인 주한미군철수투쟁을 벌여나가겠다는 청년학생들과 각계 민중의 투쟁의지를 보여주는 거라 하겠는데요. 이건 아주 정당하다 하겠죠. 아시다시피 이 땅을 강점한 첫날부터 서울 한복판에 자기의 기지를 버젓이 만들어 놓은 미군은 용산기지를 통해 우리 민중에게 온갖 불행과 고통을 덮씌우고 있잖아요.

윤정원 : 그렇죠. 지금 용산미군기지주변의 환경은 심하게 파괴돼서 민중들은 항시적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용산에 둥지를 틀고 앉은 미군은 인체에 극히 해로운 독성물질을 한강으로 흘려보내고 기지주변 지하수를 기름으로 오염시키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러한 범죄행위를 부정하려들다가 명확한 증거앞에서 한두마디의 사과로 굼때는가 하면 한강에 독해물을 흘려보낸 책임자를 처벌은커녕 직위를 승격시켰습니다.

사회자 : 이건 그야말로 우리 민중에 대한 참을수 없는 우롱이고 모욕이 아닐수 없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환경파괴뿐 아니라 헬기이착륙을 목적으로 하는 용산비행장의 소음도 기준치를 크게 넘어서고 있어 주변의 주택들과 학교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잖아요.

윤정원 : 그렇죠. 그리고 용산기지에 있는 미군의 살인, 강도행위는 횡포하기 이를데 없는데요. 미8군해군 정보국 제임스 퍼먼이 ***여성과 ***어린이를 죽이고 형체를 알아볼수 없게 불태워버린 것도, 신당동에 있는 최교선주민의 상점에 들어가 주인을 술병으로 때려죽인 것도 그리고 지난해 매카시상병이 술집 여종업원을 무참히 살해하여 내외에 분격을 자아낸 것도 바로 용산구에서였죠. 이뿐이 아닙니다. 용산에서 무고한 민중들을 대상으로 감행되는 미군의 만행은 기지내에서도 예외로 되지 않고 있어요. 이미 세상에 널리 알려진 사실이지만 지난 1979년 9월 닉 카슨등 3명의 미군은 2명의 여성을 기지안으로 끌고 들어가서 능욕하는 짐승같은 만행을 저질렀잖아요. 이에 앞서 레이몬드와 윌리라는 미군들이 윤모여성을 병영내에서 마구 때려 중상을 입혔는가 하면 여덟명의 미군야수들은 강모소녀를 윤간하는 비인간적 행위도 서슴지 않고 감행했습니다.

사회자 : 지금 이 시각에도 용산구뿐만 아니라 주한미군기지가 도사리고 있는 이 땅 그 어디에서나 우리 민중들이 양키들의 범죄의 대상이 되어 피를 흘리며 쓰러져 가고 있잖아요. 미군의 이러한 행위를 두고 잡지 ≪말≫이 식민지일번지로 불리우는 용산미8군기지는 군사종속의 상징이지만 한국여인수난의 역사가 깃들어 있는 곳이기도 하다라고 한건 결코 우연치 않죠. 그러니 우리 민중들이 어떻게 온갖 불행과 고통의 화근인 주한미군을 용납할수 있겠나요. 그럼 용산미군기지를 비롯해서 주한미군기지완전철폐투쟁을 벌여나가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랄까 그에 관해 생각되는 점이 있으시면 말씀좀 해주시죠.

윤정원 : 제 생각에는 그 누구보다 정의감이 강하고 애국심에 불타는 우리 청년학생들이 주한미군을 내쫓고 미군기지를 완전철폐시키지 않고서는 민족적 자주권도 나라의 통일도 이루어질수 없다는 걸 깊이 자각을 하고 투쟁에 앞장서는게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선 한총련과 각지역 대학총학생회 등 학생운동단체들이 주한미군과 기지로 인해 산생하는 범죄상황들과 피해정형들을 역사적으로 낱낱이 들춰내서 각계 민중속에 널리 알려주기 위한 홍보활동을 적극 벌여야 할거라고 생각해요. 여기서는 인터넷과 피시방, 거리홍보 등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홍보활동을 다양하게 벌이는게 중요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보다 광범위한 민중속에 반미감정을 높여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봐요.

사회자 : 주한미군기지철폐투쟁을 힘있게 벌이는데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청년학생들이 노동자 농민 등 각계 민중과 연대해서 보다 대중적인 공동투쟁을 벌여나가는 것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청년학생들은 사상과 정견, 신앙과 정파를 초월해서 그가 누구든지 외세를 반대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굳게 손잡고 반미투쟁을 벌여나가야 합니다. 청년학생들은 각계 민중과의 단합된 힘으로 과감한 투쟁을 벌여 주한미군을 이 땅에서 몰아내고 악의 근원지, 미군기지를 완전철폐시켜야 할겁니다. 지금까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윤정원 : 감사합니다.

미군기지되찾기운동과 민중의 자세

구국의 소리, 주체91(2002)년 1월 18일~20일

지금 시민사회단체들의 미군기지반환, 미군기지내 아파트건설계획철회를 요구하는 투쟁이 날로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김현규씨 모시고 얘기드리겠습니다.

사회자 : 안녕하십니까.
김현규 : 네, 안녕하십니까.
사회자 : 최근 용산기지내 아파트건설추진계획철회와 미군기지반환을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들과 각계층 민중의 투쟁이 날로 강화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시간엔 이와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봤으면해서 이렇게 자리를 같이했습니다. 그럼 먼저 그 투쟁상황에 대해서 말씀해주실까요.
김현규 : 지난해 연말에 이어 새해에 들어와 한총련,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우리땅미군기지되찾기공동대책위원회, 불평등한 소파개정국민행동 그리고 용산미군기지반환운동본부를 비롯해서 여러 시민사회단체들과 각계층 민중의 투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명, 기자회견문 등을 발표하고 용산기지에 아파트건설을 강행하려는 미군의 전횡을 규탄하면서 용산기지내 아파트건설추진계획철회와 미군기지반환을 강력히 요구해 나섰습니다. 그들은 일치하게 미군이 용산기지에 아파트를 건설하려 하는 것은 미군기지이전은 물론 반환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하면서 결국 한반도에 영원히 둥지를 틀고 살겠다는 미국의 전략은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 다시한번 확인된 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불법적인 용산기지내 아파트건설은 미군이 여전히 무법자로 행세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하고 그렇게 될때 용산은 누구도 인간답게 자유로이 살수 없는 황폐지대로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강도적이고 오만불손한 태도에 절대 무릎을 꿇을수 없다고 강조하고 당국이 제공하는 거액의 유지비분담금으로 아파트를 건설하겠다는 것은 결국 우리 국민의 혈세로 미군가족의 복지를 꾀하겠다는 강도적인 발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한반도의 통일과 자주를 위해 7천만이 단결하고 있는 지금 미군은 더이상 이 땅에 주둔할 이유가 없다, 우리에게는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의 문을 열자고 약속한 6.15공동선언이 있다, 국민을 우롱하고 깔보며 억압하는 미군의 존재를 우리 국민의 자존심은 더이상 허락하지 않는다, 미국은 미군기지 전면반환하고 용산기지 아파트건설추진계획을 당장 철회하라고 강력히 요구해나섰습니다.
사회자 : 그리고 용산미군기지반환운동본부 회원과 주민 등 200여명이 용산미군기지앞에서 집회를 갖고 미군이 추진중인 기지내 아파트단지건설의 백지화와 기지반환을 촉구했잖아요. 집회참가자들은 용산기지내에 아파트건설추진은 기지반환을 약속한 협의를 파기하고 영구주둔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그들의 요구는 우리 민중의 의사와 요구를 대변한 지극히 정당한 거라고 볼수 있지 않을까요.
김현규 : 네, 그렇죠. 용산기지내에 아파트건설추진계획철회와 미군기지전면반환요구는 그들만이 아닌 온 민중의 한결같은 요구입니다. 우리 민중이 미군의 용산기지아파트건설계획을 분쇄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10년사이에 평택, 오산, 대구를 비롯해서 이 땅의 모든 미군기지들에 아파트가 건설되게 될 것이고 결국 이것은 미군의 영구주둔을 허락하는 것으로 되는 겁니다. 미군의 영구주둔으로 우리 민중이 얼마나 무서운 화마를 겪게 되겠는가 하는 건 명약관화한 거라고 봅니다.
사회자 : 그리고 보면 미군이 이 땅을 강점한 첫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50여년동안 우리 민중에게 형언할수 없는 온갖 불행과 고통을 강요해온 사실을 감안할때 미군의 영구주둔으로인해 우리 민중이 겪게 될 참상과 피해는 이루헤아릴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미군기지반환을 주장하는 우리 민중의 요구를 외면하고 미군의 아파트건설을 허용하려는 당국의 사대행위는 민족앞에 씻을수 없는 죄악을 저지르는 만고대죄로 될거라고 봅니다.
김현규 : 하기에 여러 시민사회단체들과 각계층 민중은 미군기지내에 아파트건설을 반대하는 민중의 의사를 외면하고 미군의 요구를 대변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국방부의 사대매국행위를 규탄하고 아파트건설계획백지화와 미군기지전면반환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 서울 용산에서 경기도 화성과 파주, 동두천과 의정부에서, 인천, 부평에서, 강원도 원주에서, 대구에서 아니 전국곳곳에서 우리땅미군기지를 되찾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이고 있는 건 바로 그것을 웅변해주고 있습니다. 반세기가 넘도록 이 땅의 안방을 차지하고 있는 미군과 그들의 기지에 의해 우리 민중의 피해가 극도로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는 오늘 각계층 민중이 더이상 참을래야 참을수 없어 미군기지반환과 철수를 요구해서 시위와 집회를 갖고 또 당국의 사대매국행위를 준열히 단죄규탄하고 있는 겁니다.
사회자 : 미군의 간악한 범죄적 만행과 추악한 행위, 끊임없는 군사훈련과 전쟁연습, 미군기지에서 흘러나오는 오폐수와 폐유 등에 의해 온갖 피해를 입고 있는 우리 민중이 분노를 터뜨리며 투쟁에 나선 건 미군이 해방자가 아니라 침략자고 원조자가 아니라 약탈자며, 벗이 아니라 간악한 원수라는 것을 인식한데서 비롯된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만큼 지금까지 벌여오고 있는 아파트건설추진계획철회와 미군기지전면반환을 요구하는 투쟁을 멈추지 말고 더욱 힘차게 벌여나가는게 매우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김현규 :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 투쟁을 활성화하고 대중적으로 벌여나가자면 지난 기간의 투쟁에서 교훈을 찾고 그에 토대해서 더욱 강화발전시켜 나가



야한다고 봅니다. 지난 기간 이 투쟁에서 좀 아쉬웠던 점은 몇몇 단체나 국한된 지역주민들에 한해서 전개된 것이라든가 자기들의 요구를 끝까지 관철하기 위한 투쟁으로 전개되지 못한 점 등을 들수 있죠. 그런만큼 운동단체들에서는 지난해의 교훈을 밑거름삼아 지금 벌이고 있는 아파트건설추진계획철회와 미군기지전면반환을 요구하는 투쟁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끝장을 볼때까지 가열차게 전개해나가야 할겁니다.

사회자 :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 좀 말씀해주실까요.

김현규 : 무엇보다도 주한미군의 실체와 전국 각지에 있는 미군기지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50여년에 걸치는 미군의 한국강점사는 주한미군이야말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파괴자이고 암적 존재이며 우리 민중의 온갖 불행과 고통의 화근이라는 것, 미군기지는 모든 악을 산생시키는 본산이고 터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만큼 주한미군철수와 미군기지철폐는 우리 민중앞에 부과된 절박한 과제라는 것을 똑똑히 알고 이 투쟁에 적극 나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기간의 투쟁에서 얻은 귀중한 경험을 살려 미군기지내 아파트건설을 반대하고 미군기지반환을 요구하는 투쟁을 적극 벌여나가자면 이 투쟁을 대중적인 투쟁으로, 범국민적인 투쟁으로 확산시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면 우리땅미군기지되찾기운동대책위원회를 비롯해서 용산미군기지반환운동본부, 매향리미공군국제사격장철폐를 위한 주민대책위원회, 우리땅미군기지되찾기평택시민모임과 같은 여러 가지 형태의 단체들을 지역과 마을, 주민들속에 더많이 결성하고 여기에 각계층 민중을 망라시킴으로써 이 투쟁의 대중화를 이루어내야 하는 겁니다. 이와 함께 기존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적극적인 활동을 벌여 선도자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데도 응분의 관심을 돌려야하죠.

사회자 : 지금까지의 미군기지되찾기운동에서 볼수 있는 것처럼 미군기지반환운동은 개별적 지역이나 단체만의 투쟁으로는 결코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없죠.

김현규 : 네, 그렇죠. 일반적으로 운동의 성과여부는 그 운동을 조직전개하는 주체역량의 강화에 달려있지 않습니까. 이런 맥락에서 볼때 미군기지반환운동의 성과 역시 이 운동을 떠밀어나가는 주체인 우리 민중의 역량강화, 단결여하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런만큼 최근 전국 곳곳에서 활발히 벌어지고 있는 미군기지반환운동을 더욱 힘차게 벌여 미군기지를 되찾자면 여러 시민사회단체들과 각계층 민중의 연대연합을 강화하고 조직적이고 단결된 투쟁으로 이 운동을 줄기차게 벌여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연대연합을 강화해나가는데서도 각 지역간, 단체들 사이의 연대연합을 적극 벌여서 국제연대도 이루어내는 것이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 하겠죠. 그리고 계층별에 따르는 연대연합 등을 이루어내어 각계층 민중의 단결을 도모함으로써 미군기지반환운동을 성공적으로 벌여나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연대투쟁으로 확산시켜 범국민적인 투쟁을 더욱 힘차게, 줄기차게 벌여나갈때 우리 땅인 미군기지를 되찾을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사회자 : 앞에서도 잠깐 비쳤지만 미군기지반환운동을 벌여나가는데서 주체적 역량을 강화하는 문제가 제기됐는데요. 여기서도 보다 중요한건 모든 사회운동의 기본동력인 노동자, 농민이 주동력이 돼서 미군기지반환운동을 벌여나가는 겁니다. 여기에 청년학생들과 지식인, 종교인, 도시빈민들과 미군기지내의 주민들까지의 단결을 강화해서 거족적인 투쟁을 조직전개하는 것이라고 보는데요.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형태의 투쟁을 벌여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김현규 : 그렇죠. 여러 가지 형태의 투쟁을 벌여나가는 것은 여기에 보다 광범위한 각계층 민중을 망라시키며 미군기지반환운동을 성과적으로 벌여나가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라고 볼수 있죠. 지난 기간에 미군기지반환운동을 더욱 적극화, 대중화하기 위해서도 다양한 형태의 투쟁이 절실하게 제기되는 겁니다. 실례로 집회와 시위, 항의농성과 서명운동, 각종 문서발표 등을 통한 여러 가지 형태의 투쟁과 여기에 대중의 의식상태와 준비정도에 걸맞는 투쟁구호를 제시하는 것은 미군기지철폐투쟁의 대중화를 보장하고 승리를 이루어내기 위한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이밖에도 미군기지되찾기운동이 6.15남북공동선언을 이행하고 민족의 자주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투쟁의 일환이라는 인식을 갖고 이 운동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사회자 : 네, 옳은 말씀입니다.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을 실천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민중의 불행과 고통을 가시기 위해서도 미군기지철폐투쟁을 끝까지 과감히 벌여나가야 할겁니다. 조직되고 단결된 노동자, 농민이 주축이 되고 각계층 민중과 지역주민이 하나로 굳게 뭉쳐 전국적, 범국민적 투쟁을 벌여나간다면 우리땅 미군기지를 얼마든지 철폐시킬수 있습니다. 각계층 민중은 자기의 지혜와 힘을 합쳐 미군기지철폐투쟁을 강력히 벌여나감으로써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조국의 자주통일을 앞당겨오는데 적극 기여해야 할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현규 : 감사합니다.

사회자 : 미군기지내 아파트건설계획추진은 미국이 우리 민중들의 기지반환요구는 생각도 않고 있으며 미군의 영구강점을 획책하고 있다는 걸 말해주는데요. 우리 민중은 이걸 절대로 허용할수 없죠. 우리 민중은 미군기지반환과 미군의 철수가 실현될때까지 끝까지 싸울겁니다.



추가공여 결코 안된다
미국은 용산미군기지를 즉각 반환하라

한미 양국은 최근 용산 미군기지를 이전해야 한다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서울 송파,수원, 성남 등에 기지 이전에 따른 대체부지를 물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양국은 90년에 이미 용산 미군기지를 이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미군 측은 이전 비용을 터무니없이 부풀리며 부당하게 이전을 미루어 왔다. 따라서 늦게나마 용산 미군기지를 이전하기로 합의한 데 대하여 다행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한미 당국이 용산 미군기지가 옮겨갈 대체부지로 서울 송파에 위치한 한국군 부대를 물색하고 있다는 소식에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용산 미군기지의 전면, 즉각 반환을 주장해 온 우리의 요구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것이다.

주한미군은 현재 약 8000 여만 평(미군 1인 당 무려 2000여 평)에 달하는 광활한 땅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80 여만 평 규모의 용산 미군기지는 마땅히 기존의 미군기지 내로 이전해야 하며, 결코 우리 땅을 추가로 공여해서는 안 된다. 대체부지가 설령 한국군 부대 터라 하더라도 그곳이 우리 땅인 이상 이를 미군에게 추가로 공여해서는 안 된다.

또한 기지 이전에 따른 비용 역시 전적으로 미군이 부담해야 한다. 불평등하기 그지없는 한미소파(5조 1항)조차도 주한미군의 유지비는 주한미군 측이 부담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가 기지 이전 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은 마땅히 미국 정부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우리 정부에, 결국은 우리 국민들에게 떠넘기는 것으로, 우리는 이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아울러 이 땅에 상전으로 군림하고 있는 주한미군의 주둔은 우리의 주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으며 온 겨레의 염원인 민족의 화해와 통일에 결정적 걸림돌로 되고 있기에 한시바삐 이 땅을 떠나야 한다.

이에 우리는 다시 한번 요구한다.

미국은 용산 미군기지를 전면, 즉각 반환하라!
용산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우리 땅의 추가 공여를 결사 반대한다!
모든 이전 비용은 전적으로 미국 정부가 부담하라!
우리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주한미군은 이 땅을 떠나라!

한미 양국은 우리 국민의 요구가 어디에 있는지를 직시하고 이상의 우리의 요구를 수용함으로써 향후 호혜 평등한 한미관계를 정립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2002년 1월 19일
용산 미군기지 반환운동본부(준)



용산미군기지 성남 이전 결사 반대한다

1월 19일 언론보도를 통하여 밝혀진 바에 따르면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최근 주한미군 아파트 건립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 용산 미군기지의 이전 방침을 확정하고 경기도 수원, 성남 남성대, 강북중 한 곳에 대체 부지를 물색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용산미군기지는 미군범죄의 온상이며, 도시발전저해, 녹사평역 지하수 기름오염사건과 한강독극물 방류사건등 환경파괴, 외국 군대의 장기주둔으로 인한 민족자주권침해등 온갖 문제로 인하여 온 국민의 분노의 대상이 되어 왔던 곳이다.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남과 북사이에 화해와 협력이 기운이 높아지면서 주한미군의 장기주둔이 아니라 기지반환후 주한미군의 철수가 요구되는 시점에 한 · 미 양국이 오는 6월까지 용산미군 이전 대상지중의 하나로 성남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95만 성남시민은 분노를 금할수 없다.

용산미군기지가 성남으로 이전할 경우 성남시의 도시발전은 심각히 저해되고, 미군기지의 환경파괴로 성남은 죽음의 땅으로 변할 것이며, 성남시민은 미군범죄로 항상 불안에 떨어야만 한다. 또한 미국식 저질 퇴폐문화가 거리 곳곳에 넘쳐나 결국 성남은 제2의 동두천, 제2의 이태원으로 전락하고 말것이다.

이에 민주노동당 성남 중원, 수정 지구당은 성남시민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용산미군기지의 성남이전을 검토하는 한미 당국을 강력히 규탄하고 95만 성남시민과 함께 용산 미군기지의 성남이전이 철회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2001년 1월 19일
민주노동당 성남 중원지구당, 수정지구당

용산 미군기지 송파 이전에 대한 송파을 지구당(준) 성명서

미군기지 추가 공여에 반대한다.
용산 미군기지의 송파 이전에 반대한다.

한미 양국은 90년에 이미 용산 미군기지를 이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미군측은 이전 비용을 터무니없이 부풀리며 부당하게 이전을 미루어 왔다. 그런데 1월 19일 언론보도를 통하여 밝혀진 바에 따르면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서울 용산 미군기지의 서울 송파, 수원, 성남 등에 대체부지를 물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미 당국이 용산 미군기지가 옮겨갈 대체부지로 서울 송파에 위치한 한국군 부대를 물색하고 있다는 소식에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용산 미군기지의 전면, 즉각 반환을 주장해 온 우리 민주노동당의 요구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것이다

그 동안 이 땅의 미군기지는 미군범죄와 미국식 저질문화의 온상이며, 도시발전 저해, 녹사평역 지하수 기름오염사건과 한강 독극물 방류 사건 등 환경파괴 등의 온갖 문제로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켜 왔다. 도대체 용산과 송파의 차이가 무엇인가? 지역주민과 서울 시민들이 미군기지로 인해 겪는 각종 고통이 송파로 옮기면 해결된다는 말인가? 아니면 송파 주민은 그런 고통을 겪어도 된다는 말인가?

주한미군은 현재 약 8,000여만 평(미군 1인 당 무려 2,000여 평)에 달하는 광활한 땅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80 여만 평 규모의 용산 미군기지는 마땅히 기존의 미군기지 내로 이전해야 하며, 결코 우리 땅을 추가로 공여해서는 안 된다. 대체부지가 설령 한국군 부대터라 하더라도 그곳이 우리 땅인 이상 이를 미군에게 추가로 공여해서는 안 된다. 또한 기지 이전에 따른 약 26조원(약 200억 달러)의 비용 역시 전적으로 미군이 부담해야 한다.

아울러 이 땅에 상전으로 군림하고 있는 주한미군의 주둔은 우리의 주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으며 온 겨레의 염원인 민족의 화해와 통일에 결정적 걸림돌로 되고 있기에 한시바삐 이 땅을 떠나야 한다.

이에 우리는 다시 한번 주장한다.

용산 미군기지의 송파 이전을 결사 반대한다
미국은 용산 미군기지를 전면, 즉각 반환하라!
용산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우리 땅의 추가 공여를 결사 반대한다!
모든 이전 비용은 전적으로 미국 정부가 부담하라!
우리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주한미군은 이 땅을 떠나라!

이상의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양심적인 세력, 특히 모든 송파 주민들과 힘을 합쳐 투쟁할 것이다.

2002년 1월 20일
민주노동당 송파을 지구당 준비위원회

≪군 특전사 떠나가니 미군기지가 온다고?≫

송파구민, 용산기지 송파이전 결사반대 입장 발표



≪그동안 지역주민을 힘들게 했던 특전사인 비룡부대가 2006년이면 이전해간다는 약속만 믿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또다시 용산미군부대라니,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용산미군기지 대체 부지로 송파가 거론되자 송파구민들은 당혹감과 분노로 거센 반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송파구는 21일(월) 용산미군기지 보도와 관련한 송파구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국방부 등 어떠한 기관으로부터도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점≫과 ≪지역문제를 주민참여를 배제하고 지역장래를 좌지우지할 계획을 사전검토없이 보도한 점≫을 들며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표명을 했다.

또한 송파구의 경우, 전형적인 주거지이면서도 근처 특전사 부대로 인해 주거 및 일상적인 생활에 제약을 받아왔고 고도제한규정으로 인해 엄청난 재산상의 피해를 입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안보이유로 감내해왔다며 이번 결정은 구민전체를 무시하는 결정이라고 반박했다.

더욱이 2006년 기지 이전을 약속한 특전사 부지에 또 다른 기지가 들어온다는 사실에 주민은 분노할 수 밖에 없다고 심경을 표했다.

보도된 내용에 대한 사실확인을 위해 국방부에 문의를 했다는 송파구 관계자는 ≪사전합의가 전혀 없이 이루어졌다. 국방부의 답변은 송파를 거론한 적이 없다고 하면서 언론에 유출한 적도 없었다고 답변했다≫는 사실확인과정에서의 일들을 설명했다.

송파구 관계자는 ≪용산 기지 이전이 확정된 이상 한 지역은 기지 이전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며 ≪100만평이 소요되며 이전비용만도 200억 달러가 드는 대규모 계획인 만큼 기지 이전과 관련해서는 한미관계자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지역주민 자치단체장까지 모여 논의해서 결정해야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송파구의 자체 설문조사에 따르며 지역 주민 80%가 반대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역주민차원에서 ≪미군기지송파이전 결사반대 투쟁위원회≫(위원장 김남순, 교회 목사)가 구성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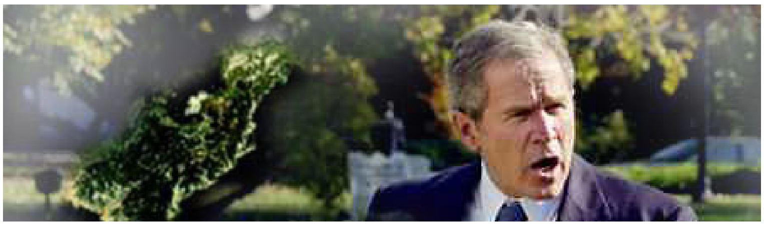
투쟁위원회는 현재 있는 특전사도 외곽으로 이전할 것을 주장하며 미군기지 송파이전 계획 철회와 미군기지 이전이 절대 불가함을 명백히 밝혔다.

한편, 용산미군기지 대체부지로 송파와 수도권 일대가 거론되자 성남, 수원 등에서도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백영순 기자 2002년 1월 22일

미국이 이북을 걸고드는 진의도

김세찬 / 구국전선 제466호, 주체91(2002)년 1월 21일



부시미대통령이 다음달 19일부터 21일까지 한국을 행각한다고 한다.

부시의 행각을 계기로 미국은 또다시 이북의 있지도 않는 ≪핵≫과 그 무슨 미사일개발능력에 관심을 가진다고 하면서 ≪한미정상회담≫에서 북의 핵잠재력을 주요 의제로 논의할 것이라고 떠들었다.

부시의 이번 행각은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전쟁이후 그 불티를 한반도에로 옮겨놓으려는 속셈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지난해 말부터 ≪뉴욕 타임스≫를 비롯한 미국언론계에서는 ≪탈리반 다음은 누구? 이북을 잊지 말라≫,≪아프가니스탄 다음 테러응징전쟁의 목표가 이북이 될 수 있다≫,≪광범위한 사찰을 거부할 경우 외교보다는 전쟁이 우선시될 수 있다≫ 등등 심히 자극적인 제목밑에 ≪반테러전쟁≫의 다음 무대가 이북으로 될 수 있다는 시사기사가 눈에 띄게 나돌았다. 아프가니스탄전쟁이 종결단계에 들어선 것과 때를 같이 하여 미국의 언론들이 부시정권의 이른바 ≪반테러전쟁≫의 다음 목표를 운운하며 ≪전쟁의 우선시≫니 뭐니 하는 극히 도발적이며 호전적인 여론을 내돌리고 있는데 대해 경계심을 높이지 않을 수 없다.

국제여론은 아프가니스탄전쟁이후 어떤 새로운 사태가 일어나겠는가 하는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것은 미국이 올해를 ≪반테러전쟁≫의 해로 선언하면서 아프간에 대한 군사보복작전을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려는 입장을 거듭 내비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이북에 대한 미국의 태도가 날이 갈수록 강경해지고 있는 사실이다.

미국은 ≪9.11테러사건≫이후부터 아프간전쟁 초기까지 ≪전제조건이 없는 대화재개≫를 떠들면서 이북과의 그 무슨 관계에 대해 떠들었다.

그런데 아프간사태가 저들에 유리하게 기울어지자 미국은 태도를 완전히 바꾸었다. 부시정권은 ≪인권≫이요, ≪종교≫요, ≪생화학무기≫요 하는 당치않은 문제들을 연이어 걸고들며 이북에 생트집을 하다못해 북을 계속 ≪테러≫와 억지로 결부시켜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검증≫문제까지 들고 나오는가 하면 ≪반테러전쟁≫과 결부시켜 이북을 심히 자극하는 태도도 거리낌없이 취하고 있다. 이러한 사태의 추이는 미국의 호전세력들이 ≪전제조건 없는 대화재개≫니 뭐니 한 것은 기만적인 위장 평화공세였으며 미국이 ≪전략공백≫을 운운하면서 이 땅에 새로운 기동타격무력을 전진배비한 것은 아프간후의 작전을 한반도에로 옮기려 했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이북을 ≪테러≫와 억지로 연결시켜 당치 않는 문제들을 들고나온 것은 전쟁구실을 마련하기 위해서이다. 이제 와서는 또다시 그 무슨 ≪핵≫과 미사일문제까지 거들며 부시의 한국행각으로 한반도정세를 더욱 긴장격화시키고 있다.

그리고 보면 부시정권이 이북을 ≪테러≫와 연결시켜 생억지를 부리고 ≪테러지원국≫의 감투를 집요하게 씌우는 것은 어떻게 하나 내외여론을 오도하여 북에 ≪테러≫의 허물을 씌우며 부시의 행각으로 한반도에서 침략전쟁의 작전실현을 점검해보자는데 그 진의도가 있다.

사실 21세기 부시정권의 새로운 세계지배전략의 기본고리는 한반도이다. 미국의 호전세력 자체가 이에 대해 숨기지 않고 있다. 그들은 아시아에 중점을 둔 새로운 군사전략을 실현하는 데서 한반도에 중점을 두고 대북강경정책을 계단식으로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만전쟁, 발칸전쟁에서 무사하였고 아프간전쟁도 무난히 치르고 있지만 한반도에서는 사정이 전혀 다르다. 북은 방어에도 공격에도 다 준비되어 있고 그 타격력에는 한도가 없다고 재삼 천명하고 있다.

한반도에서 평화를 보장하며 민족자주통일을 이룩하자면 미국의 침략과 전쟁책동을 반대하고 전쟁위험인 주한미군을 몰아내야 한다. ≪반테러≫의 명목밑에 감행되고 있는 부시정권의 반북압살, 반통일 책동으로 말미암아 한반도에서는 긴장상태가 격화되고 있다. 새 전쟁의 위험이 날로 커가고 있는 정세하에서는 조국의 평화와 통일에 대해 생각할 수 없다.

부시의 한국행각은 침략행각이며 전쟁행각이다. 전민중은 부시의 행각을 결사반대배격하며 호전세력들의 침략과 전쟁도발책동을 저지파탄시키고 조국의 평화와 민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반미반전투쟁에 과감히 떨쳐나서야 할 것이다.



전쟁과 긴장의 근원, 부시 미 대통령의 방한을 반대한다

최근 보도된 바에 따르면 내달 19일-20일 경 미국 부시대통령이 우리 나라를 방문한다고 한다. 이번 방한에 대해 오홍근 청와대 대변인은 ≪한미 양국 정상이 이번 만남을 통해 한미 동맹관계 공고화, 대북정책 공조강화, 9.11 테러이후 국제질서 구축과정에서 양국의 협력 방안 등이 주요의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온 겨레는 지난 해 한미정상회담 시기 논의된 경과와 그 이후 남북관계의 양상을 통해 소위 ≪한미공조≫,≪동맹관계≫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뼈저리게 확인한 바 있다. 주지하다시피 6.15 남북공동선언에서 표방하고 있는 남북사이의 협력과 단합의 관계는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강경한 대북정책과는 절대 양립할 수 없다.

작년 한미정상회담시기에도 미국은 6.15 남북공동선언을 지지한다고는 하였지만 ≪남북관계 개선의 속도조절≫, ≪철저한 상호주의≫를 운운하면서 남북관계 개선에 제동을 걸었고, 결국 장관급회담은 무산되고 말았다.

최근 미국의 대북적대 정책은 그 정도가 계속 심각해지고 있다. 미국은 북미관계에서도 기간 맺어왔던 합의들을 존중하며 관계개선을 위해 노력하기보다 합의를 원점으로 돌리고 핵, 미사일, 재래식 무기, 생화학무기 등 소위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사찰을 강요하면서 북미관계를 긴장으로 몰아넣고 있다. 지난 해 9.11참사 이후 소위 반테러 전쟁이라는 미명하에 다자간의 협의보다는 일방적인 군사행동으로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려는 미국의 횡포한 태도는 이제 그 대상을 북으로 확대시켜 가고 있다.

미국은 일방적인 ABM 조약 탈퇴에 뒤이어 MD 구축을 공언하고 나섰으며, MD 구축과정에 남측 정부의 동참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의 이러한 정책은 온 민족을 긴장과 전쟁으로 몰아넣겠다는 위협이며, 화해와 통일로 나아가고 있는 우리 겨레에게 심각한 걸림돌로 되고 있다.

우리는 미국이 소위 반테러전선이라는 미명하에 전세계를 재편하려는 기도에서 추진되는 첫 번째 순방지가 한반도라는 점을 주목한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소위 한미공조, 반테러전선 구축이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는 점은 미국의 일방적 패권주의 관철의 첫 번째 희생자로 우리 민족을 삼겠다는 노골적인 의사표시이다.

미국의 유일패권 구축을 위한 무모하고도 패권적인 행각에 우리가 동참해야 할 이유는 아무 것도 없다. 미국은 무모한 정치개입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화해와 통일로 나아가는 우리 민족의 행보를 인정해야 한다.

북미간의 선행합의를 중심으로 북미관계 개선에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

남측 정부 또한 미국의 정치개입을 단호히 거부하며 6.15 남북공동선언에서 합의한 민족공조의 입장을 철저히 지켜야 할 것이다.

2002년 1월 16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조선일보, 이북을 헐뜯는 모략선전 계속 자행

구국의 소리, 주체91(2002)년 1월 18일

이미 보도가 됐습니다만 지난 3일 조선일보는 새해에 즈음해 이북에서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과 조국통일운동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일으킬데 관한 당보, 군보, 청년보의 공동사설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그걸 헐뜯는 글을 내서 내외의 강력한 항의와 규탄을 받은바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마땅히 여기에서 교훈을 찾고 다시는 대북중상모략책동을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민의에 역행하여 여전히 대북모략선전을 계속할뿐 아니라 그 도수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선일보패거리들이 국경없는 **거리의 이름을 빌어 이북에는 있지도 않은 강제수용소에서 마치 신생아들을 마구 죽이고 있는 것처럼 모략선전을 하고 있는 사실이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북으로 말하면 세상에서 사람을 가장 귀중히 여기는 나라이고 인권이 법적, 제도적으로 철저히 보장되고 있는 인권중시, 민중중시사회입니다. 그래서 이북을 다녀온 사람들과 세계 진보적 언론들은 이북이야말로 인권이 완벽하게 보장되는 사회, 만주민권이 활짝 꽃핀 나라라고 격찬하며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북에 강제수용소가 있을리 만무하고 아이들이 나라의 왕으로 떠받들리우고 있는 이북에서 신생아들을 마구 죽일수 없다는 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하겠습니다.

더욱이 이북에서는 임산부가 죄를 짓고 형을 언도받았다 하더라도 자기 집에 가서 의사의 방조하에 안전하게 출산하며 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먹지않고도 자랄수 있을 정도로 클때까지 형집행을 중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므로 이북**도에 애당초 신생아가 있을수 없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패거리들은 전혀 있을수 없는 것을 날조해 그처럼 이북을 악랄하게 헐뜯고 있는 것입니다.

조선일보편집집단에게 묻건데 그래 동족을 그처럼 악랄하게 헐뜯어 이로울게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 온 겨레는 희망찬 새해, 6.15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어떻게하나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이룩하고 조국통일의 결정적 국면을 마련하기 위해 힘과 지혜를 다바치며 간고분투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편집집단에게 민족적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마땅히 민족의 이같은 애국적 대장거에 발맞추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도리어 그에 역행하며 대북모략선전에 광분하고 있으니 분격을 금할수 없습니다.

조선일보가 새해 벽두부터 이따위 비열한 모략행위에 매달리는 것은 미국상전의 민족말살의 돌격대가 되어 동족사이의 불신을 조성하고 남북대결을 고취하며 6.15공동선언이행에 빗장을 지르려는데 그 범죄적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조선일보패거리들의 이같은 비열한 작태는 그들이야말로 미국의 개, 어용나팔수, 반역집단이라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지금 각계 민중들이 조선일보를 어용매문지로 배척하면서 불매불구독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은 천백번 정당하다 하겠습니다.

조선일보는 민의를 똑바로 보고 반민족적, 반통일적 범죄행위를 하루빨리 회개하고 사회공지로써의 자기 본연의 사명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조선일보가 겨레와 국민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낡은 악습을 버리지 않고 계속 반북모략책동에 광분한다면 화해와 단합을 바라는 온 겨레의 규탄을 면치 못할 것이며 값비싼 댓가를 치루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조선일보의 대북험담을 따져본다(1)

-이북의 공동사설에서 4대제일주의와 자주, 외세배격을 강조한 것을 시비한데 관해-

구국의 소리, 주체91(2002)년 1월 15일, 18일

남을 헐뜯고 시비질하는 것이 체질화된 조선일보가 이북의 새해공동사설에 대해 시비질하고 험담을 해서 각계 민중의 비난이 빗발치듯 하고 있습니다.

그럼 김현규씨 모시고 조선일보의 대북험담에 대해 따져보기로 하겠습니다.

연속대담 ≪조선일보의 대북험담을 따져본다≫ 오늘은 그 첫번째 시간입니다.

사회자 : 안녕하십니까.

김현규 : 네, 안녕하십니까.

사회자 : 이미 보도가 됐습니다만 조선일보는 지난 3일자에 ≪6.15이전으로 환원한 북의 신년사≫라는 제목으로 이북의 당보, 군보, 청년보가 새해에 즈음해서 발표한 공동사설을 시비하는 사설을 실었는데요. 지금 각계 국민들속에서는 이같은 비난의 사설을 실은 조선일보편집집단에 항의하며 규탄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 얘기 나눴으면 해가지고 이렇게 자리를 같이했는데요. 먼저 이북의 공동사설내용부터 간추려서 말씀해주실까요.

김현규 : 이북의 당보인 ≪노동신문≫과 군보인 ≪조선인민군≫, 청년보인 ≪청년전위≫는 새해에 즈음해 지난 1일 공동사설을 발표했는데요. 공동사설은 지난해 이북에서 이룩한 성과와 요인에 대해 지적하고 올해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과 조국통일운동에서 나서는 과제와 방도를 발표했습니다. 공동사설은 특히 올해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과제를 제시하면서 6.15남북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을 존중하고 옳게 구현할데 관해서와 침략과 전쟁책동을 반대하고 전쟁위험을 제거할데 관해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외세와 야합해 동족을 압살할 것을 노린 ≪주적론≫을 철회하고 ≪국가보안법≫을 철폐해야하며 외세에 민족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반역행위를 하지 말아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건 올해 우리 겨레가 조국통일의 결정적 국면을 열어나갈수 있게 하는 고무적 그런 지침이죠. 지금 각계의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역시 이북에서 올해 통일운동의 표대를 정확히 세웠다, 이북에서 공동사설을 통해 밝힌 총노선대로하면 올해 통일운동에서 결정적 국면을 반드시 열수 있다, 민중들은 이렇게들 말하면서 그 관철을 위해 나설 결의를 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조선일보만이 공동사설에 대해 험담을 늘어놓으며 구시대의 악습을 버리지 않고 있어 사람들을 분격시키고 있습니다.

사회자 : 원래 조선일보로 말하자면 그 더러운 체질적 특성으로해서 늘 남을 헐뜯으며 삐뚤어진 소리만해서 사람들은 그에 대해서 개짖는 소리로 치부하면서 별로 그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험담을 늘어놓는 그 심보가 하도 고약해서 가만히 있을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선일보가 이북의 공동사설을 어떻게 시비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봤으면 합니다.

김현규 : 우선 문제는 조선일보가 이북의 공동사설에서 4대제일주의 즉 우리 수령제일주의, 우리 사상제일주의, 우리 군대제일주의, 우리 제도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할데 관해 강조한 것을 시비하면서 입에 담지 못할 험담을 늘어놓은 겁니다. 조선일보는 우리는 군이 격변하는 세계의 흐름에 동참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것을 기대했으나 신년사에는 그것에 대해 한마디도 언급이 없다면서 그들에게는 여전히 수령밖에 없으며 자주와 외세배격 그리고 주체사상의 깃발만이 그들을 이끌어가는 유일한 지표로 남아 있을 뿐이다, 이러한 북의 무기력하고 화석화된 인식이 앞으로 한반도에 몰고올 파장을 우리는 염려하지 않을수 없다이렇게 시비했습니다. 도대체 이북에서 우리 수령제일주의와 우리 사상제일주의를 비롯한 4대제일주의를 내세우고 자주와 외세배격을 강조한 것이 왜 잘못이며 그것이 시대에 맞지 않는단 말입니까.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라 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수령은 민족의 존엄의 상징입니다. 수령의 위대성에 민족의 번영이 있고 찬란한 미래가 있는 겁니다. 위대한 수령을 모셔야 민족의 존엄을 지킬수 있고 나라가 융성할수 있다는 건 역사에 의해 확인된 진리입니다. 우리 민족이 두분의 위대한 수령을 모셨기에 나라의 광복을 이룩할수 있었고 이북에 가장 우월한 민중중심의 사회주의제도가 설수 있었으며 이북 민중들은 그처럼 어려운 속에서도 좌절없이 사회주의를 확고히 고수하고 강성대국건설의 힘찬 진군을 할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사회자 : 그렇죠. 이북에서 공동사설을 통해 강조한

우리 수령제일주의는 우리 민족의 재생과 융성을 가져다 준 생명수고 이북민중의 무비의 영웅성과 강위성, 높은 창조적 위력의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 수령제일주의는 오늘뿐 아니라 내일도 아니 앞으로도 계속 높이 들고 나가야할 가치이고 영원불변할 신념이라고 봅니다.

김현규 : 네, 그렇습니다. 우리 사상제일주의가 그렇습니다. 이북의 공동사설에서 강조한 우리 사상제일주의는 주체사상의 불패성에 대한 확고부동한 신념이며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사상을 영원한 지도적 지침으로 삼고 싸워나가려는 드팀없는 의지입니다. 아시다시피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께서 창시하시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발전풍부화하시는 주체사상으로 말하면 현재뿐 아니라 미래인류의 유일무이한 지도사상이고 인류이상사회건설을 위해 확고히 거머쥐고 나가야할 천하지대본입니다. 인류는 자기가 바라는 이상사회를 건설할때까지 주체사상의 가치를 변함없이 계속 확고히 들고나가야 합니다. 우리 군대제일주의도 또 얼마나 훌륭합니까. 아시다시피 총대는 곧 국력이고 민족적 자주권입니다. 총대에서 정권이 나온다는 말이 있는데요. 이건 총대가 그처럼 중요하다는 거겠죠. 오늘 이북이 그처럼 어려운 속에서 사회주의를 고수하고 다른 나라들이 떠는 미국과도 땅땅 나서 제할소리를 다하며 배짱있게 강성대국건설에 매진할수 있는건 바로 강한 명장에 백전백승하는 총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총대정치, 선군정치야말로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하고 강성대국을 건설할수있게 하는 위력한 담보, 원천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구촌에 제국주의가 소멸될때까지 총대정치는 계속 벌여야한다고 봅니다.

사회자 : 우리 제도제일주의도 그렇습니다. 사회주의를 포기하면 죽는다는 건 사회주의가 좌절된 나라들이 보여준 피의 교훈이죠. 이북에서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민중중심의 사회주의제도를 고수하고 강화발전시키며 그 우월성을 남김없이 발휘하기 위해 공동사설에서 우리 제도제일주의를 활짝 꽃피워 나갈데 관해 강조한건 천백번 옳은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이번에 이북에서 당보, 군보, 청년보가 공동사설을 통해 4대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할 것을 강조한건 시대의 요구와 민의를 반영한 것으로써 더없이 정당하다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가 이북에서 공동사설을 통해 4대제일주의를 강조한데 대해 시비하면서 무기력하다느니 인식이 화석화돼 있다느니 하며 험담을 늘어놨으니 사람들이 어찌 조선일보에 침을 뱉지 않겠습니까. 진짜 인식이 화석처럼 굳어진 건 좋은 것도 나쁘게만 보는 조선일보죠.

김현규 : 조선일보의 인식이 얼마나 화석화됐는가 하는 건 이 신문이 이날 사설에서 이북의 공동사설에서 자주와 외세배격을 주장한데 대해 시비한 사실에서 잘알수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자주는 민족의 생명이죠. 우리 민족이 과거 일제놈들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자주권을 상실당했을때의 그 지긋지긋한 피눈물나는 생활을 기억해보면 자주가 얼마나 귀중한가를 가슴깊이 느끼게 됩니다. 오늘 이 땅에서는 우리 민중들도 미국침략자들에게 자주권을 빼앗기고 식민지노예의 처지에서 피눈물을 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주는 나라와 민족의 생명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 민중에게는 더욱 가슴 뜨겁게 느끼게 되는 겁니다. 더욱이 이북이 공동사설을 통해 올해 우리는 민족자주의 기치밑에 조국통일의 결정적 국면을 열어나가야한다면서 온 민족은 우리 민족끼리 조국을 통일하자라는 자주통일의 구호를 드높이 치켜들고 모든 것을 민족공동의 이익에 복종시키며 사대와 외세의존을 배격하고 민족공조를 실현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정당한 주장입니까. 사대와 외세의존은 망국의 길이라는 건 우리 나라의 피눈물나는 여역사가 가르쳐준 교훈입니다. 우리 나라의 근대사는 사대로 망하고 외세의존으로 망한 역사입니다. 오늘은 이 땅에 있는 사대매국집단에 의해 나라와 민족의 이익이 얼마나 많이 침해당하고 있습니까.

사회자 : 네, 그렇습니다. 이북에서 공동사설을 통해 민족자주와 외세배격을 강조한 건 천백번 정당합니다. 그런데 조선일보는 감히 그걸 시비하면서 도리어 이북의 인식이 화석화됐다고 비난하니 그야말로 앙천대소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조선일보야말로 반민족반통일 여용매문지, 시대의 요구와 민의에 역행하는 사이비 악지로써의 정체를 이번에 다시한번 스스로 드러냈는데요. 지금 국민들이 조선일보 배척운동을 벌이면서 즉시 자폭하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건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얘기를 계속 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만 마칠까 합니다. 지금까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현규 : 감사합니다.

사회자 : 연속대담 ≪조선일보의 대북험담을 따져본다≫ 오늘은 그 첫번째 시간이였습니다.

조선일보의 대북험담을 따져본다(2)

-이북이 반테러전쟁에 동참하지 않는다고 시비한 것과 관련해-

구국의 소리, 주체91(2002)년 1월 16일, 19일

연속대담 ≪조선일보의 대북험담을 따져본다≫ 오늘은 그 두번째 시간입니다.

역시 김현규씨 모셨습니다.

사회자 : 안녕하십니까.

김현규 : 안녕하십니까.

사회자 : 전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조선일보가 지난 3일자에 ≪6.15이전으로 환원한 북의 신년사≫라는 제목으로 이북의 당보, 군보, 청년보가 새해에 즈음해 발표한 공동사설을 시비하는 사설을 실은 것과 관련해서 얘기 나눴으면 합니다. 전번 시간에는 조선일보가 이북의 공동사설에서 우리 수령제일주의, 우리 사상제일주의 등 4대제일주의와 자주, 외세배격을 강조한 것을 시비한데 관해 얘기를 나눴는데요. 오늘은 이날 조선일보가 사설을 통해 이북이 이른바 국제반테러전쟁에 동참안한다고 비난한데 대해 얘기를 나눴으면 합니다. 먼저 조선일보가 이와 관련한 이북의 공동사설을 어떻게 비난, 시비했는가 하는 것부터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현규 : 3일자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지금 전세계는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가장 중요한 의제에 몰두해 있다. 북은 여기에서 예외로 될수 없다. 더구나 북은 핵과 미사일 및 막대한 화생방무기때문에 세계로부터 주시를 받고 있는 처지이다. 그렇다면 북은 반테러라는 새로운 국제질서에 편승해 자신들의 입지를 구축해가는 것이 현명한 태도일테인데도 폐쇄의 울타리만 높이는 어리석음을 저지르고 있다.≫ 이렇게 비난하며 험담을 늘어놨는데요. 이 말은 결국 이북이 미국이 주도하는 이른바 반테러전쟁에 동참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현명한 태도이다, 이 말이죠. 그야말로 앞뒤를 가려보지 못하는 천치만이 할수 있는 그런 어리석은 궤변이라 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세상이 다 아는 것처럼 이북은 일체의 테러를 반대한다는 것을 한두번만 천명하지 않았습니다. 또 실천으로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짜 테러주범은 미국이고 미국은 테러왕초국입니다. 루뭄바 콩고대통령을 암살한 것도 바로 미국이고 사회주의를 지향하던 알옌데 칠레대통령을 살해케한 것도 미국입니다. 그들의 비위를 맞추지 않는다고 해서 그레나다와 파나마를 무력으로 공격한 국가테러도 미국이 공공연히 자행했습니다.

사회자 : 그 뿐이 아니죠. 미국은 적지 않은 나라 테러분자들을 법적으로 보호해주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미국 플로리다주는 반쿠바테러분자들의 안식처로 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미중앙정보국의 지원으로 자금을 받고 훈련시키는 사무소들과 조직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 테러집단들은 쿠바비행기납치, 아바나호텔폭파, 라울 카스트로를 비롯한 쿠바의 반정부요인들을 암살하기 위한 테러행위들을 수없이 감행했습니다. 미국에는 과테말라에서 수천명의 무고한 국민들을 학살하고 고문한 죄로 기소되고 이나라 정부가 계속 넘겨줄 걸 요구하고 있는 전국방장관 엑토르도 거주하고 있고 수천명의 무고한 민간인들을 학살한 엘살바도르 전 군참모장 호세 가르시아도 미국에서 안식처를 찾았습니다.

김현규 : 그 뿐이 아니죠. 미국정부는 테러범인 전 아이티내무장관 룩스 카미로니와 전 칠레정보국 밀정 아르만도 라레유스 그리고 아르헨티나의 악명높은 테러분자 고르지 아자쿠, 에티오피아의 극악한 테러분자 키바사 니자바, 91년 동티모르에서 산타카를로스살육의 정본인인 인도네시아의 악명높은 테러분자 사를 반자탄도 미국에서 법적 보호를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 땅에서도 거의 매일 테러를 감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들의 첩자 안두희를 시켜 백범 김구선생을 살해한 것도 바로 미국이죠. 미국 양키들이 이 땅에서 테러를 자행하면서 얼마나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내고 있습니다. 앞서 얘기됐습니다만 미국이야말로 테러주범이고 그 왕초입니다. 그러면서도 저들은 테러와는 하등 관계가 없는 것처럼 떠들면서 9.11사건을 좋은 기회로 삼아 이른바 테러박멸이라는 구실하에 아무런 근거도 없이 아프간에 대한 군사공격을 감행해 탈레반정부를 전복했는데요. 이 과정에 미국은 수천명의 아프간의 무고한 주민들을 죽였습니다. 사실 미국의 아프간공격은 국가테러입니다. 그런데 더욱 문제는 이 더러운 이른바 반테러전쟁을 계단식으로 확대하려 하는 것입니다.

사회자 : 네, 그렇습니다. 미국은 테러와는 싸워야 한다는 세계 모든 나라들의 공통적인 의견을 저들의 불순한 목적으로 벌이고 있는 이른바 반테러전쟁을 정당화하고 확대하는 근거로 삼으면서 비위에 맞지 않는 나라들을 공격하려 하고 있는데요. 미국



은 심지어 이북도 공격할수 있다는 것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의 반테러전쟁의 확대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는 물론 미국의 맹방이라고 하는 영국과 프랑스도 반대하고 있죠. 호세 아난 유엔사무총장도 미국이 반테러전쟁을 확대하는 것을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같은 정세를 보지않고 철저한 반테러국가인 이북을 비난하면서 불순한 정치, 경제적 목적이 숨어 있는 미국의 이른바 반테러전쟁에 동참안한다고 시비하는 조선일보야말로 사대매국을 해도 지독하게 하는 어용매문지, 사대매춘지가 아닐수 없다고 봅니다.

김현규 : 매일매시각 제 나라 땅에서 자행되는 미국놈들의 테러행위에 대해서는 항변 한마디하지 않으면서 도리어 테러에 대해 철저한 이북에 대해 시비, 모해하는 조선일보의 비열한 작태는 절대로 용납될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조선일보가 이북이 마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거나 개발하고 있으며 방대한 양의 화생방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떠들면서 험담을 늘어놓은 겁니다. 이것 역시 이북의 날로 높아가고 있는 권위와 위신을 깎아내리기 위한 모략이고 음해행위외 다른 아무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이북은 조미합의에 따라 이미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연구와 개발을 중단했고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을 정상적으로 받아왔습니다. 순전히 자의적 목적으로 개발하던 장거리미사일발사시험도 중단했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죠. 그리고 화생방무기는 생산도 보유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북은 한두번만 밝히지 않았습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북을 걸고 들며 시비하니 그게 사회의 목탁으로써 진실을 생명으로 여기는 신문으로써 할 행위입니까.

사회자 : 응당한 지적을 하셨는데요. 원래 조선일보는 우리 말로 편집되지만 남을 위한 어용매문지입니다. 그건 왜정때 조선일보가 한 행위와 8.15이후 누구를 대변했는가를 따져보면 잘 알수 있다고 봅니다. 왜정때 조선일보는 일제의 황국신민사상을 주입하는데 앞장섰고 내선일체를 가장 많이 떠들었습니다. 일제가 패망한 이후 조선일보는 즉시 변신해서 친일일변도로 나갔고 미국의 식민지파쇼통치를 위한 도구로 적극 봉사하지 않았습니까. 조선일보가 언제한번 민중의 요구를 대변해서 글을 쓴 적이 있어요? 이런 극악한 반민족 악지다 보니까 테러문제에서도 바른 소리를 하지 않고 논리가 맞지 않고 비뚤어진 소리만 하는 겁니다.

김현규 : 네, 그렇죠. 조선일보편집집단이 조금이라도 민족적 양심이 있다면 미국의 범죄적인 이른바 반테러전쟁에 이북이 동참하지 않는다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반대로 미국이 확대하려고 하는 반테러전쟁의 저의를 폭로하고 이 땅에서 연일 자행되고 있는 주한미군의 테러행위를 고발, 단죄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자 : 네, 옳은 말씀이십니다. 지금 사람들은 조선일보는 그 매국배족적인, 체질적인 특성으로부터 국민의 편으로, 민족의 편으로 쉽게 돌아설수 없다면서 차라리 없어지는 게 낫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지당한 주장이라고 봅니다. 시대정신에 민감해야 할 신문으로써의 사고가 화석처럼 굳어진 조선일보, 국민의 버림을 받는 조선일보는 하루빨리 자폭해야 합니다. 이걸 우리 국민은 간절히 바라고 있죠.

그럼 다음 시간에 얘길 계속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만 마칠까 합니다. 지금까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현규 : 네, 감사합니다.

사회자 : 연속대담 ≪조선일보의 대북험담을 따져본다≫ 오늘은 그 두번째분을 보내드렸습니다.

조선일보의 대북험담을 따져본다(3)

-공동사설에서 남북관계개선에 아무런 청사진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시비한 것과 관련해-

구국의 소리, 주체91(2002)년 1월 17일, 20일

연속대담 ≪조선일보의 대북험담을 따져본다≫ 오늘은 그 세번째 시간입니다.
역시 김현규씨 모셨습니다.

사회자 : 안녕하세요.

김현규 : 네, 안녕하십니까.

사회자 : 전번 시간에 이어 이번 시간에도 조선일보가 지난 3일 사설을 통해 이북의 당보, 군보, 청년보가 새해에 즈음해 발표한 공동사설을 시비한 것과 관련해 얘길 나눴으면 하는데요. 전번 시간엔 조선일보가 이북이 미국이 주도하는 이른바 반테러전쟁에 동참하지 않는다고 시비한 것과 관련해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은 조선일보가 이북에서 공동사설을 내면서 남북관계개선에 대해서 아무런 청사진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시비한 것과 관련해 얘기 나눴으면 합니다. 먼저 조선일보가 이북의 공동사설을 어떻게 시비하며 험담을 늘어놨는지 그것부터 간단히 말씀해주시고 얘기를 진전시켰으면 합니다.

김현규 :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북은 신년사에서 남북관계개선에 대해서는 아무런 청사진도 제시하지 않았다. 도리어 남한에 대해 주적론을 철회하고 보안법을 철폐해야하며 민족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반역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6.15이전보다 더 강경한 입장으로 돌아서는 형편이다.≫ 이렇게 시비했는데요. 그야말로 인식이 화석화된 조선일보만이 할수 있는 궤변이라 하겠습니다. 이북의 공동사설에 접한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번에 이북에서 공동사설을 통해 내외의 분열주의세력들의 책동에 의해 조성된 난국을 타개하고 조국통일의 결정적 국면을 열기 위한 합리적이고 실천성이 있는 방도와 남북간의 관계개선을 좋은 청사진을 제시했다고 찬사를 아끼지 않으며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 언론들에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북이 공동사설을 통해 뜻깊은 올해 조국통일의 결정적 국면을 열기 위해 제시한 과제와 방도 그리고 남북관계개선을 위해 제시한 청사진이 어떤 것인가 하는 건데요.

김현규 : 이북의 공동사설에서는 올해에 우리는 민족자주의 기치밑에 조국통일의 결정적 국면을 열어나가야 한다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6.15남북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을 존중하고 옳게 구현하며 침략과 전쟁책동을 반대하고 전쟁위험을 제거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공동사설은 온 민족이 우리 민족끼리 조국을 통일하자라는 자주통일의 구호를 더높이 치켜들고 모든 것을 민족공동의 이익에 복종시키며 사대와 외세의존을 배격하고 민족공조를 실시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동족을 모해압살할 것을 노린 주적론을 철회하고 반통일파쇼악법인 국가보안법을 철폐해야하며 외세에 민족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반역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침략과 전쟁책동을 반대하고 전쟁위험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우리 온 민족이 호전세력들의 침략과 전쟁도발책동을 저지파탄시키고 나라의 평화와 민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과감히 나서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공동사설은 올해 통일운동의 목표와 방향, 그 방도가 명백히 밝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사설에는 올해 경직된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방도도 명백히 제시되어 있다고 봅니다.

사회자 : 그렇습니다. 이북의 공동사설은 6.15공동선언은 오늘도, 내일도 조국통일의 이정표라고 하면서 올해 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강조했는데요. 이건 올해 이북이 이미 공동선언에서 천명한 것처럼 교류협력을 더욱 활성화하는 등 남북관계를 개선할 의지를 밝힌 거라고 봅니다.

김현규 :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북은 공동사설을 통해 우리 민족은 6.15공동선언을 말살하려는 안팎의 분열주의세력의 책동을 단호히 짓부수고 남북관계가 단합, 통일에로 나아가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하면서 호전세력들의 침략과 전쟁책동을 저지파탄시키기 위한 투쟁에 온 민족이 나설 것을 호소했습니다. 이것 역시 올해 이북이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기 위한 의지를 보여주고 그 방도를 제시한 것이라고 봅니다. 왜 그렇게 말할수 있는가 하면 지난해 남북관계가 악화되고 협력과 교류가 응당한 차원에서 진행되지 못했을뿐 아니라 이미 합의한 문제도 잘 이행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시다시피 그 이유는 바로 6.15공동선언의 이행을 바라지 않는 내외분열주의세력의 책동때문이였죠. 이북을 침공해 한반도전체를 그들의 식민지군사기지로 장악하려는 것은 미국의 변함없는 대한반도침략전략인데요. 이러한 침략전략실현에 광분하는 미국이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나라를 통일할 것을 기본사상으로 하는 6.15공동선언이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할리 만무하죠. 미국 부시행정부는 출범하자마자 대북압살의 도수를 더욱 높이면서 당치않은 구실을 내대면서 북침

전쟁책동을 강화했는데요. 특히 9.11사건이후 미국은 이북을 공격할 움직임을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내보이면서 정세를 고의적으로 격화시켰습니다.

사회자 : 거기에 이 땅의 대미추종세력이 이른바 테러위험을 막는다는 구실로 전국에 비상경계령까지 내려서 정세를 더욱 험악하게 만들었죠.

김현규 : 그렇죠. 한미호전세력의 그와 같은 반북적대시책동으로 인해 한반도의 정세가 격화되고 그래서 남북관계도 악화된게 아닙니까. 지난해 남북관계가 악화된 이같은 원인을 타진하고 남북관계개선을 바라는 우리 겨레의 의지와 염원을 반영해 이번에 이북에서는 남북관계를 악화시킨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방도로써 안팎의 분열주의자들의 책동을 단호히 짓부숱데 관해서와 호전세력들의 침략과 전쟁책동을 저지파탄시키기 위한 투쟁에 온 민족이 나설 것을 강조한 겁니다. 이렇게 보면 결국 이번에 이북이 공동사설을 통해 남북관계개선을 위한 청사진도 명백히 제시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는 공동사설이 남북관계개선에 대해 아무런 청사진도 제시하지 않았다며 시비했는데요. 그야말로 남을 헐뜯고 시비하는 것이 체질화된 조선일보만이 할수 있는 행위라고 봅니다. 사회자 :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할 문제가 있는데요. 그건 이번에 조선일보가 이북이 공동사설을 통해 반북 주적론의 철회와 극악한 국가보안법의 철폐를 주장한데 대해 시비한 거라고 봅니다.

김현규 : 옳은 문제를 제기했다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조선일보가 철회를 반대하는 주적론이란게 어떤 겁니까. 한마디로 말해 이북을 때려잡을 첫번째 대상이라는 거 아닙니까. 통일하겠다며 통일하고 함께 살 동족인 이북을 때려잡을 주적으로 규정하고 그 철회를 한사코 반대하는 건 결국 조국통일을 안하겠다는 것이고 이북을 때려잡기 위한 전쟁을 반드시 하겠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국가보안법이 어떤 법입니까. 천하에 둘도 없는 반통일파쇼악법이죠. 국가보안법을 철폐하지 않고서는 통일은 고사하고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도 할수 없다는 게 누구에게나 명백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물론이고 미국 정객들까지 국가보안법의 철폐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조선일보는 이북이 공동사설을 통해 대북 주적론의 철회와 국보법을 철폐를 주장했다고해서 악랄하게 비방중상했으니 사람들이 어찌 분격하지 않을수 있겠습니까. 조선일보가 시대도 변하고 세기도 바뀐 오늘까지도 구시대의 간판에 유물인 주적론과 국보법의 철회와 철폐를 방해하는 것이야말로 반통일사고에 굳어진 구시대적 작태라 아니할수 없죠.

사회자 : 지금 사람들은 조선일보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래 외세를 배격하고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조국을 통일하자는 게 그렇게 못마땅하며 통일의 장애물이고 우리 민족의 모든 불행과 고통의 화근인 주한미군을 철수시키자는 것이 그렇게 가슴 아픈가. 조선일보편집집단에게 통일의지는 고사하고 민족적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는가.≫라고 묻고 있는데요. 조선일보는 이에 즉시 답변해야 합니다.

김현규 : 네, 옳게 지적했는데요.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 조선일보를 가장 문제심각한 신문으로, 가장 거짓말을 잘하는 신문 그리고 가장 저급한 신문이라며 조선일보배척운동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건 정당하다고 봅니다. 조선일보야말로 남북대결을 고취하고 동족간의 불화를 조성하면서 통일의 장애를 조성하고 있는 극악한 반민족반통일 어용매문지입니다. 6.15공동선언이전으로 환원하는 것은 이북이 아니라 바로 조선일보입니다.

사회자 : 조선일보가 민족과 민중을 등지고 사대매국을 하면서 역적질만 일삼으면 국민들로부터 버림을 받는건 당연하죠. 조선일보편집집단은 반역만을 일삼으면서 그따위 서푼짜리 사설이나 할바에는 차라리 붓을 꺾어버리는게 나을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조선일보를 반드시 매장하고 말겁니다. 지금까지 세번에 걸쳐서 새해에 즈음해 발표한 이북의 공동사설을 시비하며 험담을 늘어놓은 조선일보의 비열하고 반민족반통일적 작태에 관해 얘기 나눴는데요. 지금까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현규 : 감사합니다.

사회자 : 연속대담 ≪조선일보의 대북험담을 따져본다≫ 오늘까지 세번에 걸쳐서 김현규씨와 함께 얘기를 나눠드렸습니다.

김종필자민련총재
16대 대선 출마 공식선언과 관련해

구국의 소리, 주체91(2002)년 1월 19일

이미 보도가 됐습니다만 김종필자민련총재는 15일 대전에서 열린 자민련 신년모임연설에서 내각책임제를 실현하기 위해 16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겠다고 공식선언했습니다.

지금 이와 관련해 국민들은 크게 분격하면서 그의 대선출마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천백번 정당하다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김종필로 말하면 심복의 종에 맞고 이미 저세상으로 간 박정희와 함께 5.16군사쿠데타로 정권을 강탈한 주역이고 유례없이 악독한 군사파쇼독재를 실시하면서 이 땅을 민주의 불모지, 인권의 사각지대로 만든 유신본당입니다.

그는 지난 65년에 있은 한일회담때 중앙정보부장으로 일본에 건너가서 당시 일본 외상이였던 오히라와 협상을 벌이고 매국배족적이고 굴욕적인 한일협정이 체결되도록 한 매국노, 친일역적입니다.

김종필은 중앙정보부장 재직시 수많은 애국민중들을 탄압처형하는데서 악명을 떨친 살인마, 교형리입니다.

김종필은 이미 자기가 저지른 만고대죄로 하여 역사와 민중의 준엄한 심판을 받고 역사의 오물장에 매장됐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살아남아 다시 정계에 나타나 과거 박정희군사파쇼독재시기에 그에 기생하며 활약하던 자들을 끌어모아 우익보수정당을 만들고 그 총재로 있으면서 이 땅의 자주화와 민주화, 나라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음으로 양으로 반대하며 그에 제동을 걸어왔습니다.

그가 주한미군철수 등 민중의 반미투쟁과 극악한 반통일파쇼악법인 국가보안법의 철폐를 앞장서 반대하며 민족의 자주통일을 한사코 거부하고 있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김종필은 우익반통일수구세력을 규합해 민족의 자주통일선언이고 21세기 통일이정표인 6.15남북공동선언이행에 인위적으로 난관을 조성하면서 그것을 백지화하려고 책동하고 있습니다.

그가 신보수정당을 창당하려고 하는데는 16대 대선에서 보수세력의 힘을 빌어 당선되어 정권을 잡고 이 땅에 다시 파쇼독재의 체제를 구축하려는 불순한 범죄적 기도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이같이 5.16군사쿠데타의 주역이고 유신본당이며 극악한 사대매국노, 반민주, 반통일역도가 감히 16대 대선에 출마하려하는 것이야말로 민중에 대한 용납못할 음모이고 모독이 아닐수 없습니다.

김종필이 내각책임제실시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그걸 위해 부득이 자기가 대선에 출마하게 된다고 떠들어댄 것은 대권욕을 채우기 위한 구실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각책임제가 좋은지 나쁜지는 자주, 민주, 통일의 견지에서 국민들에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역사를 거스르고 민족과 민중을 등진 자들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가는 이미 이승만과 박정희의 말로가 잘 보여주었습니다.

김종필은 자기의 처지를 알고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김종필은 주제넘게 내각책임제를 운운하며 대선에 출마하려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포기하고 정계에서 완전히 손떼야 할겁니다.

리회창이 집권하게 되면 공동선언 리행될 수 없다

조평통서기국 ≪년두기자회견≫ 규탄

(평양 1월 21일발 조선중앙통신)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은 20일 남조선의 ≪한나라당≫ 총재 리회창이 지난 17일에 이른바 ≪년두기자회견≫이라는데 나타나 북남관계개선을 반대하고 우리를 걸고드는 망발을 늘어 놓은것과 관련하여 이를 규탄하는 보도 제814호를 발표하였다.

보도는 리회창이 이번에 새해벽두부터 비위도 좋게 마치 ≪대통령≫이라도 될듯이 허세를 부리면서 북남관계와 관련한 현당국의 립장을 헐뜯다 못해 북남관계에서 앞으로 ≪전략적상호주의, 국민적합의와 투명성, 검증≫이라는 이른바 ≪3가지 원칙≫을 지킬것이라고 떠벌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특히 우리가 문제시하지 않을수 없는것은 그가 주제넘게도 감히 우리를 걸고 들면서 ≪테로≫와 어찌해야 한다느니 ≪대량파괴무기문제의 해결≫에 어찌해야 한다느니 하는 따위의 망발로 우리를 심히 자극한 행위이다.

그는 이로써 사실상 미국상전에 아부하는 몇푼어치도 안되는 자기의 너절한 인간쓰레기의 본색을 또다시 여지없이 드러냈다.

북남관계개선과 조국의 평화적통일에 대해서는 안중에도 없는 리회창과 같은 반통일분자가 집권하게 되면 온 민족의 념원에 맞게 6.15공동선언이 리행될수 없으며 조선반도에서 군사적긴장상태가 격화되고 결국은 전쟁의 참화밖에 가져 올것이 없다는것은 명백하다.

리회창은 자기의 반민족적죄행에 대해 민족앞에 똑똑히 사죄하여야 한다.

남조선인민들은 6.15북남공동선언의 실천을 위해 리회창따위의 반북, 반통일세력들을 단호히 심판하고 가차 없이 매장해 버려야 할것이다.

이회창 한나라당총재 연두기자회견의 사대주의적 발상 규탄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는 1월 17일 새해 연두기자회견에서 미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입장과 대북 정책의 원칙을 밝히면서 스스로의 무지와 반통일적 관점을 또한번 명확하게 드러냈다.

첫째 이회창 한나라당총재가 기자들과의 대담에서 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잘하고 있다고 본다≫면서, ≪남북 교착상태 원인을 부시행정부의 강경노선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북 쪽의 생각≫이라고 하였다. 이 총재는 ≪클린턴 정권 말기부터 이미 북은 남북관계를 닫은 것≫이라고 밝히면서 부시행정부에 면죄부를 주려고 대단히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모두가 다 아는 사실에 대한 완전한 왜곡이다. 부시행정부의 등장과 한미정상회담이후 장관급회담 등 모든 남북당국자간의 관계가 얼어붙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칠천만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이다. 클린턴 시절,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는 급진전되었으며 클린턴은 대통령 임기가 끝나기 직전 실제로 방북을 구체적으로 추진하다가 선거개표과정에 일어난 시비사태로 맞게 되면서 부랴부랴 일정을 취소한 바 있다. 클린턴 대통령의 방북이 추진될 정도로 북, 미사이의 관계의 급진전이야말로 남북관계에도 좋은 영향을 미쳤던 것을 그 누가 부정할 수 있을까! 이러한 흐름이 부시의 등장으로 된서리를 맞게 되었고 남한의 모든 국민들은 한동안 이 분노를 달래느라 고심했던 작년 3월의 한미정상회담이후의 분위기를 우리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이것이 엄연한 진실임에도 불구하고 이회창 총재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우면서 까지 부시를 옹호하려고 애를 쓰니 이 얼마나 볼상사나운 노릇인가

대권에 눈이 멀어 미국에 조금이라도 아부하려는 사대주의적 발상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이렇게 철면피한 사실왜곡을 공개적으로 발언할 수 없다.

두 번째 이회창 한나라당총재는 대북정책의 원칙으로 ≪전략적 상호주의≫, ≪국민적 합의와 투명성≫, ≪검증≫을 제시하였는데 전략적 상호주의와 검증이란 부시의 대북입장과 완전히 일치하는 입장이다. 즉 상호주의란 국가와 국가사이의 관계에서 제기되는 원칙이지 한민족의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북을 바라보는 입장일수 없다.

나아가 부시는 최소한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외시한 채 미국의 편파적인 잣대를 이북에 강요하면서 마치 그것이 공정한 상호주의인양 주장한다는 것은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다. 생각해보라 지난 80년대 우리나라에서 수해로 국민들이 고통스러워했을 때, 이북에서는 자신들이 먹을 식량을 우리에게 보내주는 민족애를 보여주었다. 이때 이북은 그에 대한 대가로 그 어떤 것도 바라지 않았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특히 이회창 한나라당총재와 한나라당은, 쌀을 비롯한 경제적 지원에 대해서도 군수용으로 될 수 있다며 제동을 걸고 경제지원을 봉쇄하기도 하였다. 검증에 대해서도 우리는 같은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우리는 검증자체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서로간에 불신을 가중시키며 시비를 걸기 위한 검증인가 아니면 민족간의 화해와 협력을 높이기 위한 검증인가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까지 미국이 주장하던 검증은 전자의 측면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자신들은 마치 초월자의 입장에서 대단히 공정한 정의의 수호자인양 자처하는 이러한 발상자체가 우스울 뿐만 아니라 미국은 단 한번도 이북과의 약속을 지킨 적조차 없다. 이러한 미국이 계속 검증을 들고 나오는 것은 이북에 굴종을 강요하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회창 총재가 또다시 검증의 원칙을 들고 나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미국의 시각을 일방적으로 선호하고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준다.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는 원칙적인 대북정책이라며, 이러한 원칙을 제시하였는데, 원칙적인 대북정책은 민족적 입장에서 이북을 바라보고, 민족공조, 화해협력의 기치아래 민족이 대단결하기 위한 것으로 될 때에만 올바르다.

그런데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는 민족의 단결을 결사적으로 가로막는 미국에 추종하는 사대주의적 입장을 얼마나 추종하고 있는지 참으로 한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민족과의 단결과 단합이 아닌 이러한 외세추종주의, 사대주의자가 야당의 총재라고 하는 사실에 우리는 큰 수치감마저 느끼게 된다.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는 이제라도 정신차리고 민족의 통일과 민주주의를 바라는 국민적 염원을 똑바로 바라보아야 한다. 지금처럼 6·15남북공동선언을 파기하는 것과 같은 민족 분열적 입장, 미국추종 사대주의적 입장을 고수한다면 그가 바라는 대권은커녕 국민들로부터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우리는 엄중히 경고한다.

2002년 1월 18일
6·15남북공동선언실현과 한반도평화를 위한 통일연대

≪투지≫불태우는
전국 25개시도의 ≪물총 독립군≫

안티조선 선봉대≪물총독립군≫, 옥천서 결의대회 열어



전국의 물총독립군이 안티조선운동의 성지 옥천에 모였다. 19일 초저녁, 안티조선을 외쳤던 성과를 안고 옥천 한 호텔의 연회장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오랜만에 만난 이들은 군데군데 모여 담소를 나누었고, 10시 가까이 되어서야 본 행사가 물총 독립군 전령을 자처하는 조만희 씨의 사회로 막을 올렸다.

본 행사 전 잠깐 모습을 드러낸 옥천신문 대표 오한흥 씨는 ≪실사해 본 결과 옥천에 조선일보 여섯 덩어리 약 육백부가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조선일보 절독운동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동굴폭격만이 남았다≫며 이번 대회의 의미는 실천의 의지를 다지는 것에 있음을 역설했다.

축하 인사자로 나온 조선일보 반대시민연대 대표 김동민씨는 ≪강자의 편에 서서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는 조선일보는 우리 강산이 잿더미가 되건 아랑곳없다. 고로 반 조선운동은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는 운동이다≫라는 말을 전했다.

이어 ≪조선일보 없는 아름다운 세상(이하 ≪아름다운 세상≫)≫의 저자인 전정표 물총운영자는 ≪물총운동 사업이 25개 지역 지부로 확대되었고, 옥천에서 50퍼센트 정도의 조선일보 절독의 성과를 올렸다≫며 물총운동의 경과보고를 한 후, 물총 독립 운동을 공고히 하기 위해 조선일보 발매 부수의 두 배로 ≪아름다운 세상≫을 발매하여 효과적으로 절독운동을 해 나가는 데 중점을 두겠다며 새해 계획을 말했다. 그는 또한 기존 물총운동 지부를 공고히 하고 대표자급 모임을 정례화 하는 한편, 전국 40개 이상으로 지부를 확대해 나간다는 새해 계획을 밝혔다.

첫 주제 발표자로 나선 정지환 ≪말≫지 기자는 옥천이 새로운 시민운동의 전형이 되어 남해, 한탄강 지역(포천), 여수, 안성 등에서 지역 주민운동이 상호 경쟁적으로 선전하고 있다며 진보운동이 아래로부터 행해지고 있음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방송 연예인 중에서 물총 운동에 대표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명계남씨가 ≪예술인들이 본 물총 독립군 운동과 참 세상 만들기≫를 주제로 발표를 했다. 그는 ≪이문열 표현대로 라면 전국의 친북세력이 모인 자리인데, 북한을 적으로만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과 한 공기를 마시는 것만으로도 화가 난다. 임시정부 하나 세워서 좀더 적극적 운동을 해 나가야 한다. 우리라고 알카에다 하나 못 만들겠느냐≫ 라며 청중의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냈다. 또한 그는 대학생을 비롯한 젊은이들이 이런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널리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책 반환운동을 주도하였던 이문열돕기운동 화덕헌 본부장은 ≪150여명이 참여하여 733권의 책이 걷혔으며, 이문열씨 집 앞에서 무료 반환을 요구했으나 거절하자 고물상에 권당 십원에 팔아 넘겼다≫고 과정을 밝혔다. 그는 운동 당시에는 곳곳에서 협박성 전화나 메일을 자주 받아 본인 외 가족까지 많이 힘들었지만, ≪이문열 이라는 조선일보의 포장지이자 급소≫를 타격했다는 것과 한국 문학계에 반성을 이끌었다는 점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이상 주제 발표 외에 21지부 전국 각지에서 모인 물총독립군 활동 및 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시간도 진행되었다.

대전 민언련 우희창 사무국장은 ≪지속적인 1인 시위와 시민가족걷기 대회 및 명계남 초청 강연회 등을 해오고 있다며, 옥천의 성과를 100만 이상의 대도시에서도 나타나도록 하는 시험적인 운동을 해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대전에서 음식 배달업을 하는 한 물총 독립군은 ≪배달오토바이에 ≪조선일보 이제는 끊읍시다≫라는 표시를 달고 다니는데 이게 텔레비전 100대 이상의 효과가 있다≫라고 말해 참가자들의 폭소를 자아냈다.

이상의 1부 행사는 이문열의 안티조선 친북세력 관련 언급의 사죄를 촉구하는 성명서로 마무리되었다.

2부에서는 ≪아름다운 세상≫ 출간의 의미 및 활용방안을 모색해 보는 자리가 계속되었다. 이 시간에는 민언련 성유보 이사장의 책 소개와 격려사가 있은 후, 지은이의 인사말이 이어졌다. 이어 안티조선운동의 성과와 1월 30일에 있을 조선일보를 대상으로 한 모의 민간법정에 대한 이야기 등으로 2부가 마무리되었다.

새벽 1시가 넘어서야 본 행사를 마무리하였지만, 언론개혁이 최우선이라는 뜻으로 모인 물총 독립군들은 지금도 3부, ≪친교의 시간(이 기긴밤을 여이 하리)≫을 같이 하고 있다.

전대기련 충북지부 공기단
2002년 1월 20일 ©2002 Unews

조선일보를 ≪민간법정≫에 세운다



조선일보의 반민족, 반통일 행위를 심판하는 ≪민간법정≫을 준비하는 사회단체들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24일 오전 11시 ≪조선일보 반민족 · 반통일 행위에 대한 민간법정 추진위원회≫(민간법정 추진위)는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민간법정 헌장 선포 및 공개적 기소장 전달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은 그동안 민간법정을 준비해 온 경과보고와 민간법정 헌장 발표, 조선일보의 반민족, 반통일 행위에 대한 기소장을 낭독하는 순으로 이루어졌다.

이종린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이 낭독한 조선일보의 반민족 · 반통일 행위에 대한 ≪민간법정 헌장≫을 통해 민간법정 추진위는 ≪식민과 분단, 독재로 얼룩진 역사를 청산하고 희망과 도약의 새 역사를 열기 위해서 언론개혁이 중요하다≫며, 그 첫번째 시도로 ≪친일행위에 앞장서고 독재정권에 기생해왔던 조선일보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 한다≫고 민간법정의 취지를 밝혔다.

또, 민간법정 추진위는 ≪민주개혁과 평화통일의 이념에 입각하고 해방 후 반민족 행위자 처벌을 위한 특별법의 정신을 계승하여 민간법정의 준거를 마련하기 위한 헌장을 채택한다≫고 헌장채택의 의의를 설명했다.

이후 ≪조선일보의 반민족, 반통일 행위에 대한 기소장≫을 낭독한 민간법정 검사 최규엽 민주노동당 자통위원장은 ≪조선일보는 1969년 이승복 군의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날조보도, 금강산댐 관련보도, 최근 벌어진 ≪만경대 보도≫ 파문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조국통일운동을 가로막아 왔다≫며 조선일보의 반민족, 반통일 행위를 기소했다.

한편, 이례적으로 이번 민간법정에서 조선일보의 변호를 맡은 김동민 조선일보반대 시민연대 상임대표는 객관적인 변론이 가능하겠느냐는 질문에 ≪공개적 자리에서 조선일보를 변호할 사람은 없겠지만, 최대한 조선일보의 시각에서 변호를 하겠다≫고 밝혔다.

오종렬 전국연합 상임의장은 ≪몇몇 변호인들이 심층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다. 뛰어난 변호인들이라 재판부가 판결을 내리는데 있어 곤혹스러울 것 같다≫고 덧붙여 취재진의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민간법정 추진위 대표단은 기소장 전달을 위해 광화문 조선일보 본사로 찾아갔지만 셔터문을 내린 조선일보사에 기소장을 전달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명계남 민간법정 추진위 운영위원장은 ≪조선일보가 우리의 뜻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생각한다. 민간법정에서 조선일보의 반민족, 반통일 행위를 심판해서 국민여론을 환기시킬 것이다≫고 말했다.

이번 ≪조선일보 반민족 · 반통일 행위에 대한 민간법정≫은 그동안 진행되어온 각계각층의 조선일보 반대활동과 여론을 하나로 모아내고, 조선일보의 반민족, 반통일 행위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준비되고 있다.

민간법정은 30일 오후 1시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장동렬 기자 (tongil@tongilnews.com)
통일뉴스 2002-01-24

동아대학교 총학생회 연대단체들 국가보안법 폐지 요구 성명 발표

구국의 소리, 주체91(2002)년 1월 16일

이미 보도된 것처럼 동아대학교 총학생회 연대단체인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북서지구 노조협의회 산하 13개 단체는 지난 11일 연명으로 성명을 발표하고 시대의 반인륜적 악법인 보안법을 폐지하고 한총련 이적규정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성명은 보안법이 이 땅에 자주, 민주, 통일운동을 이적으로 매도하고 제 민족을 적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대해 규탄하고 국가보안법폐지와 함께 반통일세력들이 물러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것은 대세의 흐름과 민의를 반영한 지극히 당연한 요구라 하겠습니다.

국가보안법이 가장 반민주적이고 반통일적인 시대의 악법이라는 것은 재론할 여지조차 없습니다.

특히 그 악법성을 열거한다면 국가보안법은 초보적인 사상과 언론의 자유는 물론 국민의 생존의 권리와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마저도 범죄시하고 있는 반민중적인 파쇼악법입니다.

이 악법으로해서 지난 시기 민중의 진보적인 사상과 언론활동은 무참히 유린되고 민중의 생존권을 위한 투쟁마저도 체제전복기도로, 반역행위로 왜곡되어 탄압의 대상으로 되어왔습니다.

특히 국가보안법은 동족인 이북을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남북의 화해와 통일을 위한 사소한 움직임까지도 범죄시해 통일의 길을 전면 차단하는 통일의 암적 존재입니다.

그것은 잠입탈출죄, 회합통신죄, 찬양고무동조죄, 편의제공죄, 이적단체구성죄를 비롯한 수많은 반통일죄목들을 만들어놓고 민중의 통일운동을 무참히 탄압해온 지난 역사적 사실이 잘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국가보안법의 서슬퍼런 칼날에 맞아 자주, 민주, 통일을 주장하는 각계층 애국민중들이 ***쓰러지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있는 것이 이 땅의 현실입니다.

세상을 둘러봐도 국가보안법과 같은 반인륜적이고 반통일적인 악법은 없습니다.

세계 많은 나라들과 유엔인권위원회, 세계인권대학, 국제사면위원회를 비롯한 수많은 국제회의들과 기구들 심지어 이른바 동맹국이라고 하는 미국내에서까지 국가보안법을 반인륜적인 악법으로 지탄하면서 그 철퇴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더욱이 남북은 2000년에 발표된 6.15공동선언을 통해 남북의 화해와 그를 통한 통일을 확약함으로써 국가보안법의 존재명분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국가보안법이 존재해 그 무슨 이적을 운운하며 우리 민중의 자주, 민주, 통일운동을 무참히 유린하고 있고 남북의 화해와 6.15공동선언이행에 엄중한 장애를 조성하고 있는 것은 실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같은 엄중한 사태가 바로 이회창을 비롯한 반통일보수세력들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때 동아대학교 총학생회 연대단체들이 국가보안법폐지와 함께 반통일보수세력들의 퇴진을 촉구해 나선 것은 악의 근원을 뿌리채 뽑아 버리려는 의지의 발현으로써 지극히 환영할만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현시기 국가보안법폐지여부는 이 땅의 민주화실현과 함께 6.15공동선언실천여부를 판가름하는 중차대한 민족적 문제라 하겠습니다.

국민여러분은 국가보안법이 그대로 존재하는 한 이 땅의 자주화와 민주화는 물론 남북의 화해와 조국통일도 결코 이루어질수 없음을 명심하고 국가보안법폐지와 그 유지를 꾀하고 있는 반통일세력들을척결하기 위한 투쟁에 더욱 과감히 나서야 할겁니다.

이회창을 비롯한 반통일세력들은 시대의 흐름과 국민의 의지를 똑바로 보고 더 큰 화를 당하기 전에 국가보안법유지책동을 당장 그만두고 물러나는 것이 좋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대에서 박종철군 15주기 추모제를 진행한 것과 관련해

구국의 소리, 주체91(2002)년 1월 17일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지난 13일 서울대 문화관 중강당에서 87년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경찰의 물고문끝에 숨진 고 박종철씨의 15주기 추모문화제가 열렸습니다.

장기정 서울대 인문대학생회장은 ≪열사의 숭고한 정신을 후배들이 적극적으로 계승해나가자는 의미에서 인문대학생회, 사회당 서울대학생위원회, 관악사회인연대 등 3개 단체소속 100여명의 서울대 재학생과 졸업생들로 지난해말 박종철열사 15주기 추모사업단을 구성해 문화제를 열게 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대 온몸 깃발되어≫라는 이름의 이날 행사는 학생과 사회인사 등 300여명이 모인 가운데 박씨의 아버지 박정기씨의 인사말, 박종철씨를 추모하는 영상물상영, 추모공연, 추모시낭독 등의 순서로 2시간정도 진행됐습니다.

박종철씨 15주기 추모제는 이 땅에서 고문을 추방하고 민주주의를 되찾으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박종철열사는 짓밟힌 민족의 자주권을 되찾고 통일독립된 새 사회를 안아오기 위한 반미반파쇼투쟁에 앞장섰던 열혈학생이였습니다.

그는 87년 1월 14일 파쇼경찰에 불법연행되어 남영동 치안본부대공분실에서 짐승도 낯을 붉힐 간악무도한 파쇼교형리들의 고문을 받다가 무참히 살해됐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는 21살이였습니다.

국민들은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을 놓고 이것은 경찰의 단순한 과실치사사건이 아니라 천부적인 인권, 국민의 기본권을 부정한 충격적인 중대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고문행위를 근절하지 않으면 국민이 마음놓고 살수 없고 국민의 생존권이 위태롭게 될수밖에 없다는 짙은 불안감을 갖게 하고 그런 국민의 마음과 인권옹호의 결의를 가다듬게 해주고 있다는데서 추모제가 갖는 의미가 크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종철군 추모제를 가진 국민의 행동의 바탕에는 현당국의 파쇼적 성격에 대한 강한 국민적 비판이 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당국도 선행 독재정권시기와 마찬가지로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해 투쟁하는 사람들을 닥치는대로 탄압하고 있으며 파쇼악법에 걸어 교도소와 구치소에 수감해놓고 각종 고문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할때 박종철군고문치사사건을 고발하는 것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민주화가 성취될때까지 내연될 근본적인 쟁점을 안고 있다는 문제성에 주목하고 그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청년학생들은 박종철열사의 숭고한 정신을 적극적으로 계승해 나가야 합니다.

학생들은 선배들이 교정과 거리에서 자주, 민주, 통일을 절규하며 투쟁하던 그 정신을 이어받아 각종 투쟁의 파고를 더욱 높여나가야 합니다.

당면해서 청년학생들은 희세의 파쇼악법인 국보법을 철폐시키고 폭압기구들을 해체시키기 위한 투쟁을 광범위하게 벌여나가야 합니다. 이렇게해서 선배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역사와 민족앞에 떳떳함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국보법철폐투쟁에 앞장서자

구국의 소리, 주체91(2002)년 1월 16~18일

희세의 반통일악법인 국가보안법.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을 받들고 온 겨레가 민족자주통일의 힘찬 진군을 내딛고 있는 지금에도 국가보안법은 반통일의 마지막 보루로 여전히 남아 있는데요. 더이상 이 파쇼악법을 용납하지 말아야 할겁니다.

그럼 이번엔 ≪국보법철폐투쟁에 앞장서자≫ 이런 제목으로 김현규씨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학생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북에서는 1월 1일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 TV를 통해 ≪위대한 수령님탄생 90돌을 맞는 올해를 강성대국건설의 새로운 비약의 해로 빛내이자≫라는 제목으로 ≪노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의 공동사설을 발표했습니다.

공동사설에서는 통일의 이정표인 6.15남북공동선언을 옳게 구현해 나가야 한다고 하면서 이 땅에서 통일의 암적 존재인 국가보안법을 철폐할걸 주장했습니다. 아주 정당한 요구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분격을 금할수 없는 건 최근 극악한 반공매문지인 조선일보가 국보법철폐를 주장한 북의 공동사설을 걸고드는 못된 짓을 한 겁니다.

이건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바라지 않는 조선일보와 같은 극우반통일세력의 대변지만이 일삼을수 있는 반통일적 행위로써 온 민족의 지탄을 받아 마땅합니다. 우리 청년학생들은 이제 더이상 6.15공동선언이행의 장애물인 국보법의 존재를 허용할수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해 6.15공동선언실천투쟁에 나섰던 제10기 남총련의장 최종은씨를 비롯해서 수많은 애국청년학생들이 국보법의 희생물로 체포, 투옥됐고 또 최근엔 범청학련 황선대변인이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가입과 이적표현물제작 등의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새해 민족자주통일운동에 나선 우리 청년학생들이 국보법에 의해 가혹하게 탄압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찌 우리 청년학생들이 6.15공동선언이행을 가로막는 이 반통일악법을 용납할수 있겠습니까. 청년학생들은 마땅히 국보법철폐투쟁에 과감히 떨쳐나서야 할겁니다. 그러자면 우선 6.15공동선언이행을 위한 투쟁을 국보법철폐투쟁과 밀접히 결부시켜 벌여나가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6.15공동선언이 발표된지도 2년이 되어오지만 그 이행에 주되는 걸림돌로 되고 있는 국보법 때문에 우리 민족의 자주통일운동에 난관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남북장관급회담을 비롯해서 여러 갈래의 회담이 수차례 진행됐고 화해와 협력, 통일을 지향하는 수많은 합의들이 이루어졌지만 국보법이라는 장애물로 인해 어느 하나도 제대로 성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6.15공동선언실천투쟁에 나선 이 땅의 애국학생들과 각계층 민중들이 국보법의 서슬퍼런 칼날에 맞아 죄아닌 죄를 쓰고 감옥에서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현실은 6.15공동선언이행을 위한 투쟁과 국보법철폐투쟁은 별개의 투쟁이 아니라 밀접히 결부해서 다같이 벌여나가야할 공동의 투쟁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보법철폐투쟁을 벌여나가는데서 중요한 건 또한 국보법철폐를 한사코 반대하고 있는 극우익반통일보수세력을 척결하기 위한 투쟁을 더 힘있게 벌이는 것입니다.

6.15공동선언의 발표로 국보법은 이미 자기의 존재가치를 상실했고 또 우리 국민의 절대다수가 그 철폐를 요구해 나서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국보법이 철폐되면 저들의 생존기반이 없어지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극우보수세력들은 어떻게하나 국보법철폐를 막고 미국에 빌붙어 분단에 기생하기 위해 광분하고 있습니다.

청년학생들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에도 이회창을 비롯한 극우반통일분자들을 척결하기 위한 투쟁의 불길을 더욱 거세게 지펴올려야 합니다. 이와 함께 반통일매문지인 조선일보반대투쟁을 국보법철폐투쟁의 궤도선상에서 강력히 전개해 나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 청년학생들은 6.15공동선언을 옹호고수하고 이행하기 위해 국가보안법철폐를 주장한 이북의 정당한 새해공동사설을 악의에 차서 비방중상한 조선일보에 대해 치솟는 분노를 금치 못해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야말로 극우보수세력과 함께 역사의 오물장에 처박아야 할 우리의 투쟁대상입니다. 청년학생들은 극악한 반민족반통일매문지인 조선일보를 폭파하기 위한 투쟁을 과감히 벌여나가야 합니다.

백만청년학생들은 반통일악법 ≪국보법철폐≫, 반통일분자 ≪이회창반대≫, 반통일매문지 ≪조선일보반대≫투쟁의 거족적 분출로 새해 첫 투쟁의 포문을 열어야 할 것입니다.

네,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청년학생들과 통일애국인사들이 피를 흘렸습니까.

통일을 외쳤다고해서 국가보안법에 철퇴를 맞았고 노동자, 농민이 자신의 생존권을 주장했다해서 감옥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우리 청년학생들은 과감한 투쟁으로 국가보안법을 철폐시키고 6.15공동선언이행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갈 겁니다.

양심수들을 무조건 석방해야

조수정 / 구국전선 제466호, 주체91(2002)년 1월 21일



지금 경향각지에서 양심수들을 석방하라는 각계의 목소리가 날이 갈수록 더욱 높아지고 있다.

최근 알려진 자료에 따르더라도 전국의 교도소, 구치소들에 수많은 양심수들이 엄동설한 차디찬 감방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

현재 이 땅에서는 북의 자주통일노선을 찬양하거나 지지공감하는 사람들, 민족자주통일을 위해 열심히 투쟁해 온 사람들, 심지어 생존권사수를 위해 투쟁에 나섰던 사람들까지도 ≪국가보안법≫위반에 걸려 체포, 구속되고 재판, 처형당하는 사실들이 보도되고 있다.

지난 3일 ≪보안수사대≫요원들은 10기 남총련 의장권한대행인 전남대학교 부총학생회장 김도형군을 ≪국가보안법≫위반으로 몰아 강제연행해 갔다.

이보다 앞서 지난해에는 10기 남총련 의장과 창원대학교 총학생회장, 서원대학교 총학생회장, 충남대학교 경상대학학생회장, 부산, 경남지역 대학총학생회연합 조국통일위원장 등 수많은 애국청년학생들을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해 투쟁했다는 죄아닌 ≪죄≫를 덮씌어 체포했다.

청년학생들만이 아니라 민족자주통일을 위해 투쟁한 각계의 통일애국인사들도 탄압의 대상으로 되고 있다.

검찰당국은 김규철씨 등 범민련 남측본부 성원 6명이 지난해 8월 평양에서 진행된 민족통일대축전에 참가해 ≪이적행위≫를 했다고 하면서 구속기소했고 ≪진보와 통일로 가는 서울민주노동자회≫의 노동운동가들이 단지 이북의 연방제통일방안을 연구했다는 이유로 구속하였다.

지난해 12월 20일에는 범청학련 남측본부 황선대변인에 대한 선고공판을 벌여놓고 그에게 징역 1년 6개월,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이것은 단지 몇가지 사례에 불과하다.

주지의 사실이지만 구속된 양심수들은 누구보다도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통일에 열렬한 애국자들이다.

우리 민중은 자주, 민주, 통일을 절규하고 있으며 양심수들의 석방과 그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당국은 이제라도 수많은 양심수를 산생시키는 반민주, 반통일악법인 ≪국가보안법≫을 즉각 철폐하고 구속된 양심수들을 지체없이 전원 석방해야 한다.

양심수석방은 법을 어긴 사람들에게 베푸는 은전이 아니다.

왜냐면 양심수들이 어겼다는 법은 국민의 기본권과 통일을 지향하는 시대정신에 어긋나는 반민주, 반통일악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의 석방은 바로 정의와 역사를 바로 잡는 일이다.

각계 애국민중은 반민주, 반통일악법인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석방을 위한 투쟁을 보다 가열차게 벌여나가야 할 것이다.



≪교수님을 위해서라면 어디든 찾아갈 것≫



동국대학교의 강정구 교수 직위해제 방침을 두고 동국대 재학생, 사회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22일 오전 10시 동국대학교 본관 앞에서는 ≪강정구 교수 무죄판결 추진위원회≫와 ≪동국대 총학생회≫ 주최로 ≪강정구 교수에 대한 직위해제 방침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천영세 민주노동당 사무총장은 대표발언을 통해 ≪동국대학교가 냉전과 반공논리에 젖어있는 것이 서글프다≫며 ≪학교당국이 반통일악법 국가보안법을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천영세 사무총장은 ≪이미 사문화된 국가보안법을 구실로 학교당국이 강정구 교수를 직위해제시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일≫이라며 동국대학교의 강정구 교수 직위해제 방침을 강하게 비판했다.

홍근수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상임의장이 낭독한 기자회견문에서 주최측은 ≪강정구 교수를 직위해제 시키는 것은 동국대 당국이 스스로 학문의 자유를 포기하는 것이며 강교수의 석방과 무죄를 위해 투쟁해 온 동국대 학생들과 제자들을 배신하는 것≫ 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전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다른 교수들이 직위해제 당하지 않았던 선례를 들며 사립학교법을 근거로 한 학교당국의 직위해제 방침이 구실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후 대표단은 15분 동안 총장면담을 진행했으며 동국대 이사장과의 면담은 실랑이 끝에 다음 주로 미뤄지게 됐다.

총장과의 면담은 총장이 ≪형평성과 학사행정에 대한 규정≫을 근거로 강정구 교수의 직위해제 방침을 고수해서 서로간의 입장 차이를 확인한 가운데 성과없이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주진완 동국대 총학생회장은 ≪동국대의 건학이념은 불교정신으로 민족과 인류사회에 지혜와 자비를 충만하게 하는 것인데, 학사규정이 건학이념을 뛰어넘으려 한다≫며 학교당국의 직위해제 방침을 비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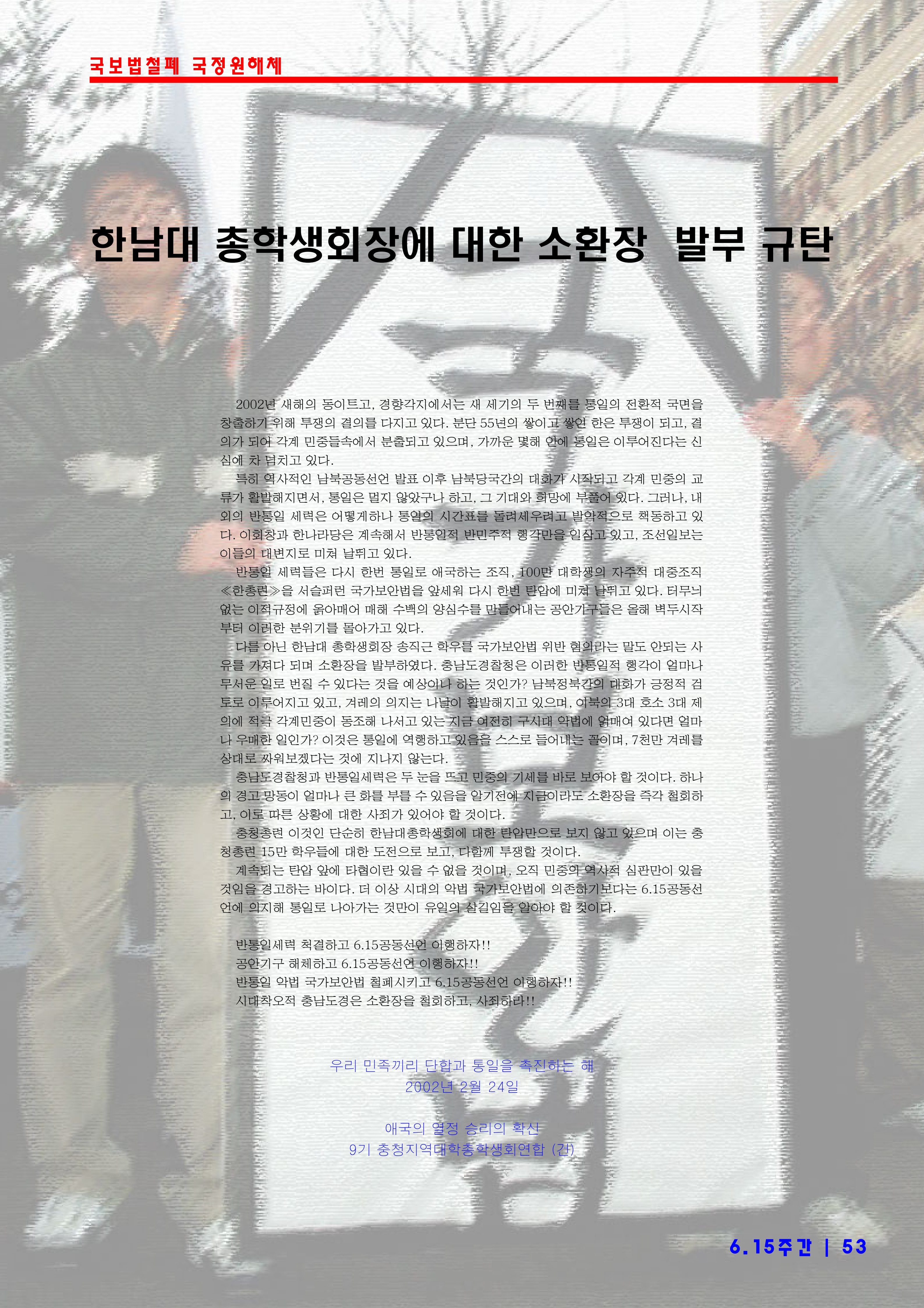
또 주진완 총학생회장은 ≪이사회가 열릴 때 까지 이사진인 스님들이 어디에 있건 끝까지 찾아가서 설득하는 활동을 진행할 것≫이라며 직위해제 방침 철회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동국대는 지난달 7일 ≪만경대 발언≫ 파문으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강정구 교수의 직위해제안을 재단에 공식 요청한 바 있다.

강정구 교수의 직위해제에 대한 결론은 1월 말경 열리는 동국대학교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장동렬(tongil@tongilnews.com)
통일뉴스 2002-01-22



한남대 총학생회장에 대한 소환장 발부 규탄

2002년 새해의 동이트고, 경향각지에서는 새 세기의 두 번째를 통일의 전환적 국면을 창출하기 위해 투쟁의 결의를 다지고 있다. 분단 55년의 쌓이고 쌓인 한은 투쟁이 되고, 결의가 되어 각계 민중들속에서 분출되고 있으며, 가까운 몇해 안에 통일은 이루어진다는 신심에 차 넘치고 있다.

특히 역사적인 남북공동선언 발표 이후 남북당국간의 대화가 시작되고 각계 민중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통일은 멀지 않았구나 하고, 그 기대와 희망에 부풀어 있다. 그러나, 내외의 반통일 세력은 어떻게하나 통일의 시간표를 돌려세우려고 발악적으로 책동하고 있다. 이회창과 한나라당은 계속해서 반통일적 반민주적 행각만을 일삼고 있고, 조선일보는 이들의 대변지로 미쳐 날뛰고 있다.

반통일 세력들은 다시 한번 통일로 애국하는 조직, 100만 대학생의 자주적 대중조직 ≪한총련≫을 서슬퍼런 국가보안법을 앞세워 다시 한번 탄압에 미쳐 날뛰고 있다. 터무니 없는 이적규정에 옭아매어 매해 수백의 양심수를 만들어내는 공안기구들은 올해 벽두시작부터 이러한 분위기를 몰아가고 있다.

다름 아닌 한남대 총학생회장 송직근 학우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라는 말도 안되는 사유를 가져다 되며 소환장을 발부하였다. 충남도경찰청은 이러한 반통일적 행각이 얼마나 무서운 일로 번질 수 있다는 것을 예상이나 하는 것인가? 남북정북간의 대화가 긍정적 검토로 이루어지고 있고, 겨레의 의지는 나날이 활발해지고 있으며, 이북의 3대 호소 3대 제의에 적극 각계민중이 동조해 나서고 있는 지금 여전히 구시대 악법에 얽매여 있다면 얼마나 우매한 일인가? 이것은 통일에 역행하고 있음을 스스로 들어내는 꼴이며, 7천만 겨레를 상대로 싸워보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충남도경찰청과 반통일세력은 두 눈을 뜨고 민중의 기세를 바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하나의 경고 망동이 얼마나 큰 화를 부를 수 있음을 알기전에 지금이라도 소환장을 즉각 철회하고, 이로 따른 상황에 대한 사죄가 있어야 할 것이다.

충청총련 이것인 단순히 한남대총학생회에 대한 탄압만으로 보지 않고 있으며 이는 충청총련 15만 학우들에 대한 도전으로 보고, 다함께 투쟁할 것이다.

계속되는 탄압 앞에 타협이란 있을 수 없을 것이며, 오직 민중의 역사적 심판만이 있을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더 이상 시대의 악법 국가보안법에 의존하기보다는 6.15공동선언에 의지해 통일로 나아가는 것만이 유일의 살길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반통일세력 척결하고 6.15공동선언 이행하자!!
공안기구 해체하고 6.15공동선언 이행하자!!
반통일 악법 국가보안법 철폐시키고 6.15공동선언 이행하자!!
시대착오적 충남도경은 소환장을 철회하고, 사죄하라!!

우리 민족끼리 단합과 통일을 촉진하는 해
2002년 2월 24일

애국의 열정 승리의 확신
9기 충청지역대학총학생회연합 (건)

≪재창당 10문 10답≫
진보정치대통합으로 민중에게 희망을

1. 재창당이 왜 필요한가?

– 미국중심의 세계화와 김대중정권의 신자유주의정책 때문에 노동자, 민중의 삶이 갈수록 비참해지고 있다. 공기업의 사기업화와 해외매각, 구조조정과 대량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양산, 쌀시장 개방과 농가파탄, 월드컵을 이유로 한 빈민탄압을 비롯해, 여성, 교육, 환경, 문화 등 사회 전반이 신자유주의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 또 부시행정부는 아프간공격 이후 MD정책의 연장선에서 한반도에 최첨단무기를 집중 배치함으로써 북미, 남북관계를 악화시키고 또 다시 전쟁의 먹구름을 몰아오고 있다. 정세가 이같이 엄중함에도 이 땅의 민주진보진영은 정치적으로 통일단결해있지 못해 고통받는 민중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민주노동당이 앞장서서 진보정치대통합을 실현하고 노동자, 민중에게 승리의 전망을 안겨주자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재창당 추진의 이유다.

2. 당원 확대만으로는 왜 부족한가?

– 민주노동당은 1월 현재 76개 지구당, 약 2만명의 당원을 확보하고 있다. 앞으로도 당원은 계속 늘어나고 당조직력도 계속 확대, 강화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 한국노총의 다수 조합원들, 특히 노동자의 벗인 농민들, 다수의 청년학생들을 아직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여성계·학계·보건의료계·문예계·재야법조계 등의 진보세력도 폭넓게 끌어당기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무언가 협소한 이미지를 준다≫ ≪정치적, 정책적, 투쟁적 역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아 대안의 정치세력으로 널리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다가 사회당이라는 별도의 진보정당이 엄연히 존재하여 그 차별성을 알기 어려운 일반민중들은 ≪분열≫과 ≪혼란≫으로 받아들인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노동당으로 들어오라≫고만 해서 민주진보진영의 정치적 단결을 성취할 수 있겠는가. 농민활동가들은 우스게소리로 ≪민주노동당은 노동자당 아니냐≫ ≪농민당 만들테니 합당하자≫고 한다.

3. 노동자 중심성이 훼손되지 않을까?

– 노동자 중심성이란 모든 민중을 해방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자기자신을 해방하는 노동자계급의 지도성을 말한다. 노동자 중심성은 노동자당원의 비중이 얼마이고 노동자출신, 노동운동출신이 의결집행기구를 얼마나 장악했느냐는 것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노동자계급이 당의 정책과 노선, 당의 운영과 활동 전반에 걸쳐 올바른 사상, 올바른 실천적 모범을 보이는 것이 노동자 중심성을 가장 잘 지키는 길이다. 외연을 넓히면 노동자 중심성이 약화된다는 지적은 진실이 아니다. 오히려 재창당을 통해 각계 민주진보세력을 진보정당에 폭넓게 참여시키는 것이 타 계급계층에 대한 노동자계급의 지도성을 높이고, 노동자 중심성도 튼튼히 견지하는 길이다. 또 재창당을 통해 ≪진보진영이 다 모이는구나≫ ≪이제 대안의 정치세력이 될 것같다≫라는 인상을 줄 때, 노동자들도 지금보다 더 많이 참여하고 노동자 중심성도 그 만큼 더 튼튼히 유지될 수 있다.

4. 당명, 강령, 지도체제 등이 바뀌는가?

– 이는 전적으로 재창당, 즉 진보정치대통합의 추진주체들이 모여 합의할 문제이며, 우리당으로서는 그 주인인 당원들이 결정할 문제이다. 재창당할 진보정당도 민주노동당과 다름없이 사실상 계급연합정당이며 정파연합정당이다. 이쪽 저쪽 다 모아도 이길까 말까 한데, 언제까지 우리끼리 뺄셈만 할 것인가. 그렇다면 추진주체들이 서로 약간씩 양보하고 차이보다는 공통성을 앞세워 모든 문제를 풀어가야 하리라 본다. 민주노동당은 지난 5차 중앙위원회에서 당의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열린 자세로 임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또 지난 1월 3~5일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전농, 전빈련, 한총련, 전국연합 등 6개 조직 지도부 합동수련회에서 재창당과 양대선거 통일적 대응에 합의하고, ①노동자, 민중 중심의 진보정당, ②반신자유주의, 반미, 민중생존권 쟁취, 자주통일에 동의하는 민주진보세력 포괄, ③집단지도체제, ④가능하다면, 지방선거 이전 재창당 등을 논의했다.

5. 재창당의 시기는?

– 그동안 진보정당대토론회, 4개 조직(민주노총, 전농, 민주노동당, 전국연합)지도부 수련회, 통합 진보정당 및 완전개방형 예비선거제 제안, 각계 진보진영 접촉, 6개 조직 지도부 합동수련회, 민주노동당–사회당 대표단독회담 등 일련의 재창당추진사업을 전개해왔다. 그 결과, 단일 진보정당, 단일 진보후보를 통한 양대선거 대응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켰으며, 노동자, 민중에게 새로운 관심과 기대를 불러일으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영역인 농민부문을 비롯해 각계 민주진보진영의 정치세력화 논의가 아직 활발히 전개되지 못하고 있는게 사실이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은 단일 진보정당 건설을 위해 큰폭의 양보를 각오하고 사회당과

의 통합에 최선을 다 할 것이다. 또 농민, 빈민, 청년 학생뿐만 아니라, 여성, 학계, 보건의료, 문예, 재야 법조계 등 각계 진보세력을 폭넓게 망라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그 결과에 따라 재창당의 시기는 정해질 것이다. 지금의 준비정도로 볼 때, 4월 재창당은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같다. 그러나 대선 전에는 진보정치대통합을 반드시 실현해야 단일 진보정당, 단일 진보후보를 통해 승리하는 대선투쟁을 벌일 수 있다.

6. 우리당 자체의 당직 · 공직 후보선출에 어떤 영향을 주나?

– 1~2월 지부, 지구당 대의원대회(총회)와 3월 16일 정기당대회에 예정되어 있는 당직 선거는 재창당사업과 상관없이 계획대로 추진될 것이다. 재창당 추진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그 재창당대회에서 새로운 당직 선거를 실시하면 되기 때문에, 우리당 자체적인 당직 선거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지방선거, 대선 후보 선출은 사회당을 포함한 각계 민주진보진영과의 단일 진보정당 건설, 단일 진보후보 만들기 논의결과에 따라 그 방법과 시기가 다소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이미 민주노동당은 지방선거 공동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민주진보진영의 제 단체와 공동명의의 사용, 공동 정책, 후보조정 등 다양한 선거연합전술에 임하기로 하고, 완전개방형 예비선거제를 제안해놓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양대선거 후보 선출문제도 2월로 예정된 2002년 첫번째 중앙위원회에서는 최종 매듭을 지어야 지방선거 준비에 차질이 없을 것이다.

7. ≪진보정치대통합 범국민추진위원회≫란 무엇인가?

– 재창당 추진은 상층 논의와 교섭만으로는 명백히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온 안이다. 양대선거에 대한 대중적 준비도 계속 늦어지고 있다는 점도 감안되었다. 한마디로 말해, 대중의 힘, 노동자 · 민중의 힘을 불러일으켜 민주당 국민참여형 예비경선과정에서 민주진보진영에 대한 사이비 개혁후보들의 공세를 차단하는 한편, 각계 민주진보진영에게 진보정치대통합을 강력히 설득, 관철함으로써 노동자, 민중에게 밝은 희망을 주고 2002 지방선거,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하자는 취지에서 제안된 것이다. 민주진보진영이 힘을 모아 가칭 ≪진보정치대통합 범국민추진위원회≫를 발족, 10만명 추진위원, 100만 서명운동을 조직하고 활발한 정치활동, 정치투쟁을 전개하며, 이를 동력으로 2002년 양대선거 단일 진보후보를 만들고, 강력한 단일 진보정당을 건설하자는 것이다.

8. 양대선거 후보 예비선거와의 관계는?

– 현실가능한 구체적 방법과 시기는 깊이있게 검토되어야 한다. 다만, 애초의 소박한 제안 줄거리는 이렇다. 예를 들어 5천원 내고 진보정치대통합에 참여할 10만 민중의 추진위원을 조직화하고, 10만 추진위원이 노동자 · 민중의 당면 요구 실현과 진보정치대통합을 바라는 100만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것이다. 그래서 10만 추진위원을 선거인단으로 예비경선을 실시, 단일 진보후보를 만든 다음, 공동선대본을 구성하여 통일적인 선거투쟁을 벌임으로써 최소 100만 이상의 지지를 얻는 것 이다. 물론, 범국민추진위원회는 선거관련 사업만이 아니라 대중정치투쟁도 조직한다. 연초에 6개 조직 지도부 합동수련회에서 2002년 연대공동투쟁의 방향으로 합의한 ①반신자유주의, ②반미, ③민중생존권 쟁취, ④자주통일을 내걸고 전국적 정치투쟁을 전개할 수 있다.

9. ≪범국민추진위≫가 재창당으로 이어지는가?

– 제일 바람직한 모양은 전농, 사회당을 포함한 각계 민주진보진영이 모두 ≪범국민추진위≫에 들어와 함께 활동하는 것이다. 그래서 민주적 토론과 대중적 조직적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강력한 단일 진보정당을 늦어도 대선 전에는 건설하고, 그 이름으로 단일한 대통령후보를 출마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민주노동당, 사회당은 말할 것도 없고 민주노총, 전농, 전빈련, 한총련 등 기층민중의 대중조직과 각계 진보진영이 최선을 다 해야 한다. 만일 대중의 힘, 민중의 힘을 불러일으켜 진보정치대통합을 실현하지 못한다면, 신자유주의세력=사이비 개혁후보들에 의해 시민단체, 재야 상층은 물론이고 노동조합, 농민회, 학생회 등도 정치적 침탈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시기 진보진영의 분열은 죄악이다.

10. 향후 추진 일정은?

– 우선 각급 당조직의 발빠른 의견 수렴을 거쳐 민주노동당의 확고한 방침으로 결정해야 한다. 또 대표단을 중심으로 중앙당 및 지부, 지구당 등 전당적 동원태세를 확립해야 한다. 다른 출로가 없는 만큼, 비장한 각오로 나서지 않으면 안된다. 이와 동시에 민주노총, 전농 등 기층민중조직 지도부, 각계 진보진영 주요 지도자들의 동의를 선차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그런 다음, 1월말부터 각 부문의 지도급 인사들이 참여하는 민주진보진영 확대간담회를 개최, 본 제안을 심도깊게 검토하고 2월 중순 가칭 ≪진보정치대통합 범국민추진위원회≫발족 기자회견을 가져야 한다. 이 때부터 10만 추진위원, 100만 서명운동을 대중적으로 전개하는 것이다.

정당명부제 도입되면, ≪민주노동당 찍겠다≫ 10.8%

≪진보정치≫ 대국민설문조사

국민 과반수를 훨씬 넘는 62.8%가 정치개혁을 위해 진보정당의 원내 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56.0%가 민주노동당에 대해 호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동당 등 진보정당과 권영길 후보에 대한 지지율은 각각 10.8%, 4~5%로 조사됐다.

이같은 결과는 ≪진보정치≫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길리서치에 의뢰, 지난 6~7일 전국의 성인남녀 6백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를 통해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 중심의 기존 정당구도에 만족한다는 응답이 8.0%인 반면, 불만이라는 응답은 과반수를 넘는 50.5%로 나타나 지난해 신년초 여론조사(≪진보정치≫ 31호 참조)와 비슷한 결과(50.7%)를 보였다.

기존 정당 외에 정치개혁을 위해 필요한 정당의 성격을 묻는 질문엔 ≪노동자, 서민의 이해를 대변하는 진보정당≫을 꼽은 응답자(47.8%)가 ≪시민의 이해를 대변하는 개혁적 서민정당≫을 꼽은 응답자(40.3%)보다 많았다.

하지만 올해 6월 지방선거에서 1인2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시 투표할 정당은 한나라당(38.3%), 민주당(25.0%), 민주노동당 등 진보정당(10.8%), 자민련(3.9%) 순으로 조사돼 기존 3당에 대한 지지율(67.2%)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무당층은 18.6%. 결국 기존 정치권에 대한 불만과 정치개혁에 대한 요구가 곧바로 진보정당에 대한 지지로 연결되지 않는 현상이 새삼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조사에서 민주노동당에 대해 호감이 가지 않는다는 응답(60.9%)이 호감이 간다는 응답(27.2%)보다 높았던 데 비해 이번 조사에서는 거꾸로 호감이 간다는 응답(56.0%)이 호감이 가지 않는다는 응답(39.2%)보다 높게 나타났다.

민주노동당의 당명에 대한 호감도 조사에서는 마음에 든다는 응답이 47.0%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응답 44.8%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가상 대선후보 지지율 조사에서는 민주당 후보로 이인제 고문이 출마할 경우 이회창 36.1%, 이인제 26.7%, 권영길 4.0%, 김종필 2.6% 순으로, 노무현 고문이 출마할 경우 이회창 37.0%, 노무현 24.6%, 권영길 5.0%, 김종필 3.7% 순으로 나타났다.

민주노동당에 대한 인지도 조사에서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이 12.6%, 당 이름만 알고 있다는 응답이 49.4%로 응답자의 과반수가 넘는 62.0%가 민주노동당을 알고 있지만, 모른다는 응답도 38.0%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조사(알고 있다 55.7%)와 비교하면 민주노동당의 인지도는 6.3%포인트 증가했다.

민주노동당에 대한 이미지를 묻는 질문에는 과반수에 가까운 43.8%가 ≪노동자, 서민을 위한 정당≫이라고 응답했으며 민주노총 중심의 노동자 정당(18.8%), 권영길씨가 대표로 있는 정당(13.9%), 젊은이들이 많은 참신한 정당(11.0%) 순으로 나타났고 과격한 이미지의 운동권 정당이라는 응답은 5.4%에 불과했다.

우리 민족끼리 통일을 이룩해야 한다

구국의 소리, 주체91(2002)년 1월 15일～17일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북은 새해공동사설에서 우리 민족끼리 조국을 통일하자는 구호를 제시하고 올해를 조국통일의 결정적 국면을 열어갈 해로 맞이할 의지를 밝혔습니다.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조국을 통일하자는 건 남과 북이 6.15공동선언을 통해 확약한거죠.

지난해 통일운동에서 이룩된 성과들은 우리 나라의 통일은 그 어떤 외세의 간섭도 없이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투쟁해야 성취될수 있다는 걸 웅변해주고 있습니다.

네, ≪우리 민족끼리 통일을 이룩해야 한다≫ 윤정원씨 모시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사회자 : 안녕하십니까.

윤정원 : 네, 안녕하세요.

사회자 : 우리 온 겨레는 민족자주통일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신심을 안고 새 세기 두번째 해를 맞았는데요. 새 세기 가까운 앞날에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려는 것은 우리 전체 남북민중의 한결같은 의지이고 지향이죠. 자주적 통일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나라의 통일을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실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길 나눠보려고 이렇게 모셨습니다. 우리 민족끼리 조국통일을 실현하려는 건 조국통일의 이정표인 6.15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이죠?

윤정원 : 네, 6.15공동선언의 기본정신, 기본핵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외세에 의존해서가 아니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해결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남북공동선언 첫 조항에는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명시돼 있어요. 이것은 우리 남북민중 온 겨레가 굳게 손을 잡고 민족분열사에 종지부를 찍고 조국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이룩하려는 철석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죠.

사회자 : 남북공동선언의 발표로 온 겨레는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는데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해결할수 있는 민족공동의 기초를 가지게 됐다고 하겠는데요. 나라의 통일문제를 외세의존이 아니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서 자주적으로 풀어나가는 건 통일문제해결에서 나서는 필수적 요구라고 할수 있죠.

윤정원 :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는 것은 철두철미 우리 민족을 위한 것이고 또 나라의 통일문제해결의 주인도 다름아닌 우리 민족입니다. 그리고 나라의 통일문제에 사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그것을 요구하는 것도 우리 민족이고 통일된 강토에서 살아야 할 주인도 바로 우리 민족이구요. 그래서 나라의 통일을 실현해야할 당사자도 우리 민족이고 그것을 수행할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것도 바로 우리 민족 자신이죠. 나라의 통일을 절절히 염원하는 주인들인 남북민중이 힘을 합쳐야 나라의 통일문제를 순조롭게 풀어나갈수가 있는 거죠.

사회자 : 나라의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하는 건 그 누구도 침해할수 없는 우리 민족의 권리죠. 우리 민족 자신의 문제이고 민족의 자주권에 관한 문제인 나라의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이 주인이 돼서 민족자체의 힘으로 이룩해나가는 건 당연한 겁니다. 남과 북이 공동선언을 통해 민족끼리 힘을 합쳐서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하기로 한 이상 외세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민족자체의 힘에 의거하고 외세와의 공조가 아니라 동족과 공조하는 확고한 입장을 견지해야한다고 봅니다.

윤정원 : 네, 그렇습니다. 민족자주가 민족의 살길이고 통일의 길이라면 외세의존은 분열의 길이고 망국의 길입니다.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되찾는 나라의 통일문제는 외세가 아니라 철저히 우리 민족 자체의 힘에 의해서만 해결될수 있는 거죠. 우리 나라와 민족을 분열시키고 우리 민족의 통일을 바라지 않는 외세에 의존해서는 통일문제를 해결할수가 없습니다. 민족공조가 아니라 외세와의 공조에 매달리는 건 통일문제해결에서 주인으로써의 권리와 자격을 스스로 부정하고 버리는 것이고 외세와의 공조로 통일문제를 해결하려는 건 민족분열의 치욕을 자청하고 매족, 예속의 올가미를 스스로 목에 거는 것과 다름없는 어리석은 짓입니다. 남북민중은 운명을 같이해야 할 동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족에 의거하고 동족을 믿어야하고 그리고 동족끼리 서로 협력하는 자세에서 민족적 단합과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을 해야죠.

사회자 : 남북공동선언발표로 이 땅에 화해와 통일의 열풍이 거세게 일고 있는 오늘에 와서도 반통일 세력들은 이념과 제도를 앞세우면서 외세와의 공조



를 떠들고 있잖아요. 이거야말로 남북간의 대결과 불신을 되살려서 통일을 가로막으려는 반역행위죠.

윤정원 : 그렇죠. 이회창 한나라당패거리를 비롯한 우익보수세력들은 통일문제해결에서 미국과의 공조를 떠들고 있어요. 미국으로 말하면 민족분열의 장본인이고 나라의 통일을 가로막는 주되는 장애세력입니다. 이 땅을 발판으로 이북과 나아가서 아시아를 침략하려는 건 미제의 변함없는 전략이잖아요. 이로부터 미국은 우리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악랄하게 방해하며 가로막아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은 있지도 않은 북의 미사일위협에 대해 떠들다 못해서 상용무력의 위협론까지 들고나오면서 북을 고립압살하기 위한 도수를 높이고 있는데요. 이것 역시 저들의 이북침략을 위한 전략실현의 한 고리인거죠. 미국은 특히 6.15공동선언발표로 우리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열망이 비상히 높아지자 이에 불안을 느끼고 한반도정세를 긴장시켜서 공동선언발표이전의 대결상태로 몰아가려하고 있어요. 나라의 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미제침략자들과 공조를 운운하는 것 자체가 반통일이니까요.

사회자 : 진정 남북공동선언을 존중하는 사람이라면 외세와의 공조를 배격하고 민족과 공조하는데로 나가야 할겁니다. 남과 북이 공동선언을 통해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통일문제를 해결해나갈 것이라고 온 세상에 선포한 만큼 통일문제해결에서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눈치를 보면서 외세의 간섭에 굴종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윤정원 : 민족자주통일은 모든 민족 성원들이 투철한 민족자주의식으로 정신무장하고 외세와의 공조를 떠드는 사대주의와 외세의존사상을 반대해 견결하게 투쟁할때 이루어질수가 있어요.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진정으로 걱정하고 진심으로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우리 민족끼리 조국을 통일하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남북공동선언을 옹호고수하고 이행하기 위한 애국애족의 투쟁에 나서야 합니다. 이와 함께 공동선언이행에 간섭해 나서는 미제를 반대하는 반미투쟁의 불길을 높이 지펴올려야하죠. 그리고 우리 나라의 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미제와 짝짜꿍이를 하면서 민족대결과 긴장격화를 조장하는 반통일세력들을 반대하는 투쟁도 강화해야 하죠. 그래야 안팎의 반통일세력들이 맥을 못추게 되고 우리 민족의 최대의 염원인 자주통일이 앞당겨 질테니까요. 그래서 우리 민족끼리 조국을 통일하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자주통일대진군을 힘차게 다그쳐나가는 우리 민족의 앞길을 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다고 전 믿습니다. 새 세기 두번째인 올해를 조국통일의 유리한 국면을 여는 해로 되게 해야 할겁니다.

사회자 :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말씀 감사합니다.

윤정원 : 네, 감사합니다.

사회자 : 네, 통일된 조국에서 살아야 할 사람은 우리 민족이고 조국을 통일해야할 사람도 다름아닌 우리 민족입니다. 그러므로 통일의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조국을 통일해야 합니다. 자기의 이기적 목적으로 우리 나라를 분열시킨 외세와 공조해서는 언제가도 통일을 할수 없습니다. 외세를 배격하고 한 핏줄을 나눈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치자, 이거야말로 남북겨레 모두가 철석의 신념으로 받아들여야 할 진리라고 하겠죠.

노동대중은 내외반통일세력의 6.15공동선언 말살책동을 단호히 분쇄하자

구국의 소리, 주체91(2002)년 1월 16일～18일



6.15공동선언은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오늘도 내일도 조국통일의 이정표인데요. 이 공동선언을 말살하려는 내외반통일세력들의 책동을 단호히 분쇄하는 것은 우리 1300만 노동대중앞에 나선 중차대한 문제가 아닐수 없습니다.

그럼 이번엔 ≪노동대중은 내외반통일세력의 6.15공동선언말살책동을 단호히 분쇄하자≫ 이런 제목으로 김현규씨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1300만 노동대중들속에서는 6.15공동선언을 말살하려는 내외반통일세력에 대한 분노의 함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6.15공동선언은 귀중한 민족공동의 전취물입니다. 조국통일을 그 주인인 남과 북의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실현하자는게 공동선언의 기본정신입니다. 이 기본정신을 존중하고 철저히 구현해나가는데 민족자주통일실현의 길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노동대중을 비롯한 각계 민중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에도 6.15공동선언의 기치를 더높이 치켜들고 통일운동을 더 거세게 벌여나갈 의지에 차넘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미제와 이회창일당을 비롯한 반통일세력들은 우리 노동대중의 이러한 통일열기에 찬물을 끼얹고 어떻게해서나 6.15공동선언을 말살해보려고 책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올해를 전쟁의 해로 선포하고 이북의 핵문제와 미사일문제 그리고 테러문제를 걸고들며 식민지 이 땅에 대한 무력증강만을 일삼으면서 한반도정세를 전쟁국면에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회창을 비롯한 극우익반통일보수세력들의 책동도 더욱 우심해지고 있습니다.

이 한줌도 못되는 반통일역적의 무리들은 한반도에서 기어코 전쟁의 불을 지르려는 미국의 위험천만한 책동에 적극 추종하면서 남북대결만을 고창해나서고 있습니다.

이것은 외세에 빌붙어 6.15공동선언의 이행을 한사코 가로막고 민족의 영구분단에 기생하려는 친미반통일분자들의 민족반역행위인 것입니다.

우리 1300만 노동대중은 6.15공동선언을 말살하고 통일을 가로막으려는 미제와 이회창일당을 비롯한 반통일세력들의 책동을 절대로 용납하지 말아야하며 그걸 결단코 저지분쇄해야합니다. 우선 우리 노동대중은 6.15공동선언을 옹호고수하기 위한 투쟁을 과감히 벌여나가야 합니다.

공동선언을 고수하는가 고수하지 못하는가 하는 것은 해도 되고 못해도 되는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통일의 이정표인 6.15공동선언을 사수하면 새 세기의 가까운 앞날에 통일로 갈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남과 북은 예측할수 없는 대결과 전쟁의 국면에로 치닫게 됩니다.

결국 우리 민족은 영구분열의 비극과 전쟁의 참화를 겪지 않으면 안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 1300만 노동대중은 이를 올바로 자각하고 오늘도 내일도 통일의 이정표인 6.15공동선언을 내외반통일세력의 도전으로부터 견결히 옹호고수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6.15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하기 위한 애국애족의 투쟁에 한사람같이 분기해나서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동선언을 말살하려는 미국과 이회창일당의 책동을 반대하는 투쟁의 불길을 높이 지펴올리는 겁니다.

6.15공동선언이행의 최대의 적은 미국과 이회창일당입니다. 자기의 침략적 이해관계로부터 우리 민족을 분열시킨 미제는 절대로 통일을 가져다주지 않습니다.

우리 노동대중은 6.15공동선언을 말살하고 통일을 가로막으려는 미제를 이 땅에서 몰아내기 위한 반미투쟁을 중단없이 계속 힘있게 벌여나가야 합니다.

이회창을 비롯한 극우익반통일세력의 간악한 도전을 분쇄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강도높게 벌여나가는 것도 6.15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하기 위한 투쟁에서 중요한 문제로 나섭니다.

우리 노동대중은 공동선언정신에 맞지 않게 남북대결과 긴장격화를 조장하는 주적론과 반통일악법인 국가보안법을 유지하려는 반통일보수세력과의 투쟁의 강도를 더욱 높여 나가야 합니다.

1300만 노동대중여러분, 6.15공동선언은 민족자주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이룩된 귀중한 민족공동의 전취물입니다. 6.15공동선언을 옹호고수하고 철저히 이행하는데서 우리 노동대중의 역할은 참으로 막중한겁니다.

우리 노동대중은 6.15공동선언을 말살하려는 미제를 비롯한 반통일세력들의 책동을 분쇄하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분기함으로써 민족자주통일운동의 기관차, 주역으로써의 자기의 사명과 의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네, 지난해에 민족자주통일운동은 통일의 이정표인 공동선언을 옹호고수하고 철저히 이행해나갈때 민족의 자주통일이 실현될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300만 노동대중은 이를 올바로 자각하고 공동선언을 말살하려는 내외반통일세력들의 책동을 단호히 분쇄하는 투쟁에 한사람같이 분기해야 할겁니다.

주체사상의 신봉자, 전파자가 되자

구국의 소리, 주체91(2002)년 1월 14일~15일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우리 민중의 투쟁의 앞길을 밝혀주는 시대의 위대한 추동력인 주체사상. 우리 청년학생들은 새해에도 주체사상을 확고한 지도이념으로 간직하고 투쟁의 길을 끗끗이 걸어가라리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럼 이 시간엔 먼저 ≪주체사상의 신봉자, 전파자가 되자≫ 이런 제목으로 김현규씨 모시고 얘기 나눠보죠.

사회자 : 안녕하세요.

김현규 : 네, 안녕하십니까.

사회자 : 우리 민중의 투쟁사에서 한돌기의 연륜을 새기고 새해를 맞았는데요. 지금 청년학생들은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더욱 투철히 정신무장함으로써 올해에도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대중운동의 믿음직한 주력부대, 선봉장으로써의 사명과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갈 굳은 결의에 넘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주체사상의 신봉자, 전파자가 되자≫ 이런 문제를 갖고 얘길 좀 나눠보자고 자리를 같이했는데요. 그럼 먼저 주체사상에 관해 간단히 얘기하고 넘어 갔으면 합니다.

김현규 : 아시다시피 사람을 중심에 놓고 모든 것을 전개한 주체사상은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 원리와 *******인간의 운명개척의 길과 사회변혁의 길을 가장 정확히 밝혀주고 있는데요. 주체사상으로 투철히 정신무장하고 주체의 기치따라 나갈때 한국의 대중운동은 곧바른 궤도를 따라 힘있게 전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민중의 투쟁사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기간 이 땅의 청년학생들과 노동자, 농민들 각계 애국민중은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적 지침으로 삼고 주체의 전략과 방법에 의거해 투쟁함으로써 대중운동의 주체를 더욱 강화하고 자주, 민주, 통일운동을 끊임없이 강화발전시킬수 있었거든요. 오늘 대중운동이 광범위한 대중의 열렬한 지지와 적극적인 동참속에 날을 따라 승승장구하고 있는 것도 바로 주체사상을 유일지도이념으로 삼은데 있는 겁니다.

사회자 : 주체사상은 인간의 자주적 요구를 실현할수 있게 하고 대중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해서 우리 민중은 물론 세계 진보적 인류가 적극 신봉하고 있는데요. 그 누구보다도 정의감이 강하고 진리를 소중히 여기며 사회적 진보를 위한 투쟁에 과감한 청년학생들은 마땅히 주체사상을 적극 신봉할뿐 아니라 이것을 널리 선전하는 전파자가 돼야 하잖아요.

김현규 : 그렇죠. 청년들은 누구보다도 새것에 민감하고 진취적이죠. 또 진리를 귀중히 여길뿐 아니라 정의감도 강합니다. 그런만큼 그 진리성과 과학성이 확증되고 활력이 남김없이 발휘된 주체사상을 열렬히 신봉하는 건 청년학생들의 의무이고 자랑입니다. 그러므로 청년학생들은 무엇보다 주체사상의 열렬한 신봉자가 돼야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건 청년학생들이 자신을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정신무장하는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체사상으로 집대성된 **김일성**주석님과 **김정일**장군님의 노작원문들을 깊이 있게 열심히 외워 그것을 자신의 뼈와 살로 확고한 신념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체의 대중운동이론으로 정신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아울러 청년학생들은 개량주의, 수정주의자들의 온갖 궤변에 높은 정치적 안목으로 대하며 주체사상을 헐뜯거나 주체의 진리를 왜곡하려는 사소한 경향과 요구에 대해서는 추호도 용납하지 말고 단호한 타격을 가함으로써 주체사상의 순결성을 철저히 고수해야 합니다.

사회자 : 오늘 주체사상은 거대한 감화력을 가지고 세계를 시위하고 있는데요. 청년학생들은 이같이 시대적 흐름과 민심에 걸맞게 주체사상을 각계 민중속에 적극 보급하는 전파자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김현규 : 옳은 말씀입니다. 청년학생들은 주체사상의 열렬한 신봉자가 돼야 할뿐 아니라 적극적인 전파자가 돼야 하는데요. 그러자면 청년학생들이 각계 민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에게 주체사상을 원리적으로 해설하며 그들이 주체사상의 위대성과 정당성을 똑똑히 알도록 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적극 벌여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인터넷과 피시방을 이용한 선전활동을 비롯해서 홍보활동을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참신하게 벌이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주체의 대중운동이론을 실지 활동에 구현함으로써 주체사상의 활력을 피부로 느끼도록 해야 할겁니다. 그래서 각계 민중이 주체의 세계관을 확고히 정립하고 그에 기초해서 사회의 민주화와 민족자주, 통일운동을 벌여나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자 : 주체사상의 신봉자대열이 늘어날수록 대중운동의 도수는 더욱 강화될 것이고 또 사회의 민주화와 자주화, 조국통일도 앞당겨 실현되게 될겁니다. 청년학생들은 주체사상의 신봉자, 전파자는 다름아닌 우리다라는 자각을 가지고 자신을 주체사상으로 더욱 투철히 정신무장할뿐 아니라 그것을 각계 민중속에 널리 보급선전함으로써 대중운동을 더욱 힘있게 진전시켜나가는데 응분의 기여를 해야할겁니다. 지금까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현규 : 감사합니다.

사회자 : 우리 청년학생들은 주체사상의 열렬한 신봉자로 자신을 정신무장할뿐 아니라 각계 민중속에 주체사상을 널리 **하는 선전자, 전파자로서의 사명도 원만히 수행해 나가야 할겁니다.

미국의 대북정책은 시정돼야 한다

구국의 소리, 주체91(2002)년 1월 15일~17일



미국의 반북대결책동이 날이 갈수록 더욱 심화되고 있어서 한반도의 평화와 조국통일을 바라는 국제사회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임기수씨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근 미국이 앞에서는 이북과의 전제조건없는 대화재개를 운운하면서도 그 막뒤에서는 반북대결정책을 계속 벌이고 있어 내외의 규탄과 비난을 받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최근 미국무부대변인은 이북의 미사일확산문제가 우려거리라고 하면서 핵사찰문제와 부시의 탄도미사일의 개발 및 수출문제를 북미대화에서 거론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앞서 부시미대통령도 백악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북이 대량파괴무기를 생산한다느니 북미관계개선을 위해서는 검증이 필요하다느니 뭐니하면서 이북을 헐뜯었습니다. 이것은 미국이 진실로 북미대화를 재개할 의사가 없다는 걸 스스로 드러내 놓은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은 이북과의 전제조건이 없는 대화를 운운하면서도 이북의 비위에 거슬리는 행동을 계속하면서 한반도에서 무력증강과 전쟁열을 고취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북에 의연히 테러지원국, 불량배국가명단에 올려놓고 반북적대시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북에 인권문제를 걸고들다못해 최근에는 종교문제까지 걸고들고 있습니다.

미국은 국제종교자유에 관한 연례보고서라는데서 이북의 종교문제가 자기 나라의 종교자유법에 저촉된다고 시비질을 했습니다.

누구도 요구하지 않고 인정하지도 않는 국제인권재판관행사를 해온 미국이 이제는 국제종교재판관모자까지 쓰고 이북의 종교문제에 대해 이러쿵저러쿵하는 것은 저들의 법을 제멋대로 국제법과 다른 나라의 법위에 올려세우려는 무지막지한 행위이며 이북에 대한 노골적인 도발인 것입니다.

또한 미국은 한반도 유사시 대응의 구실밑에 주한미군이 고도의 경계태세에 들어가게 하는 동시에 미본토의 기동타격부대들과 장비들을 한반도에 전진배치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최근에는 이북에 있지도 않는 미사일발사에 대비한다고 하면서 동해에 미사일이 장비된 이지스함을 배치하려고 획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산, 군산, 수원을 비롯한 주한미군기지들에 배치한 패트리어트미사일들의 주요장비들에 대한 성능개량작업과 한반도와 그 주변 9개지역에 요격레이다를 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은 한국에 저들의 전투기 40대를 구입할 것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은 국군과 함께 북침을 노린 대규모적인 합동군사훈련을 끊임없이 벌이고 있습니다. 대규모북침전쟁연습인 연안상륙작전훈련이 그 대표적 사례라 하겠습니다. 이것은 미국이 북침을 노린 무력증강과 전쟁책동을 얼마나 노골적으로 강화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한미군사령관 슈워츠가 주한미군을 비롯한 한반도전지역은 테러전쟁전보다 보강되고 있다 말한 것은 결코 우연한 소리가 아닙니다.

지금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전쟁 다음 단계에 반테러전쟁 대상이 테러지원국, 불량배국가들이라고 선포한데 이어 그 주되는 목표가 이북이 될수 있다는 여론을 노골적으로 내돌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미국지배층이 대량파괴무기확산억제와 반테러를 구실로 이북에 대한 군사적 공격을 감행하기 위한 음모와 작전을 꾸미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은 북미관계를 극단한 대결국면으로 몰아가 북침전쟁을 기어코 일으키려고 획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이같은 대북정책은 시대착오적인 망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미국은 이미 한차례의 6.25전쟁에서 이북에 큰 참패를 당했으며 냉전시기에는 이북을 고립압살하기 위한 책동에서도 심대한 패배를 당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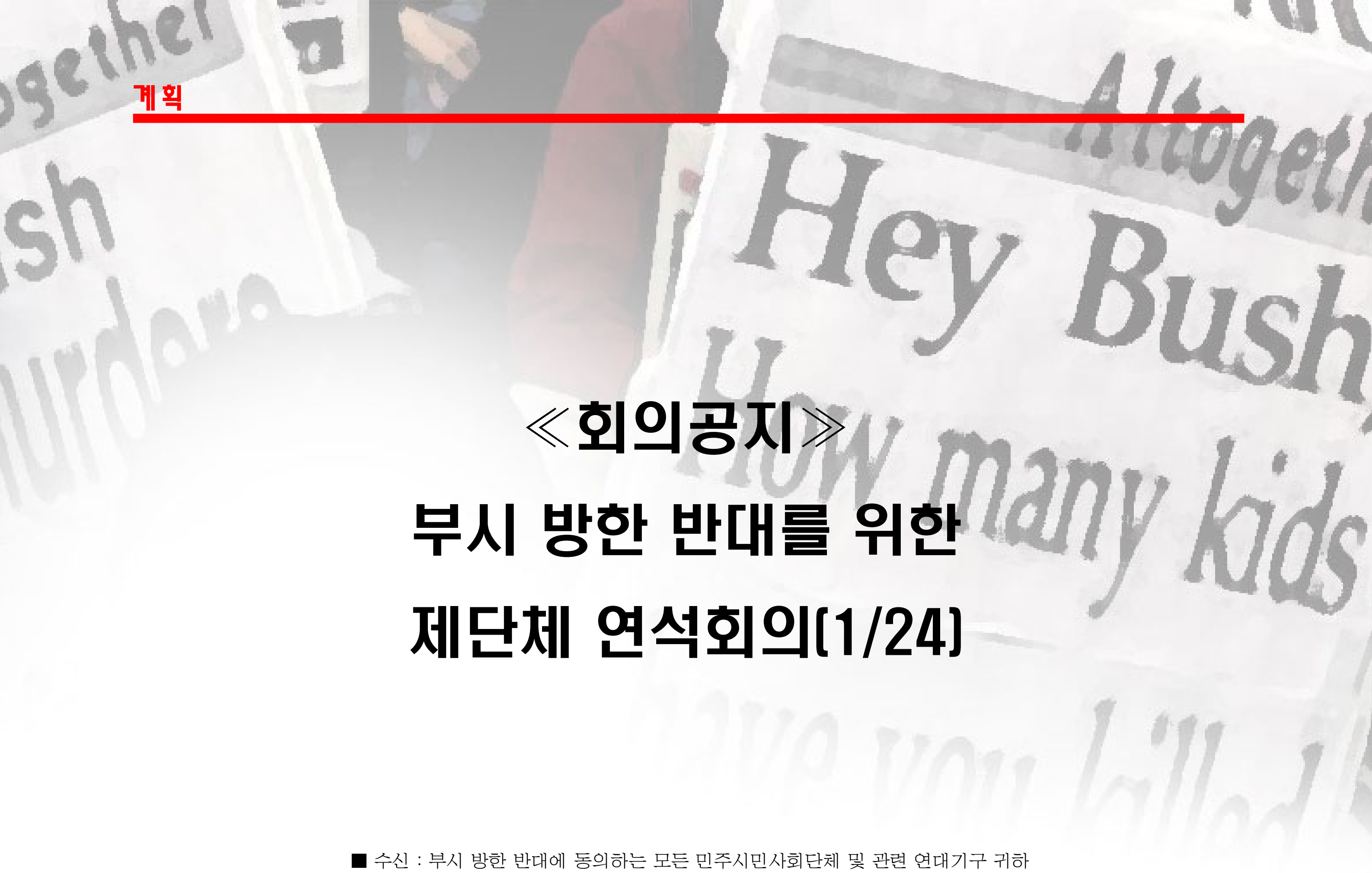
미국의 선행정권이 북미대화에 나섰던 것도 이런 역사적 결산에 기초한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부시정권은 지난 세기에 총파산된 대북정책을 새 세기에 답습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리석고 무모한 짓이라 하겠습니다.

미국이 계속 시대착오적인 반북대결정책에 매어달린다면 시대의 배척과 파멸밖에 차례질 것이 없습니다. 미국은 시대에 뒤떨어진 반북대결정책을 시급히 시정하고 이 땅에서 주한미군을 철수시켜야 하며 북미관계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각계 국민들은 미국의 반북대결정책을 끝장내는 것이 한반도의 평화와 나라의 통일을 하루빨리 실현하는 길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반미투쟁에 한사람같이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국이 이북을 이라크나 유고, 아프가니스탄과 같이 본다면 그보다 더 큰 오류는 없을줄로 압니다. 미국이 대북적대시정책에 계속 매달린다면 돌아올건 수치스러운 참패밖에 없을 거예요. 대북정책에서 심사숙고해야 할 미국이라 하겠죠.



≪회의공지≫
부시 방한 반대를 위한 제단체 연석회의(1/24)

■ 수신 : 부시 방한 반대에 동의하는 모든 민주시민사회단체 및 관련 연대기구 귀하
■ 참조 : 민주시민사회단체 및 관련 연대기구 집행책임자
■ 발신 : 민족자주 민주주의 민중생존권 쟁취 전국민중연대(준)
■ 제목 : 1/24 부시 방한 반대를 위한 제단체 연석회의 참석 요청의 건
■ 문의 : 전국민중연대(준) 반전평화민족자주위원회(전화 841-4380)

≪부시 방한 반대를 위한 제단체 연석회의≫

◆ 일시 : 2002년 1월 24일 (목) 저녁 7시
◆ 장소 : 느티나무 (안국동 참여연대 2층, 720-1991)
◆ 취지

○ 2002년을 ≪전쟁의 해≪로 선포한 부시 미국 대통령이 오는 2월 19일부터 21일까지 한국을 방문합니다.

○ 9.11 테러를 빌미로 한 아프간 전쟁을 통해 세계를 전쟁의 도가니로 몰아 넣으며 자국중심의 패권정책을 강력히 추구해 온 부시 정권은 이번 한국 방문을 통해 한미일 군사동맹체제를 바탕으로 대북문제에 대한 한미일 공조체제를 강화하여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지배력을 높이려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 부시정권은 구체적으로 한국에 북의 핵, 미사일, 재래식 무기에 대북정책의 조율, 대테러 협력체계 구축, 미국산 무기 구매 강요, MD체제 참여 강요, 주한미군 전력 강화, 한미투자협정 체결 등 광범위한 요구와 압력을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에 미국의 전세계적 차원의 전쟁책동을 규탄하고, 대북적대정책과 확전가능성을 시사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남북이 화해와 통일로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미국을 반대하는 여론을 확산시키고,

○ 전쟁 분위기 조성, 군비증강, 한미투자협정 체결 등을 통해 민중들의 생존권과 민주적 권리를 위협하는 미국의 군사적, 경제적 지배에 반대하는 한국민의 분노를 조직하며,

○ 부시 정권의 패권적 전쟁 책동과 대북 적대정책에 따라 다니는 김대중 정권을 규탄하기 위해 민주시민사회운동 진영의 반전반미평화 여론을 폭넓게 모아내기 위해

○ 위와 같이 제단체와 관련 연대기구의 집행책임자들이 참석하는 [부시 방한 반대를 위한 제단체 연석회의]를 갖고 부시 방한에 반대하는 모든 역량을 하나로 모아 구체적인 사업방향과 계획을 논의하고자 하오니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붉은기 수호자

러시아 작가 알렉산드르 브레즈이브이예쯔

열병광장에 울리던 철의 소리
지금도 내 귓전에 울리어라
최고사령관의 그 음성
≪영웅적 조선인민군 장병들에게 영광이 있으라≫
기쁨에 들먹이는 심장들의 분출
≪**김정일**최고사령관께 영광을≫

내 보노라 발걸음 높이 나아가는 열병 중대들
답례를 보내시는 영장의 그 손길
번쩍이는 서릿살 총창
빛을 뿌리는 군모의 붉은 별
그것은 정녕 백두산의 불타는 태양, 그 태양의 빛발이던가
가장 경이롭고 가장 존엄높은 이 나라의 정산에서 비춰오는 것

장하여라 무적필승의 군대여
불덩이같은 병사들의 발걸음이여
승리만을 안아온 탱크들의 대오
지축을 뒤흔드는 무한궤도소리여
그것은 정녕 정일봉이 터치는 우뢰소리가 아니더냐
병사들의 얼굴마다에 비낀 숭엄한 맹세
자동총을 틀어쥔 병사들의 억센 손길
빛나는 그 눈동자엔 억년 드놀지 않는 백두산악의 기상이 어렸는가

내 듣노라 정의의 수호자의 목소리
사탕없이는 살수 있어도 총알없이는 살지 못한다
만단의 준비를 갖춘 강철의 대오 총대로 붉은기 지키리라
총대! 그것은 빵보다 더 깊이 귀한 것
마치와 낫, 붓위엔 언제나 총대, 총대가 있어
평화로운 노동의 역사가 빛나거니
총대는 진리의 광원
모든 승리의 상징

그대 장군의 손길 한번 쳐들면
온갖 검은 세력들 살길을 찾느라 아우성치고
자비를 모르는 총대앞에 공포에 질려 벌벌 떤다
그대 장군의 안광
그것은 원수의 머리위에 번쩍이는 장검
그대 장군의 시선
저 멀리 콘크리트장벽도 녹여내고
총폭탄의 뇌성을 불러 불바람을 안아오거니
그대 장군은 온 나라 수백만 총검의 숲을 일궈세우리
그대의 병사들 장군과 함께 총대의 승리를 안아오리라

그걸 지켜보던 판문점 안개도 그대를 정답게 감싸주고
그대의 어뢰정 갑판위에 나서면
사품치는 격랑도 그대 장군을 성쇄인냥 옹위하여라
최고사령관은 언제나 최전방 감시초소 총포탄이 미치는 그곳에 계시나니
하여 이 나라 아이들 즐거운 노래속에 야영소로 떠나고
사랑하는 이 나라 민중들 평온속에 행복한 삶을 누리어라

조선의 풀한포기 건드리려는 자 그 누구냐
조선의 맑은 하늘 더럽히려는 자 그 누구냐
평화로운 바다에 기어드는 해적의 무리 동서해 심연속에 수장되리라
백두의 용사들 지켜선 나라
김정일조선, 그것은 정녕 강철로 다져진 나라
조선을 건드리려는 자 죽음을 면치 못하리라
아메리카여, 온갖 원수들이여
명심하라 조선의 경고
≪우리를 건드리려는 자 이 행성위에 피할 자리가 없다≫

병사들의 총대가 있어
머리위엔 푸른 하늘이 있고
병사들의 총대에 사회주의의 운명이 달렸거니
조국의 병사들 언제나 총대의 기상으로 숨쉬고
언제나 최고사령관과 일심동체
병사들의 어깨위에 붉게 타는 견장
그것은 그대 장군이 수호한 붉은 기폭의 한 부분
병사들의 군모에 빛나는 오각별
그것은 백두산 장군별들의 반짝임

축포여 울어라
≪최고사령관께 영광을≫
관악이여 울려라
≪**김정일**최고사령관께 영광을≫

주체 91, 1월 13일

충청북도 청주시내 모 건물담벽에 임오년 새해를 맞으며 1일 새벽 **김정일**장군님을 칭송하는 현수막이 내걸려 주민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6.15공동선언파탄시키는 미국의 대북전쟁도발책동분쇄와 민족자주실현을 위한 결의대회가 6일 서울 의 용산미군기지앞에서 진행됐습니다.

민주노총과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빈민연합, 한총련, 민주노동당, 전국연합의 지도부성원들이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강릉에서 합동수련회를 가졌습니다.

합동수련회에서는 2002년 정세전망과 투쟁방향에 대하여서와 민중연대, 통일연대강화방안, 2002년 선거대응과 강력한 진보정당건설 등의 의제들이 논의됐습니다.

참가단체들은 일치하게 이번 6개 단체지도부합동수련회가 민주운동의 단합과 전진의 역사적 전기로 될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했습니다.

합동수련회에서는 ≪진보진영의 총단결로 2002년을 희망의 해로 만들자≫라는 제목의 공동결의문이 발표됐습니다.

결의문은 현 정세에 언급해 미일호전광들의 전쟁책동으로 한반도에 다시 전쟁의 먹구름이 몰려들고 남북관계 또한 얼어붙고 있으며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등 민중의 생존권은 마지막 벼랑 끝에 몰려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결의문은 민주주의와 개혁을 후퇴시키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되돌리는 보수반동의 탁류도 거세어지고 있으며 정치권은 민생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앞을 다투어 미국에 대한 충성경쟁을 하며 권력다툼에만 혈안이 돼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결의문은 그러나 투쟁하는 민중이 있기에 2002년은 희망의 해로 기록될 것이라면서 반미반정부투쟁을 더욱더 강력하게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결의문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6.15공동선언을 관철해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일은 더 이상 미룰수 없는 절박한 과제라며 미일호전광들의 전쟁책동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민족자주, 대단결의 기치를 들고 반전반미, 조국통일투쟁을 힘차게 전개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결의문은 민족민주운동진영의 상설적 공동투쟁체인 민중연대의 본 조직을 힘있게 결성하고 통일연대를 강화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결의문은 무능력하며 권력욕에만 사로잡힌 기성보수정치세력에게 그 어떤 것도 기대할수 없다면서 올해 선거에서 진보진영의 총단결로 보수정치권을 심판하고 새로운 정치를 갈망하는 국민들에게 희망으로 우뚝서는 강력한 진보정당을 건설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노총이 11일 노동현안을 해결할 것을 정부측에 촉구했습니다.

실업률이 3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 인사들이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조선혁명과 세계자주화위업수행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정을 표시했습니다.

이북의 새해 공동사설에 접한 재중조선인총연합회 양영동의장과 차상보부의장이 각각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이북의 새해공동사설에 대한 연구토론회와 강연, 독보회가 페루사회당과 페루주체사상전국협회, 주체사상연구소조 탄자니아전국조정위원회, 나이지리아 기자동맹, 에티오피아 아디스 아바바 주체사상연구소조, 우간다 ****종합대학 상업학부 주체사상연구소조에서 지난 3일부터 5일까지의 기간에 진행됐습니다.

파키스탄신문 ≪발로키스탄 타임스≫ 지난 5일자가 ≪동지애는 **김정일**영도자의 정치철학≫이라는 제목의 글을 발표했습니다.

주체 91, 1월 14일

부산시 사하구와 금정구일대의 주민가옥들에 2002년 새해를 맞으며 **김일성**주석님과 **김정일**장군님을 칭송하는 연하장들이 송달되어 보는 사람들을 크게 감동시켰습니다.

주한미군이 군산시 옥서면에 위치한 기지내에 대규모의 탄약고를 짓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현재 군산미군기지우리땅찾기시민모임은 지역주민들과 함께 미군문제해결을 위한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동일보≫ 지난 9일자가 노동운동가의 집에서 도청기가 발견된 것과 관련한 사설을 실었습니다.

사설은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해 12월 23일 이승필금속노조 전위원장의 집에 설치된 도청기가 발견된 사실을 지적하고 이것은 노동운동가나 노동운동단체에 대한 불법적인 도청, 감청이 일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동시에 인권침해행위로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도청기는 미국과 일본 등지에서 수입되고 있는 TK400C형이라고 사설은 지적했습니다.

사설은 이러한 도청행위가 노동계의 큰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면서 당국은 이번 사건의 진실을 명백히 밝히고 그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울산의 폐기물처리업체 근로자들에게서 집단으로 발생한 독성감염은 산업폐기물에 의한 독성감염으로 확인됐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내에 갈등과 내분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윤정원씨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정원 : 한나라당내 갈등을 격화시키고 있는 쟁점은 전당대회문제인데 비주류측은 우선 당을 개혁하고 전당대회를 열어 대선후보와 총재를 선출하자는 것이고 이회창을 비롯한 주류측은 당개혁안은 당국가혁신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음으로 혁신위에 맡기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비주류측은 혁신위의 인사 모두가 이회창이 임명한 사람들이라며 중립성의 의문을 제기하면서 선개혁후전당대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당대회에서 핵심적인 것은 당권과 대권을 분리시키는 문제입니다. 이회창은 이에 대해 언급을 피해오다가 비주류는 물론 중진의원들까지 당권과 대권을 분리시켜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하자 분리를 받아들이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상태인데 이회창은 대선뒤에 총재직을 내놓을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는 총재직을 유지한채 경선에 참가해서 대선후보에 당선되려는 **의 속셈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비주류측은 이회창이 경선전에 총재직에서 물러나야 공정한 경선이 된다며 총재직사퇴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박근혜부총재는 이회창이 대선후보에 출마할경우 당총재직에 계속 출마해서는 안된다며 당권과 대권분립을 관철시키겠다는 강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의 갈등을 격화시키는 또 하나의 쟁점은 전당대회준비를 위한 특별기구창설문제입니다.

한나라당은 이른바 선택2002공개위원회

라는 특별기구구성을 이달말이나 늦어도 음력설전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인데 이 기구의 구성방식과 역할문제 등을 둘러싸고 주류측과 비주류측간의 대립이 심각하게 격화되고 있습니다.

박근혜부총재는 이 기구에 본인이 직접 참여해야한다고 주장하며 이회창이 제왕적 통제로 정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누가 자기의 정치적 생명을 걸고 이회창의 것에 반대되는 주장을 할수 있겠느냐며 자신이 수행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회창측은 경기에 나서는 선수가 심판까지 보겠다는 발상이라면서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부영부총재는 공정경선에 상징적 의미로 시민단체의 참여를 주장하고 있지만 이회창측이 반대하고 나서서 모순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의 내분이 심화되고 있는 것은 이회창이 제왕적 통제로 군림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에 도전해 비주류측은 이회창이 자신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한나라당과 결별하고 신당을 결성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올해 월드컵대회와 각종 선거를 앞두고 이익단체들의 집회 및 시위가 잇따를 것을 대비해 과격성이 없는 사소한 몸싸움 등에 대해서도 즉결심판에 넘기는 등 강경대응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월드컵대회와 선거를 구실로 생존권과 민주민권을 위한 국민의 사소한 움직임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각계의 분노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육군 第55사단은 지난 7일부터 혹한극복능력과 자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라는 미명하에 예하 각 부대별로 야외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 새해에 즈음해 이북 주재 러시아연방 특명전권대사의 초청에 따라 대사관을 방문하신 소식을 여러나라 신문, 통신,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여러 나라 신문이 이북민중이 대를 이어 누리는 수령복과 선군정치의 위대성을 칭송하는 글을 발표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추대되신 10돌에 즈음해 러시아주체사상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치, 경제, 문화연구협회 유리 와닌위원장이 ≪영광스러운 투쟁의 전통을 끊임없이 계승발전시키면서≫라는 제목의 글을 발표했습니다.

이북의 새해공동사설에 접한 원동고통련 권천식위원장이 8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7일 이북의 새해공동사설을 지지해 마다가스까르 주체사상연구전국위원회 위원장, 나이지리아 아브쟈시 초등교육관리국장, 조선통일지지 방글라데시연대성위원회 위원장이 각각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8일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반핵평화활동가들과 각계인사들이 지하핵시험을 재개하려는 미국의 시도에 항의했습니다.

그들은 미국의 시도에 분격을 금할수 없다면서 부시행정부의 일방주의는 미국을 세계에서 가장 불량한 나라로 만드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고 규탄했습니다.

그들은 미국이 핵시험의 재계로 새로운 핵무기를 개발하려고 획책하고 있다고 밝히고 미국은 핵무기축감에 관심이 있는듯이 흉내만을 내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주체 91, 1월 15일

한민전 대변인은 14일 성명을 내고 군부호전집단이 미국으로부터 다량의 신형미사일을 도입하려는 책동을 규탄했습니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공동사무국 임민식사무총장이 새해에 즈음해 글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지난해 우리 민족이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이룩한 성과에 언급하고 조국통일이 전민족이 함께 가는 길이고 7천만이 하나가 되는 길이라면 6.15공동선언은 이 길에서 우리 민족이 시행착오없이 곧바로 나가게 하는 자주통일선언이자 민족대단결선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6.15공동선언을 지지하는 모든 세력과의 거족적 단합과 공동행동을 실현할 때만이 반통일세력을 고립시키고 통일애국세력을 강화해나갈수 있다며 오늘의 정세는 그 어느때보다도 통일운동세력의 폭넓은 단합과 통이 큰 연대, 대범한 공동행동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애국과 매국, 자주와 예속을 가르는 기준점은 6.15공동선언이며 그 이행은 민족의 자주와 존엄, 7천만 민족의 번영을 담보하는 민족구성원전체의 미래이라고 주장하고 따라서 모든 운동은 공동선언이행이라는 관점에서 해석되고 이에 봉사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지금도 반공반북의 논리가 이남의 통일운동의 장애로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히고 이것은 미국이 이 땅을 지배하기 위해 심어놓은 이념이라고 규탄했습니다.

그는 민족적 단결을 실현하고 그 단결력으로 자주화와 조국통일운동을 벌이는 것이 바로 공동선언을 실현하는 길이라고 하면서 반미자주화투쟁은 어제도 오늘도 변함없는 한국사회변혁운동의 총적목표이며 조국통일앞에 제기된 가장 중요한 투쟁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부시가 다음달 19일부터 21일까지 한국을 행각할 것이라고 미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윤정원씨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정원 : 보도된 것처럼 미대통령 부시가 2월 19일부터 21일까지 방한해서 한미정상회담을 갖고 한미동맹관계강화방안과 북의 핵과 미사일문제, 대북공조강화 등을 논의하고 주한미군부대를 방문할 것이라고 합니다.

부시가 한국을 방문하려는 목적은 우선 이른바 한미동맹을 강화한다는 미명하에 한국을 정치군사적으로 더욱 예속시켜 6.15남북공동선언이행에 차단봉을 내리고 우리 국민의 반미투쟁과 조국통일운동을 억눌러 저들의 식민지통치요구를 수습하려는데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6.15공동선언발표이후 남북간에는 외세를 배격하고 조국을 자주적으로 통일하기 위한 대화와 통일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국민들속에서 통일의 방해자 미군을 철수시키기 위한 투쟁이 줄기차게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식민지통치와 미군을 영구주둔시키고 나아가서 북침전쟁을 일으켜 한반도 전체를 거머쥐려는 미국의 계책의 중대한 타격이 아닐수 없습니다.

부시의 한국행각은 이를 파기하기 위한 위기수습행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당면하여 목적은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 구축에 한국에 끌어들이고 북침전쟁준비를 가속화하기 위한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미국은 주한미군을 보호한다는 구실아래 특수미사일부대를 창설하고 이 부대의 일부 직책을 한국공군에 맡겼지만 이에 대해 한국이 신중한 태도를 취하며 특수미사일부대에 군사인원들을 파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미국방장관 럼스펠드가 1월중에 서울에 날아들어 저들의 미사일방어구축에 참여할 것을 강요할 것이 예상된다고 외신들이 전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부시의 한국행각도 이와 다를바 없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부시는 또 방한기간 주한미군부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고무할 것이라고 하는데 그가 전쟁열을 고취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워싱턴 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부시가 한미정상회담에서 북의 핵과 미사일문제 등을 주요의제로 논의할 것이고 이를 계기로 부시행정부의 외교적 관심이 아프가니스탄전쟁이후 북에 쏠릴 것이라고 합니다.

북을 공격하겠다고 노골적으로 떠들고 있는 부시가 2002년을 전쟁의 해로 선포한뒤 이 땅에 날아들려는 것은 북침전쟁준비에 박차를 가해서 기어이 전쟁을 도발하려는 음모를 꾸미려 한다는 것은 명백한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부시의 한국행각은 전쟁행각이라고 낙인찍을수 있습니다.

제반 사실은 호전광 부시의 한국행각은 매우 심상치 않은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통일을 반대하고 전쟁의 먹구름을 몰아오려는 부시의 한국행각에 경각심을 갖고 그의 방한을 저지시키기 위한 투쟁을 강력히 벌여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허바드주한미대사가 최근 민주당 대선주자들을 잇따라 만나서 이들의 대미정책 등에 대한 시각 등을 타진해보고 있어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허바드대사는 지난달 초 김근태상임고문을 만난데 이어 지난달말에는 한화갑상임고문을 만났으며 지난해 10월에는 이인제고문을 만나 이들의 한미관계에 대한 견해와 남북 및 북미관계에 대한 견해 등을 타진해 보았다는 것입니다.

또 15일에는 노무현상임고문을 만난데 이어 정동영상임고문과도 면담할 것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한편 허바드는 지난해 9월 대사로 임명된 후 한나라당총재 이회창과 민주당 한광옥대표를 만난데 이어 지난 10일에는 김영삼을 만나는 등 정치인들을 만났습니다.

한국에 대한 식민지총수격인 주한미대사가 이들과 연쇄접촉을 벌인 것은 대선을 앞두고 누구를 대통령으로 내세울 것인가하는 미국측의 사전검증활동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같은 검증작업을 통해 친미적인 인물을 물색하고 지원해서 차기 대통령으로 내세울 계획을 짜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심한 내정간섭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이 오는 2003년까지 부대를 개편하고 수도권지역에 지휘통제시설과 육군훈련장시설을 건설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한미군이 21일 한 토론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미군은 수도권 2개 지역에 지휘통제시설과 육군훈련장시설을 짓는 등 7개 지역별로 부대를 개편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 미군동반자가족을 현재의 2000여 가족수준에서 2003년에는 5000여 가족수준으로 늘리고 이를 위해 현재 10%에 불과한 주택보급률을 대폭 높일 것이라고 미군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미국이 한미합의에 따라 미군기지 3만4000여평을 반환하고 기지 7개를 추가로 없애며 미군기지를 한강이남으로 이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같은 사실들은 미국이 주한미군을 영구주둔시키며 전쟁준비를 다그치기 위해 책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국민이 통일의 암적 존재이며 전쟁의 온상인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오히려 미침략군을 영구주둔시키키기 위해 책동하는 것은 우리 겨레에 대한 악랄한 도전이 아닐수 없습니다.

미호전광들은 우리 국민의 일치한 요구대로 미군기지와 전쟁장비들을 철수시켜야 할 것입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 아시아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단결기구의 최고훈장인 ≪엘 메디 벤 바르까≫연대성훈장을 수여하기로 결정됐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 새해에 즈음해 알제리 대통령이 선물을 드렸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추대되신 10돌과 항일의 여성영웅 김정숙여사의 탄생 84돌에 즈음해 여러 나라 신문이 글을 발표했습니다.

러시아의 통신, 방송이 이북 민중이 새해 공동사설관철을 위한 투쟁에 떨쳐 일어선데 대해 보도했습니다.

이북의 새해공동사설을 지지해 주체사상 국제연구소 비슈와나스이사장이 7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주체 91, 1월 16일

서울 북쪽에 위치한 북한산 중턱에 새해를 맞아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김정일**장군님을 우러르는 마음을 담은 연이 떠올라 그곳 등반길에 오른 사람들을 크게 감동시켰습니다.

동아대학교 총학생회 연대단체인 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 북서지구노조협의회 산하 13개단체가 11일 연명으로 ≪시대의 반인륜적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서울 지하철공사노조가 15일부터 철야농성에 들어갔습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김대중의 연두기자회견과 관련한 논평을 통해 빈부격차 등 사회갈등에 대한 처방을 제시하는데 실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두환 군사독재정권 당시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투쟁에 나섰다가 체포돼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경찰의 야만적인 고문으로 숨진 고 박종철열사의 추도주기를 맞아 지난 13일 오후 서울대 문화관 중강당에서 추모문화제가 진행됐습니다.

6.25전쟁당시 민간인들에 대한 기관총발포명령을 거부한 미군병사를 소속부대 중대장이 즉결처분하려했다는 증언이 참전 미군인으로부터 제기돼 미침략자들에 대한 분노가 일고 있습니다.

특히 증언자가 당시 미군에 의한 대표적 양민학살사건인 노근리사건때 양민들에게 발포했던 미군부대대원이였다는 점에서 노근리양민학살사건이 미침략군의 명령체계에 따라 이루어졌음을 입증해주고 있어 국민의 반미감정을 더욱 촉발시키고 있습니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50년 7월 26일 충북 영동군 산간면 노근리에서 발생한 양민학살당시에 노근리에 주둔했던 미군 제1기갑사단 제7기갑연대 2대대 중박격포중대 소속 전방관측병이였던 미국 오하이오주에 사는 68살 조지 얼리가 당시 총상을 입고 살아난 한국인 피해자에게 52년만에 보낸 사죄편지에서 밝혀졌습니다.

그는 지난 14일 총상 피해자인 영동군 영동읍 주곡리에서는 63살 서정갑씨에게 보낸 편지에서 어느날밤 중대장은 민간인에 대한 기관총사격을 거부하는 나를 처형하겠다고 협박했었다고 밝히고 당신이 당한 일을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사죄했습니다.

노근리양민학살만행에 참가한 미군부대대원으로 공식 확인된 미국인이 한국인피해자에게 진상을 밝히고 사죄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런데 한미양국은 지난해 1월 노근리사건에 대한 공동조사에서 사격명령이 하달됐는지의 여부를 결론짓지않고 어물쩍해버렸던 것입니다.

일본에서 발행되는 ≪조선신보≫ 지난 14일자가 ≪2002년 애국애족운동의 총적방향과 기본**≫와 관련한 사설을 보도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 불굴의 통일애국투사 비전향장기수 이세균씨에게 은정어린 생일 여든돌상을 보내셨다고 평양방송이 전했습니다.

주체 91, 1월 17일

범청학련 남측본부와 용산미군기지반환운동본부는 12일 미국의 새전쟁도발책동을 분쇄하고 6.15공동선언실현을 위한 투쟁에 앞장설 의지를 표명한 결의문을 발표했습니다.

남북공동선언부산실천연대준비위원회는 지난 11일 성명을 내고 6.15공동선언실현에 앞장서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경북대학교 총학생회장 최광용씨가 지난 11일 새해를 맞으며 백만의 청년학생들이 단결된 힘으로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과감히 전개해나가자고 호소했습니다.

대우자동차노조는 15일 지난해 4월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노조원들이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 새해에 즈음해 쿠바, 방글라데시, 팔레스타인, 브룬디, 적도기니, 탄자니아, 케니지, 벨라루시, 체코, 우크라이나, 도미니카대통령들을 비롯한 여러 나라 당 및 국가영도자들이 연하장을 드렸습니다.

여러 나라 인사들이 **김정일**영도자님의 선군정치로 이북은 더욱 빛날 것이라는 확신을 표시했습니다.

페루 우아쵸 주체사상연구문화협회 결성식이 8일 우아쵸주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북의 새해 공동사설을 지지해 7일과 8일 멕시코인민사회당 서기장, 인도 인민전선위원장이 각각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주체 91, 1월 18일

통일뉴스 상임고문과 민가협의장이 새해에 즈음해 각각 글들을 발표했습니다.

통일뉴스 김남식상임고문은 글에서 6.15공동선언은 21세기 민족사의 발전방향을 제시한 통일의 이정표, 자주선언, 민족대단결선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지난해 부시가 집권후 내놓은 대북정책이라는 것이 이북으로써는 도저히 받아들일수 없는 황당무계한 것이라고 비난하고 우리 민중은 공동선언이행에서 여러 가지 난관에 부닥치게 된 원인이 바로 미국의 대북강경정책때문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남북문제는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풀어야 한다면서 오늘 우리앞에 제기되고 있는 최대의 민족적 과제는 자주적인 민족사를 창조해나가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민가협 임기란의장은 글에서 한 가정의 어머니가 거리에 나서서 양심수전원석방, 국가보안법철폐운동을 벌여온지 16년이 지났다면서 군화발에 짓밟히고 최루탄에 쓰러지면서도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그려보며 고통을 견디어내던 그때의 그 마음으로 새해에도 희망을 가져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양심수가 석방되고 국가보안법도 없어지며 일터에서 쫓겨난 노동자들이 그 자리로 돌아가는 등의 민주주의와 통일, 진정한 인권실현을 위해 쉬임없이 걸어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부산경남지역대학총학생회연합(부경총련)은 지난 12일 반미투쟁선포식을 갖고 6.15공동선언이행과 미국의 대북전쟁위협반대를 위한 2002년 투쟁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노근리미군양민학살대책위원회는 68살 조지 얼리 미참전사병의 사죄편지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노근리사건이 상부의 명령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다시 확인된 만큼 미국은 이 사건을 즉각 재조사하고 사과와 배상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대책위는 성명에서 당시 미 제1기갑사단 7기갑연대 2대대 중박격포 중대소속이였던 조지 얼리씨가 현지에서 민간인에 대한 발포를 거부하다 처형위협을 받았다는 등 당시 양민학살이 중대장의 명령에 따라 이루어진 구체적 사실을 증언하고 있다며 미국이 진정한 사과와 배상을 하는 정의로운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책위는 특히 편지를 보낸 조지 얼리씨외에도 그동안 미참전사병들이 상부의 명령사실을 증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정부는 이 사건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처럼 적당히 덮어두려 하고 있다며 미국의 도덕성회복을 촉구했습니다.

대책위는 이어 미국은 클린턴 전 대통령이 노근리피해자를 위한 추모비와 장학기금설치를 약속한지 1년이 넘도록 이를 이행하지 않고 6.25전쟁의 모든 민간인희생자를 위한 추모비건립을 고집하고 있다며 미국은 사죄의 마음으로 노근리희생자를 위해 조건없는 추모비건립에 나서라고 덧붙였습니다.

용산미군기지안에 아파트를 건립하는 문제로 비난이 일고 있는 가운데 주한미군측이 독신자용 숙소도 새로 지을 계획인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방부관계자는 지난달말 주한미군이 독신자용 숙소건립계획이 담긴 공문을 보내왔다고 밝혔습니다.

주한미군측이 짓기로 한 독신자용 숙소는 지난해말 논란이 됐던 미군의 가족용숙소와는 별개의 것으로 숙소부지로는 용산기지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한미군의 이같은 움직임은 그들이 우리 국민의 의사와 요구같은데는 꿈쩍도 하지 않는 흉악한 침략의 무리라는 것을 다시금 실증해주고 있어 각계의 반미감정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안국동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개혁을 위한 10대요구를 발표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17일 이명재검찰총장이 정치권력으로부터 검찰을 지켜 검찰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경남 양산의 한 아파트주민 22명이 집단으로 세균성 이질에 감염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승합차가 앞서가던 경운기를 들이받아 5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여러 나라 신문들이 **김정일**영도자님의 선군정치로 이북은 더욱 빛날 것이라는 확신을 표시했습니다.

이북의 새해공동사설을 여러 나라 신문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아랍국가연맹서기장이 15일 한 외국대표단과의 담화협상에서 그 어떤 아랍나라에 대한 군사적 공격지역의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다면서 그러한 군사적 공격을 단호히 배격했습니다.

주체 91, 1월 19일

우리 민중속에서 **김정일**장군님을 민족단

합의 유일중심, 통일의 위대한 영수로 숭앙하는 기운이 날로 높아가고 있습니다.

서총련은 지난 12일 6.15공동선언이행을 위한 2002서총련자주통일성토대회 성토문을 발표했습니다.

주한미군이 논란을 빚고 있는 아파트건축과는 별도로 서울 용산미군기지 안에 또다시 독신자건물을 지을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17일 알려졌습니다.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지난 4일 용산 남쪽기지 드래곤힐즈 호텔 인근에 6층짜리 독신자건물을 짓겠다는 계획을 통보해왔다고 합니다.
주한미군의 이같은 계획은 미군을 영구주둔시키려는 용납못할 행위인 것입니다.
전 국민이 미군기지를 반환하고 미군을 철수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군 장교들을 위한 아파트건설과 함께 독신자건물까지 짓겠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악랄한 도전이고 우롱이 아닐수 없습니다.

호전광 부시를 비롯한 미국의 호전분자들의 잇따른 한국행각과 전쟁책동으로 인해서 한반도의 전쟁위기가 갈수록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윤정원씨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정원 : 올해 2000년을 전쟁의 해라고 선포한 호전광 부시가 다음달 15일부터 21일까지 한국을 행각해 이른바 정상회담이라는 것을 갖고 한미우호관계공고화와 대북정책공조강화, 9.11테러사태후 새로운 국제질서구축관계협력방안 등에 대해 협의하고 주한미군부대를 방문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각계에서는 부시의 행각을 전쟁행각으로 낙인찍고 그의 행각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부시는 북침전쟁책동에 광분하면서 이에 한국을 적극 끌어들이기 위한 음모를 꾸미기 위해 호전적인 강경보수분자들을 한국에 잇따라 파견하고 있습니다.
이미 보도된 것처럼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구축에 강력한 지지자인 미국회의원 3명이 지난 1월 3일 극비리에 방한해 미군기지와 판문점을 시찰했고 외교통상부와 통일부당국자들과 올해 한국의 대북정책방향을 따져보고 남북관계에 대한 자료까지 수습해갔고 워싱턴으로 날아가 부시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17일에는 미하원의장이라는 자가 날아들어서 당국자들을 만나고 판문점과 전방부대를 시찰하는 등 전쟁열을 고취하며 돌아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방장관 럼스펠드가 이달말에 일본에 날아들어 일본반동들과 만난뒤 서울로 와서 국방장관 김동신과의 회담에서 한미일안보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대책을 세운다고 합니다. 이어 미합동참모본부 의장 ***가 오는 3월 23일부터 일본과 한국을 행각한다고 합니다.
부시를 우두머리로 하는 강경호전분자들의 잇따른 한국행각으로 한국의 호전세력들과 공모해서 이 땅에서 북침전쟁을 도발하려는데 근본목적이 있다는 것이 명백한 것입니다.
올해를 전쟁의 해로 선포한 부시는 이른바 대테러전쟁이라는 구실을 붙여가며 세계 도처에서 침략전쟁을 감행하려 하면서 그 창끝을 이북으로 돌리고 아프가니스탄전쟁이 끝나면 북을 공격하겠다고 노골적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을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특수미사일부대를 창설하고 여기에 국군을 참여시키는 한편 다연장지대지미사일을 111기를 한국에 넘기려하는 등 전쟁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부시정권과 당국자들의 이같은 엄중한 전쟁공조책동으로 인해서 한반도의 긴장상태는 갈수록 격화돼 전쟁위기가 감돌고 있는 것입니다.
또 6.15공동선언이행에 난관이 조성되고 됐으며 남북관계는 대결의 원점으로 돌아갈 상태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외민중의 큰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우리 민중은 이를 절대로 용납할수 없는 것입니다.
부시를 비롯한 미호전광들은 스스로 제무덤을 파는 망동을 중지해야하며 당국자들은 미국과의 전쟁준비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미국의 전쟁도발책동과 한미공조체제를 분쇄하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위한 투쟁에 모두다 떨쳐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금강산을 사랑하는 범국민연대는 18일 기자회견을 갖고 전국 주요도시를 순회하는 금강산관광살리기 100만명 서명운동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금강산사랑연대는 대국민호소문을 통해 금강산관광사업이 남북관계개선과 민족의 화해를 이끌어가는 국민적 사업이 돼야 한다며 이 사업이 중단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금강산사랑연대는 또 특히 금강산관광이 퍼주기사업이 아닌 평화를 세우는 사업이라고 강조하고 18일부터 광주와 부산을 시작으로 대전, 파주, 춘천 등을 돌며 서명운동과 사진전 등 문화행사를 갖고 금강산관광사업의 당위성을 호소할 계획입니다.

한나라당의 박근혜, 이부영부총재와 김덕룡의원 등 비주류 3인은 이회창의 연두기자회견에 대한 공동보도자료를 통해 이회창은 국민과 당원의 정당민주화와 개혁의 요구를 무시하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이회창이 국민참여경선과 집단지도체제에 대해서 수용거부의사를 분명히 한 것은 당을 민주화하거나 개혁할 의지가 없음을 드러낸 것으로써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총재 이회창이 연두기자회견을 통해 민주화와 정당개혁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면서 이는 시대와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고 당내 요구마저 봉쇄한 것으로 매우 부적절하고 위험한 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한나라당이 국민참여경선제에 대해 시비를 거는 것은 새로운 제도에 대한 지지열기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며 정치개혁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하자는 국민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 조선노동당중앙위원회 후보위원이며 이북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며 중앙식물원 원장 겸 산림과학원 원장인 노력영웅 원사, 교수, 박사 임록재씨의 서거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시해 18일 고인의 영전에 화환을 보내셨다고 평양방송이 전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 비전향장기수 함세환씨에게 생일 일흔돌상을 보내셨다고 평양방송이 전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의 탄신절에 즈음해 네팔신문 ≪아르판≫ 11일자가 **김정일**영도자님은 21세기의 태양이시다라는 제목의 글을 발표했습니다.

일본 ≪마이니치≫신문 10일자는 일본의 학생들속에서 과거침략역사를 진실하게 반영할 것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는데 대해 전했습니다.